

수용자 종합문예지
통권 452호 | 2020 겨울호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직원 작품 | 테마원고 | 수기 | 서간문 | 기획기사 | 용서의 글 | 시 | 독후감 | 수필 | 감상문

2020 | 겨울호
통권 452호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2020년 겨울호 (통권 452호)

1948년 4월 1일 창간 2020년 12월 18일 인쇄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 111-1270000-000299-08
편집인 : 한태환 인쇄 : 서울남부교도소
디자인실 : 한양애드 (02)2279-0814
우편번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회복귀과 : (02)2110-3438
e-mail : saegil@hanmail.net

CONTENTS | 목차

직원 작품

- 04 군고구마와 어머니 | 장흥교도소 교위 정우성
- 05 군고구마 | 충주구치소 교도 박건호
- 06 코 끝에 겨울이 스친다 | 청주여자교도소 주나연
- 08 '낙나무의 파수꾼'을 읽고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도 박건후

테마원고 - 군고구마

- 10 나는 군고구마, 당신은 사이이다 | 전유중
- 11 군고구마와 소년의 꿈 | 문경옥
- 12 겨울정수 | 서명진
- 13 고구마 II | 최수성
- 14 군고구마에 대한 전설 | 배수환
- 15 군고구마 | 박용우
- 16 돈 오천원에 얻은 행복 | 김정남
- 17 달콤한 군고구마는 어머니의 사랑 | 정태진
- 20 노란 사랑 | 한에녹
- 23 군고구마 리어카 | 최해성
- 26 군고구마 두 개 + 마음 한 개 | 홍승돈
- 29 달콤, 따뜻한 추억 | 최장섭
- 32 그리움 | 전영수
- 35 아버지의 작품 군고구마 | 김현희
- 37 동치미 군고구마 | 박상운

수기

- 40 반추 | 명원호
- 43 대입검정고시 합격 교정선교회 성경대학 졸업 | 이호준
- 47 다시 부르고 싶은 노래 | 류기호
- 49 To 부끄러운 고령자 | 김종남

서간문

- 51 아름답고 따뜻한 당신께 | 박중석
- 54 당신의 아들이라 자랑스럽습니다 | 박중수

기획기사

- 57 신축년(辛丑年)의 소 이야기 | 동덕여대 교수 김상철

용서의 글

- 65 용서를 비는 참회의 글 | 박 광
- 67 용서를 빙니다 | 신현규
- 69 어머니 죄송해요 | 송기성
- 71 용서를 구합니다 | 김진정
- 73 용서를 구합니다 | 서승오
- 76 가족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전종석
- 79 용서의 글 | 최진수
- 82 용서를 구합니다 | 석종수
- 84 용서를 구합니다 | 이희진

시

- 87 누이 | 오세용
- 88 눈의 독법 | 연용봉
- 89 눈 내리는 밤이면 | 이경로
- 90 겨울 나무 | 박병진
- 91 TV를 보다가...(눈물...) | 유석중
- 92 눈사람(희망)II | 김금숙

독후감

- 93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를 읽고 | 한대희
- 97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를 읽고 | 진정득
- 101 「공복, 최고의 명약」을 읽고 | 이무용
- 105 「죄와 벌」을 읽고 | 김대호
- 108 「네 가지 약속」을 읽고 | 오상균

수필

- 111 유토피아를 꿈꾸며 | 이철환
- 113 밝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 | 여인원
- 117 겨울, 눈 | 정희천
- 120 이 또한 지나가리라(Hoc quoque transibit) | 이영우

감상문

- 123 새길지 가을호를 읽고 | 서창희
- 125 새길 감상문 | 강명남
- 127 2020년 가을호를 읽고 | 조효선

군고구마와 어머니

정우성 | 장흥교도소 교위

눈 내리는 겨울밤이면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군고구마 장수

맛 좀 보시라며
반쯤 쪼개 건넨
해남 꿀 고구마

후~ 후~ 불며
한입 두입 베어 삼키자
목이 딱혀 온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채반에 가져다주신
동치미가 떠올라서일까?

군고구마의 달콤함 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 있어서일까?

눈 내리는 겨울밤
노오란 그리움이
소복소복 내 마음에 쌓인다.

군고구마

박건호 | 충주구치소 교도

황금빛 내면의
발현을 위한
그의 삶은
차가운 지하에서

호미에 다치고
바닥에 내뒹굴고
뜨거운 불구덩이
견뎌내고 견뎌내어

노란속살
세상 밖으로
드리날 때
내뿜는 연기
그가 머금었을
품안의 고통

허물로 태어났으나
허물로 살지않으며
마침내 완성했으니
마침내 버려지는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 있는



코 끝에 겨울이 스친다

주나연 | 청주여자고도소

나는 겨울이 좋다. 문밖을 나서면 느껴지는 매서운 아침 공기, 시려워 무거워진 손을 끌고 퀴퀴한 실내에 들어서 따뜻한 히터 앞에 앉아 느끼는 노곤함이 좋다. 한겨울 눈이 소복이 내려 앉아 온 세상이 하얘질 때면 몽클해지며 마음 한 곳이 아릿한 느낌이 들만큼 겨울이 좋다.

누군가 내게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무어나고 물어올 때면 나는 단 한번 자신 있게 대답했던 적이 없다. 다만 각각의 계절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기보다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겨울은 매서운 추워서 힘들지요.'라고 답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여태껏 나는 겨울을 가장 좋아했던 것이 틀림없다. 겨울의 추위는 매섭다. 그렇지만 싫은 것만은 아니다. 추위에 떨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 몸을 녹이는 것, 그만큼 마음을 녹여주는 기분 좋은 것이 또 있는가? 겨울을 떠올리면 여름보다야 더 많은 추억이 나를 감싸온다.

나홀로 한겨울 이웃나라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대학생 시절, 방학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모아 떠났던 첫 해외여행이라 개인적으로 도전적인 의미가 크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첫 해외여행은 꼭 내 키보다 높이 쌓일 만큼 눈이 많이 내린다는 홋카이도로 가보고 싶었다. 수능을 앞둔 고3시절 KBS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속으로-홋카이도편'을 보고 눈이 건물보다 높이 쌓인 세상이 궁금해 여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베리아 기단의 혹독한 추위에 대비해 준비도 단단히 하고 떠났다. 무릎까지 오는 방한부츠와 한겨울에도 얇은 코트로 버티던 내가 기능성 패딩까지 구비했다. 홋카이도의 여러 곳을 다녔다. 눈발이 끊임없이 펼쳐지던 '비에이', 야경이 절경이던 '하코다테',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라는 '오타루'...

눈이란 눈은 소원했던 만큼 다 보고 온 것 같다.

그 많던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바라본 눈 쌓인 풍경이었다. 온 세상 가득 쌓인 설국의 풍경, 기차소리, 따뜻한 기차 실내. 이 삼박자는 지금도 겨울이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우리는 여행을 하다보면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자주 만나볼 수 있다. 낯선 이국땅, '오타루' 길거리 트럭에서 맡았던 익숙한 한국의 냄새. 군고구마였다. 고작 5박 남짓한 여행이었지만 3일차부터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던 나로서는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장갑을 껴도 손이 너무 시렸던 순간 트럭에서 파는 군고구마를 꺼내어 들고 손을 녹였다. 김치가 있었더라면 더 완벽했을 것이지만 그런대로 됐다.

호기롭게 혼자 떠나왔지만 막상 함께 여행하는 가족들을 보니 한기가 더욱 서리는 듯 했다. 초겨울 11월째부터 군밤장수 아저씨가 같이 파시던 고구마를 유독 좋아했던 그리운 할머니가 생각났다. 만약 할머니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어디 온천여행이라도 함께 할 수 있었으리라. 씩씩름한 마음을 접어두고 다시 설국여행 발걸음을 재촉했다.

내 눈과 마음속, 오래된 필름카메라에 담아온 아름다운 설국의 풍경들. 지금처럼 차가운 겨울 공기가 코끝을 스쳐 올 때면 그 순간이 생각나고는 한다.

공직생활을 하는 지금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권태를 느끼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귀찮고 성가신 일이다. 어쩌면 시국을 틔타 타고난 내 게으름으로 모든 호기로운 일상을 덮고 있는 게 아닌가? 얼마나 아까운 청춘인가.

도전 없는 내 인생은 지금 겨울을 마주하였다. 어서 이 추운 겨울의 해태를 깨어 다가올 봄의 도전을 맞이하여야 할 일이다.



‘녹나무의 파수꾼’을 읽고

박건후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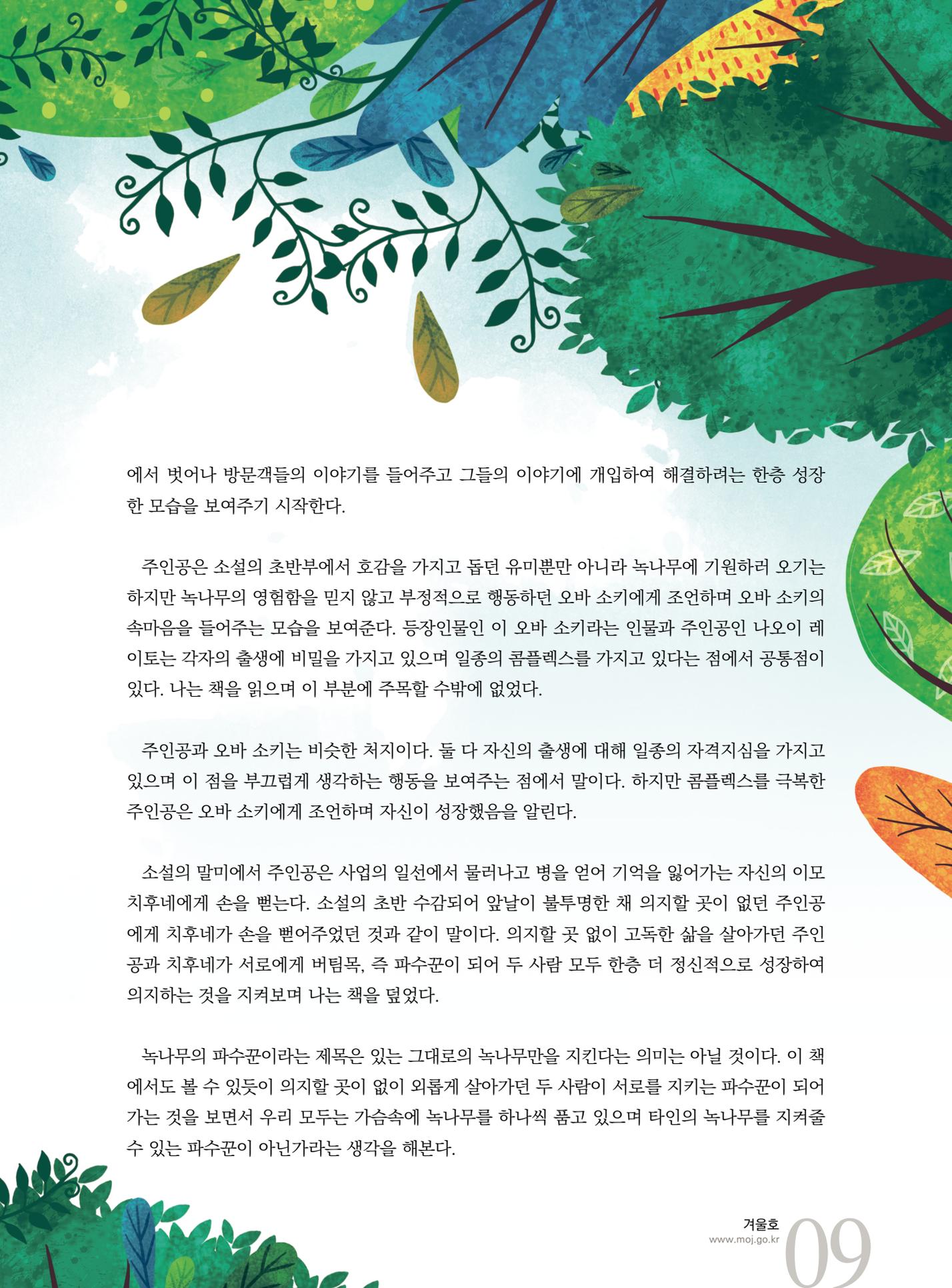
도서관에서 읽을 책을 찾아보다 한 책의 제목이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녹나무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은 나에게 신기하게 다가왔다. 호기심이 들어 작가의 이름을 확인하니 일본의 유명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였다. 녹나무의 파수꾼이라니 일본의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도 되는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첫 장을 펼치니 나의 예상을 벗어나 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시작되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주인공인 나오이 레이토가 자신을 억울하게 해고한 회사를 대상으로 절도를 저지르다 유치장에 수감되며 시작된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할머니밖에 없이 살아오던 주인공은 그대로 체념하지만 주인공조차도 몰랐던 자신을 주인공의 이모라고 밝힌 치후네라는 인물에게서 녹나무 파수꾼의 일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파수꾼이 필요한 녹나무에서 눈치챘겠지만 소설에서 등장하는 녹나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다. 무려 소원을 들어준다는 영험한 나무이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찾아오는 나무이다.

주인공은 당연히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나무에 대한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이모인 치후네의 지도에 따라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녹나무가 위치해 있는 월향신사를 관리하던 주인공은 녹나무에 소원을 빌러온 사지 토시아키의 뒤를 밟던 그의 딸 사지 유미와 마주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유미를 돕게 된다.

주인공은 아버지를 오해하여 아버지의 뒤를 쫓는 유미를 도우며 자신이 지키는 이 녹나무가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주는 미신적인 나무가 아닌 녹나무 안에서 예념자의 염원을 대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정말로 영험한 힘이 있는 나무인 것을 알게 된다.

이야기가 전개되며 주인공은 단순히 녹나무를 관리하며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의미의 파수꾼



에서 벗어나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소설의 초반부에서 호감을 가지고 돕던 유미뿐만 아니라 녹나무에 기원하러 오기는 하지만 녹나무의 영험함을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던 오바 소키에게 조언하며 오바 소키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장인물인 이 오바 소키라는 인물과 주인공인 나오이 레이트는 각각의 출생에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나는 책을 읽으며 이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주인공과 오바 소키는 비슷한 처지이다. 둘 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일종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콤플렉스를 극복한 주인공은 오바 소키에게 조언하며 자신이 성장했음을 알린다.

소설의 말미에서 주인공은 사업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병을 얻어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의 이모 치후네에게 손을 뻗는다. 소설의 초반 수감되어 앞날이 불투명한 채 의지할 곳이 없던 주인공에게 치후네가 손을 뻗어주었던 것과 같이 말이다. 의지할 곳 없이 고독한 삶을 살아가던 주인공과 치후네가 서로에게 버팀목, 즉 파수꾼이 되어 두 사람 모두 한층 더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의지하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책을 덮었다.

녹나무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은 있는 그대로의 녹나무만을 지킨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 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던 두 사람이 서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가슴속에 녹나무를 하나씩 품고 있으며 타인의 녹나무를 지켜줄 수 있는 파수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군고구마, 당신은 사이다

전유중

나는 군고구마, 당신은 사이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내게
시원한 한순간이 되어주는 당신은 시원한 사이다.

가끔
답답한 내게 따끔따끔한 말로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당신은, 따끔한 사이다.

또 가끔
꽉 막힌 나의 속을
다정하게 쓸어 내려주는 당신은 다정한 사이다.

다 타버린 나의 곁이 아닌
부드러운 속을 봐주는 당신,
당신은 군고구마 같은
내 인생 안정맞춤 사이다.



작품평

찰떡궁합이 여기에도 있었네요. 맛있는 고구마처럼 목을 메이게도 하는 사람에게 시원하고 따끔하고 다정해서 안정맞춤인, 사이다 같은 당신이 있다는 것.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완해줄 누군가 있다는 건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고구마와 소년의 꿈

문경옥

해 질 녘
초가삼간 지붕 굴뚝 위로
푸른 연기 피어오른다.

섬 소년의 꿈이 가득한
몽환의 연기 사이로 -

봄부터 가을 내내...
몸부림치던 농삿일,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

오늘도 소년은
아궁이 불을 땀다.

어머니 가마솥 안에는
쌀보리 섞인 고구마 밥이.....
소년의 아궁이엔 군고구마 놓여 있다.

오늘도 초가삼간 지붕 위로
빠알간 아궁이 군고구마 연기...

소년의 꿈과 함께 익어간다.
꿈과 희망이 다시 익어간다.



작품평

농사일로 바쁜 부모를 기다리며 밥을 짓고, 고구마를 굽는 소년의 아궁이가 보입니다. 바다에 갇혀 있는 마음이 섬을 닮았을까요. 소년의 꿈이 그려지는 시편입니다. 겨울 바닷가는 더 춥기만한데 고생한 부모를 기다리는 소년의 마음이 잘 익어가는 고구마의 달콤한 향기로 익어가는 듯 합니다.

겨울장수

서명진

하얀 눈 내리는 날 버스정류장 군고구마 장수
꼬맹이들 옹기종기 학교 앞 봉어빵 장수
모르락 내리락 육교 밑 군밤 장수
겨울 장수들 여기 다 모여 있네.

차가운 바람에 손발 뽕뽕 얼어붙을 지라도
집에서 목 빠질 우리 새끼들 생각에
발 동동 구르며 손 쓱쓱 비비며
소리쳐 본다.

여기 따뜻한 군고구마 있어요.
여기 따뜻한 봉어빵 있어요.
여기 따뜻한 군밤 있어요.

차가운 이 겨울
여기 따뜻한 아버지들이 있어요.



작품평

겨울이면 나타나는 겨울장수들 재밌습니다. 겨울 트리오네요. 차가운 겨울을 소박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군고구마, 봉어빵, 군밤은 겨울 하면 떠오르는 사랑의 간식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을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간식.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행복한 겨울이길 응원합니다.

고구마 II

최수성

불맛이 묻어나는 진노란 물고구마
껍질은 살 발라서 내 입에 털어 넣고
먹음직 알맹이는 동생들 밀어주고
손끝에 묻어나는 쪄가리 맛을 보네
할머니 아궁이에 구워진 밤고구마
젓가락 필요 없이 신김치 들어 얹어
침 흐른 입속으로 큰 한입 베어 물면
배고픔 잊은 채로 내 동생 꿈속 들고
장예간 엄마 드실 감춰논 군고구마
실 눈뜬 동생 볼까 옮겨진 군고구마



작품평

만인의 간식인 고구마가 누군가에겐 한 끼 식사가 되기도 합니다. 동생들에게 양보한 군고구마. 추운 장터에서 돌아오고 계실 엄마에게 드리려고 동생들로부터 살짝 감춰놓은 마음이 따끈한 고구마보다 더 따끈하게 다가옵니다. 먹을 것이 많은 시절이지만 따듯한 마음도 많아지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군고구마에 대한 전설

배수환

빛도 바람도 한 점 없는
세상은 온통 칙흑같은 어둠과 고요한 적막뿐
나는 자연스레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터득한다.
기억나는 것은 그 뿐 세상이 뒤집혔다.

굴리면 굴러가고 던지면 던져지고
혹여 무지막지한 발길질에 생살이
찢겨져 나간다 한들
나는 내가 처한 현실에 늘 감사함으로
인내하겠다.
그 어떤 불평도 저항도 없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 나면 못난 대로
설령 흠뻑 묻은 비루한 몰골로
평생을 살아간다 한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늘 감사함으로
겸손하겠다
그 어떤 원망도 절망도 없다

난생 처음으로 맞는 몸단장의 호사가
진정 생의 마지막 의식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을지라도
나는 이 또한 감사함으로 분연히 일어나
이 한 몸 바치련다
그 어떤 후회도 회한도 없다.

미친 듯 치솟는 화염의 춤사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시뻘건 불구덩이와 한 몸인 듯 꼼짝달싹도
할 수 없다 한들
나는 오로지 감사함으로 행복을 꿈꾸며
희망을 노래하겠다
그 어떤 통곡도 절규도 없다

나는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환희다
나는 오늘 내가 나인 것을 자랑한다
나는 전설
나는 군고구마다

작품평

먹거리로만 알았던 고구마를 통해 이런 다짐과 각오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고구마에 비춰본 인생도 이렇게 의미심장합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고구마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물며 고구마도 그러하건데 사람도 너도나도 그런 마음이었음 좋겠습니다.

군고구마

박용우

군고구마 사려
우리 큰 애 집 사는데 보태게
울 엄니 목소리 세상을 파고들며
군고구마 익어가는 맛이 향기롭다.

군고구마 사세요
우리 딸 애 시집가게
울 엄니 목소리 울려 퍼지면
군고구마 익어가는 향이 구수하다.

군고구마 사주시오
우리 셋째 장가가게
울 엄니 목소리 간절하면
군고구마 익어가는 소리 애처롭다.

군고구마 사구려
우리 넷째 전세방 얻게
울 엄니 목소리 힘이 빠지면
군고구마 익어가는 소리 처량 맞다.

군고구마 사세요
우리 막내 대학 가게
울 엄니 목소리 당당하면
이마에 주름살 깊어만 간다.



작품평

추운 골목길 입구에서 고구마 파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저렇게 간절한 이야기들이 있는 줄 몰랐 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고구마를 파는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군고구마 값 한 푼 두 푼을 모아 자식들 장가도 보내고 학비도 보태는 일이었네요.

돈 오천원에 얻은 행복

김정남



여보세요 아빠 어디야? 아직 일 안 끝났어?

응 지금 끝났어 그럼 술 안먹고 바로 올꺼지? 그래 오늘은 술 안먹고 바로갈게
정말이지? 그럼 오면서 군고구마 좀 사온나, 우리 공주님 군 고구마가 먹고 싶었나?

응 내가 먹고 싶은게 아니고 언니하고 동생이 먹고 싶다네, 응 알았어.

비록 못생기고 새까만 겉옷으로 치장 된 군고구마, 겉옷을 벗겨보니 노르스름한 속살을 들어내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

여지저기서 후후 불며 맛있게 먹는 소리가 정말 행복했다.

아 군고구마, 돈 오천원에 얻어진 행복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큰 추억의 책장속에 저장 될 줄이야...

아~ 언제쯤이면 단 돈 오천원에 얻어진 행복을 다시 살 수 있을까...

작품평

평범한 일상과 대화 속에 이미 시가 있습니다.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가족의 목소리만큼 따듯한 게 어디 있을까요. 군고구마가 이어준 가족의 사랑. 행복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마법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게 하는 시편입니다.

※ “테마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달콤한 군고구마는 어머니의 사랑



정태진

1998년 IMF 경제 대위기가 찾아왔고, 아버지의 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어머니가 생활 전선에 나섰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친구들과 흠장난 하며 놀다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신발 살 돈이 없어 어머니는 저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 떨어진 포대기에 저를 업고, 3시간을 걸어 보험사에서 일하셨던 어머니, 그 흔한 운동화 한 켤레 신지 못하시고, 슬리퍼로 그 먼 거리를 항상 걸으셨습니다.

통통 부은 발과 점점 굽어가는 허리, 철없던 저는 어머니에게 얽혀 힘드신 것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게 걸으시다 의자에 앉아 쉬어 가실 때면, 항상 자고 있는 저의 볼에 뽀뽀하며 속삭여 주셨습니다. “아들아, 아무리 힘든 길일지라도 널 행복하게 해 줄 수만 있다면, 난 평생 이 길을 걸을 거야, 언제나 행복하렴” 하시고는 다짐하신 듯 포대기에 저를 움켜 쥐시고, 의자에서 일어나 또 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보험사에 도착하면 저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탕과 컴퓨터 그리고 나를 이쁘게 봐주는 많은 사람들, 오늘도 어김없이 사탕 2~3개 입에 가득 넣고 회사 이곳 저곳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아직 철이 없습니다.” 하시며 빠르게 도망가던 저를 잡으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치면 회사 소파에 누워 잠들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험사에서 하시던 일은 전화로 고객과 상담하는 업무였습니다. 깃곳은 고객도 많았고, 장시간 앉아야 하는 힘든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에게 비위를 잘 맞춰 드리며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여 '친절왕' 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힘든 형편에도 저 하나만 보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일하시고 저녁이 늦어서야 소파에 잠자는 저를 업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등으로 전해지는 온기는 항상 따뜻했고, 저는 이때가 가장 안심되고 행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일로 지쳐서 피곤하신 어머니 등에 업혀서 말이에요…….

한겨울 날씨는 짙짙했고, 땅 위로 살얼음이 군데군데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 떨어진 슬리퍼와 얇은 양말로 텅텅 떠시며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된 일로 배고프셨던지 어머니의 배에서 나는 '꼬르륵' 배고픔의 소리가 등가를 통해 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찌나 소리가 크던지 난 잠에서 깨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내가 묻자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들 많이 배고프지? 얼른 집에 가서 맛있는 밥 해 줄게” 어머니는 되려 나를 걱정하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나는 어머니 등에서 바람을 후후 불면서 입김이 사라지는 걸 구경했습니다.

1시간쯤을 더 걸었을까, 저 멀리서 기차같이 생긴 모양의 물체가 굴뚝으로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물체에 가까이 도착하니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에 어머니가 업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난 별떡 일어났습니다. 군고구마 장수였습니다. 군고구마 장수는 많이 배고팠는지 팔고 있던 고구마 한 개를 반으로 쪼개서 크게 한입 먹고 있었습니다. 셋노란 군고구마가 모락모락 김을 내며 고구마 아저씨에 입에 들어가는데, 마치 구름 달고나를 먹는 것 같았고, 그 모습에 나는 침이 입가에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시고, 휘둥그레한 눈을 보셨는지, 바지 주머니를 뒤져 보시고, 주섬주섬 동전을 세어 보셨습니다. “고구마 얼마인가요? 아들이 배고픈지 계속 쳐다 보네요 허허” 고구마 장수는 나를 보더니 “애가 많이 배고팠나 보네요. 한 개에 1,500원 두 개는 2,500원에 500원 깎아 드릴게요” 어머니는 돈을 다시 세어 보시더니 “한 개만 부탁드릴게요.”라고 말씀하셨다. “네” 장사 아저씨는 짧게 말하고, 언짢은 표정으로 빠르게 고구마를 종이에 싸서 어머니에게 쥐여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고구마를 먹기 좋게 위에서부터 껍질을 벗기고, 후후 불어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뜨거우니 식혀가며 천천히 먹어야 한다.” 난 재빨리 고구마를 집어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입안에 달콤한 고구마즙이 온몸을 맴돌았고, 차가웠던 몸이 샤프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철

없는 아들은 고구마를 다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머니는 흐뭇하게 바라보실 뿐 집으로 갈 길을 재촉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난 밤늦게 집에 도착하였고,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벌컥 벌컥 마시고, 얼어붙은 손과 발을 녹일새 없이 저녁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행복하게 밥을 먹고 난 잠이 들었습니다.

3년 후 아버지는 사업을 재건하셨고, 우리 가족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0년 후 나는 성인이 되어 군대를 가기 전에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오다가 옛날 생각나서 군고구마 줘 사 왔습니다. 전 오다가 하나 먹었는데 예전처럼 맛있지 않네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그때 그 군고구마는 배고픔을 참고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고구마란다.” 내 눈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혼자 다 먹고 나눠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군대 가기 전 어머니와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의정부 306 보충대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때 그 시절을 다시 회상하였습니다.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겨울 나를 위해 배고픔을 참고, 내 행복에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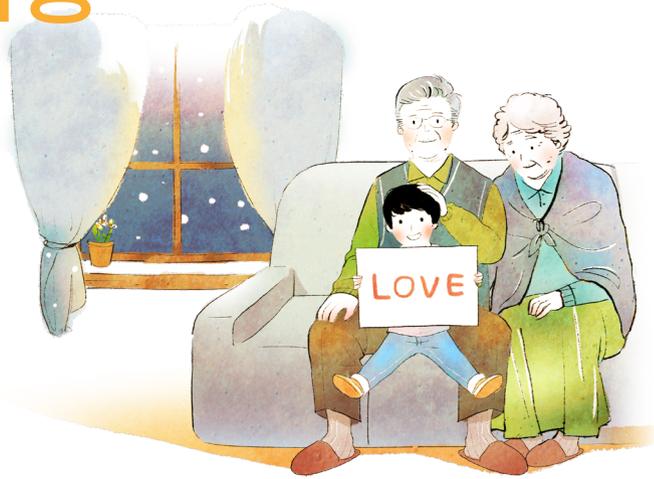
군고구마의 달콤함은 나의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작품평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하여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는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고구마 한 개를 동전 몇 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가난, 아들에게 다 먹게 하면서 당신은 집에 가서 맹물로 허기를 달랬군요. 신발을 잃어버린 아들에게 신발 사줄 돈이 없어 부동커안고 올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오래 기억하시길. 형기를 마치고 나가서 그 어머니를 위해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기 바랍니다.

노란 사랑



한에녹

“뜨거운게, 호호 불어 묵어라. 자, 았다.”

삶의 기억 중 첫 자락쯤 서리가 잔뜩 내린 어느 겨울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커먼 군고구마를 소쿠리에 한가득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저의 하나뿐인 할머니입니다. 뜨거워 보이는 군고구마 중 가장 예쁜 것을 하나 골라 집어 껍질을 깍니다. 하얀 비단머리를 하신 할머니께서 반쯤까진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조심스레 건네주십니다. 나의 두 손보다 큰 노란 속살 보인 고구마, 떨어트릴까 입이 땀까 걱정하셨는지 제 손에 쥐여주고도 놓지 않으시고는 입으로 소리를 내 불어주며 식혀 주셨죠. 군침을 삼키며 크게 한입 베어 물고 입속 가득하게 신나게 오물 거리다 보면, 군고구마는 어느새 꿀로 변합니다. 그때는 벌들이 고구마를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가을이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 벌들이 낙엽 아래로 숨는다며 그들 모르게 훔쳐 온 고구마를 맛있게 먹어서 없애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야 추운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오면 고구마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부지런한 벌들이 다시 고구마를 만들 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겨울에도 맛있는 꿀 군고구마를 또 먹기 위해 남김없이 먹었지요. 목멜까 물 한 모금씩 챙겨 마시면서도 손에 쥔 군고구마를 계속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제 인생의 최대목표는 이 군고구마를 다 먹는 것이었으니까요. 더 먹어야 할 군고구마가 소쿠리 안에 제 손가락의 수보다 많다는 것을 보았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것도 함께 알았습니다. 겨우 한 개를 먹고 볼록해진

배를 만지며, 그 자리에 드러누우면 할머니 빠른 순발력으로 머릿밑에 베개를 찢어주시고, 나비처럼 살포시 이불을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할머니의 약손이 제 배 위에서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눈이 감깁니다. 근심이나 걱정, 불안함이나 부족함도 없는 순간이지요. 단 하나의 모자람 없이 몸도 마음도 완벽하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추운 겨울임을 잊게 해 주시고, 언제나 따뜻한 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꿀보다 달았던 속살 노란 군고구마는 할머니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날 때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고, 별들이 고구마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큰손이 제 손보다 작아졌고 할머니 주름살의 갯수가 더 이상 늘지 않을 때, 할머니께서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전쟁 준비하듯 살았고, 치열함과 고독함이 굳은살 배기듯 익숙해져 갔습니다. 경쟁의 속도와 책임의 무게가 나이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이불 속 봄이 아니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겨울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어른이 될수록 행복이 늘어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욕심만 늘어간 거죠. 생존하기 위한 치열했던 노력이 저 자신도 모르게 욕심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은 뾰족한 갈이 되어 저를 찌르기 시작하더니 가족까지 찢렸고, 책임과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결국 이곳까지 떠나려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신뢰와 신용을 빼앗고, 실망과 아픔을 안겨준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립니다. 그렇게 얻어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할머니께선 부족함 없는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말이죠. 돌이켜보면 세상의 희망을 가장한 욕심들이 기억과 추억의 시력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린 듯합니다. 모든 답과 해결책이 매우 단순하고 제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못 본 체하였고, 무시하였습니다.

이곳에 오니 비로소 알게 되고 느끼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잊고 살았던 나의 멘토이자,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할머니가 자주 떠오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군고구마를 까주시는 나의 할머니, 끊임없이 느끼건대 할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신 게 아니라, 제가 할머니 곁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요즘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제 사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하였지만,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신 할머니를 생각하니 못난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군고구마 중에서도 제일 예쁜 군고구마를 먼저 골라주셨고, 뜨거운 군고구마를 잡으시고는 흑시라도 손이나 입이라도 데일까 봐 호호 불러주시는 할머니.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셨던 저를 저 스스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건 그분의 오랜 수고와 사랑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

겠지요. 제가 높고 낮음과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시간이 갈수록 확고해집니다.

군고구마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고 건네주시지만, 뜨거우니 식혀 먹으라는 말을 함께하는 당신, 어렸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온전히 신뢰하는 나의 할머니이기에 이야기에 오류가 있든 없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군고구마를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혹시 독이 들어 있을까.' '혹시 고구마가 아닌 건 아닐까.'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절대적 신뢰 대상'이니까요. 반대로 '나를 절대적 신뢰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자문해 보니 어렵지 않게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꿀맛 나는 고구마를 할머니처럼 선물한 적이 있는가.' '꼭 군고구마가 아니더라도 사랑을 선물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라고 스스로 묻자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여전히 받는 것에만 익숙했고,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지만, 저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절망보다 기쁨이 더 큼니다.

시커머진 군고구마의 껍질을 벗기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제 곁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저를 기다려준 '가족'에게 사랑의 선물로 군고구마를 손에 쥐여줄 날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조금쯤 마저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시간도 기회도 많았는데 왜 진작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할머니께서 제게 베풀었던 사랑을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게 돌려드려야겠다. '다짐'합니다. 이제 저의 차례가 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지난 시간이 '후회'로 가득합니다. '후회'는 '다짐'의 좋은 밑거름입니다. 잘못된 욕심은 후회를 남겼지만, 욕심의 목적이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라도 눈치챘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여깁니다. 가슴속 한편에 피어난 이 '다짐'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뜨거워지는 이 '다짐'을 앞으로의 삶에선 잊지 않으리라 또 다짐합니다.

그 시절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했던 뜨거운 군고구마처럼.

작품평

할머니는 어린 예복에게 군고구마를 까서 호호 소리 내어 불어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식혀 건네준 노란 고구마에 담겨 있던 손자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나 봅니다. 할머니는 고구마의 노란 속살을 주었던 것인데, 그것은 정이고 가족애였고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문장력이 있으므로 앞으로 수필을 많이 써볼 것을 권유합니다. 수필 잡지에 투고도 해보세요.

군고구마 리어카



최해성

2020년 갑작스레 쌀쌀해진 겨울의 문턱에서 반성과 속죄로 저물어가는 시월의 마지막 주, 한해를 되돌아보며 몇 해 전 추웠던 겨울 어느날로 시간을 옮겨봅니다.

작년에 제가 이미 구속이 되기전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서 1996년 돌아가신 이후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우울증을 극복하시고 홀로서기를 이겨내시며 완전치는 않으셨지만 2006년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들된 입장에서 연세드신 아버님의 정신적 고통이 젊은 사람들보다 아주 많이 힘이드셨을꺼라 생각했고 옆에서 지켜볼 때 안타까웠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2006년 그해 겨울 한파가 크게 불어왔던 어느날 야간 당직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단잠을 청하고 있던 저에게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집앞으로 서둘러서 나와보라는 말씀에 저는 흑여 어디 다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급하게 달려나갔습니다.

집앞에 인천 ○○여고 정문앞에 아버님께서 서계신 곳으로 가서 보니 학교앞 문구점 한쪽에 오래되 보이는 군고구마 리어카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성격을 잘 아는 저였기에 저만의 느낌은 왠지... 아버님께서는 당장 내일부터 장사를 시작해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나 어찌된 상황인지 자초지종을 듣기위해 그 자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모시고 돌아와 여쭙보니 동네에 아버님의 친구분께서 군고구마 장사를 용돈벌이 삼아 운영을 하시다가 건강이 갑작스레 안좋아 지셔서 입원을 하셨다고 하시며, 아버님께서 면회를 가셨다가 친구분에게 대신 말아서 해보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추워진 날씨가 걱정이 되어 날씨가 조금더 풀린 이후에 소일꺼리로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여쭙봤더니! 군고구마는 !! 추운겨울에

떡어야 제맛이라 하시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며 아내와 저를 데리고 다시 군고구마 리어가 있는 곳으로 빗자루와 청소도구를 들고 가서 말끔히 한참동안이나 청소를 하고 집으로 돌아 오시는 발걸음에 이미 마음은 꿈에 한껏 부풀어 있는 해맑은 어린아이 같으신 모습이셨습니다.

이튿날 월요일 저와 아내는 출근 준비를 하고 아버님께서도 소망이(우리집 누렁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신다하며 집앞에서 인사를 드리며 헤어졌는데 점심시간이 거의 다돼서즈음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었는데 준비도 덜 되어 있는데 여고생들과 동네 주민분들께서 줄지어 기다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는 음성이셨습니다. 마음은 아버님께 가서 도와 드리고 싶었지만 업무 시간이라 걱정스런 마음에 전화문자만 “아버지 파이팅!”이라고 남겨놓고 6시 퇴근 후 집에가기전 먼저 아버님께 가보니 아내가 먼저 도착해 도와드리고 있어서 준비해 가셨던 양은 전부다 완판 하셨으며 뒷 정리중이셨는데 얼굴을 보니 정신없으시고 힘은 드셔도 얼굴은 환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날 시작하신 군고구마 장사를 하시기 1년전 봉어빵 장사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나마 힘이 많이 들지는 않으셨다고 하셨고 또 옆에 소망이(우리집 누렁이)가 옆에 같이 있어줘서 힘이 돼드렸고 친구가 돼주었다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집 소망이는 아내와 저의 사이에 두 번의 아기유산으로 인하여 아기가 가져지지 않아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제가 경기도 이천시 고향인 후배에게 2001년 태어난지 2주지난 강아지를 분양 받아 데리고 와 아내에게는 선물이 되어주고 위안도 되주었던 아이였으며 평일 낮에는 아버님을 계속따라 다니며 호위무사를 해드리듯 듬직한 셰퍼드 종의 저희집 지킴이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봉어빵 장사를 하실때도 역시나 계속옆에 같이 있어드리던 경험이 있어 그 역할 충분히 잘해내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변에 인지도를 쌓아가시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 잠시 휴식기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동네에선 “군고구마 소망이 할아버지”로 통하며 학생들과 손님들에게 추운날 생각하며 언뜻 떠오르는 주제로 기억에 남으셨으나, 2010년 7월 아내가 폐암진단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며 종합병원 암센터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을때는 저대신 작은 며느리의 안타까운 투병생활에 군고구마 장사가 손에 잡히지 않으시다며 걱정이 되어 일주일에 두세번은 아내가 입원해있는 병원에 계시면서 딸같은 며느리 옆에서 간병도 해주시며 그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추운날 장사를 못 나가시는 날이면 학생들과 와주시는 손님들께 햇걸음 하시는 것이 죄송스러워 고구마 한 개씩을 더 드리며 우리 작은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병문안을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병원에서 회사를 출퇴근 하던 저에게 아내가 떠나기 일주일 전 많이 아프고 힘든 것을 아는지 소망이는 집에서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엎드려서 두손으로 턱만 고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듯 맛난 것을 주어도 먹지도 않는다며 지낸다는 소망이의 소식을 아버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은 지나고 저와 우리 가족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주며, 이세상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아내를 그리워하듯 소망이도 매일 밥을 챙겨주던 한사람이 빠진 빈 자리를 느끼며 집앞 골목 입구쪽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아버님께서는 소망이를 데리고 군고구마 장사를 다시 재계 하시러 학교 앞으로 가셨으며 저는 중증도 우울증을 진단받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친 제 자신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 했으며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내지 못해 그렇게 한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아버님 출퇴근을 도와드리며 새로운 직장을 모색하였는데 아버님은 막내며느리의 죽음앞에 아직은 혼란스럽고 슬픈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시지는 않으셨으나 조금씩 기력과 정신을 중심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2년이 끝나가기전 아내의 빈자리에 슬픔을 잊기 위해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죄스러움에 종합병원에 응급구조사로 취업하며 응급센터로 들어오시는 급박한 상황의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며 지난날의 슬픈 고통과 마음속의 치유를 위하여 열심히 달렸고 그렇게 시간이 또 1년이 흘러 늘 우리곁에 있어줄것만 같았던 소망이를 보내주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우리집의 가족으로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버님을 따라다니며 늘 소중하고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던 그리고 여고생들과 동네주민과 손님분들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살다가 떠난 그 아이를 위해 아버님께서는 뒷동산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살이 된 노령의 군고구마 리어카는 고물상에 맡겨지며 아버님의 지난날의 기억속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작년 제가 구속전 별세하신 아버님은 떠나시기 전까지 가끔씩 “군고구마 소망이” 말씀을 하시며 먼저 떠난 딸 같았던 제 아내의 평소 환하게 웃던 모습을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들의 손과 마음을 호호불며 따뜻하게 해주었던 군고구마 리어카가 추워진 겨울 턱밑에 가끔은 아련하게 생각이 납니다.

작품평

아버지가 군고구마 장사를 했던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쓴 아름다운 수필입니다. 그 시절을 함께했던 셰퍼드 소망이는 지금 저세상에 가고 없지만 그대의 기억 속에서 오롯이 살아 있습니다. 아내의 유산, 우울증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쓸쓸하겠지만 홀소 이후 강아지를 키우면서 다시 종합병원 응급구조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고구마 두 개 + 마음 한 개



홍승돈

내가 사는 곳 ○○씨티에서 길만 건너면 바로 ○○ 호수공원이다. 마치 정원이 호수공원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가까이 있다.

횡단보도 길을 건너 넓은 호수공원 산책로를 걷노라면 답답함은 저멀리 사라지고 탁트인 호수와 끝없이 펼쳐지는 창공의 하늘 전경이 이미 내 마음을 사로 잡는다. 산책뿐만 아니라 사색을 하기에 좋고 내 정서에는 호수공원의 정취가 말그대로 함께 호흡하는 생활공간 그 자체이다. 매년 봄이면 세계 꽃박람회 개최로 호수공원의 자태를 전국에 뽐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어지는 수많은 전시회와 공연으로 인해서 봄, 가을은 호수공원의 주차상태는 몸살을 앓기도 한다.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는 모든이에게 평화를 마음에 심어주고 쾌적한 공기와 맑은 하늘은 긍정의 이미지로 모든이에게 활력의 엔돌핀을 솟구치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수공원에 와서 산책, 운동 등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듯 나는 늘 호수공원에서 운동 겸 산책을 즐기는데 호수공원 가까이 편의점에서 가끔 커피 또는 간단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초 한결 부드러운 겨울의

정취를 느끼며 산책을 하며 지내는데 그 곳 편의점에서 군고구마를 온갖 저장함에 넣어놓고 판매하는 것을 보고 어릴적 군고구마의 정취와 추억이 아련히 떠올라 한 개 또는 두 개의 군고구마를 사가지고 퇴근 무렵 오후 5시쯤 호수공원의 벤치에서 붉게 물들어가는 장엄한 그러면서도 우아하면서도 아름답게 저물어 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가끔 군고구마를 먹는 정이 있었다. 그렇게 늘상 지내고 있을 즈음 그 편의점에 젊은여자 알바생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해맑은 웃음에 참 친절한 알바생이었다. 대략 인상이 좋은 건강미 넘치는 목소리도 좋은 상냥한 여성으로 표현하면 잘 어울릴 듯 하다.

내가 오십중반이니 내게는 딸뻘 아니면 조카뻘 쯤 정도 되는 연배인데 유독 나를 보면 살갑게 대하여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언뜻 군고구마가 생각이나서 그 편의점에 가서 군고구마 두 개를 시켜서 호수공원으로 가서 먹으려고 봉지에 있는 군고구마를 꺼내려하니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들어있었다. 순간 잘 못 주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일편 하나를 더 주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딱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저녁 노을을 보며 먹으면서 다음에 가면 물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 후에 대략 일주일쯤 지나서 그 곳 편의점으로가서 지난번 군고구마 두 개를 시켰는데 세 개가 들어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알바생 왈 “하나를 더 드리고 싶어서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알바를 하며 근무를 하는데 그리고 수량도 맞춰져 있어서 자신이 오히려 계산을 하여야 될 것 같은 생각에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 부담스러운 부분도 한구석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마도 나를 보면 아با 또는 삼촌이 연상이 되는 그 알바생의 생각 또는 그 많은 추억속에 연상의 한 작용으로 좋게 봐주어 배려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편의점에 군고구마를 사러 가면 꼭 하루도 까먹지 않고 한 개씩을 더 주는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그 답례로 편의점에 있는 아이스크림 또는 초콜릿을 답례로 건네주었다.



그렇게 눈인사 정도를 하며 지내는데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닌 진눈깨비가 내리는 어느날 그 편의점에서 평소와 같이 군고구마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우산을 안 가져온 것을 안 그 알바생이 자신이 가져온 우산이니 이 우산을 쓰고 가라고 하면서 우산을 건네는 것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집이 가까워도 너무 가까워서 그냥 가도 된다고 하였더니 그 알바생이 자신의 마음이고 드리고 싶으니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강권을 하기에 받아들이고 오는길에 그 마음 씩씩이에 감복한

적이 있다. 그 따뜻한 마음씨에 스신하고 힘들던 육신의 피로감이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린다. 인간은 그 감정을 먹고 사는 동물 아닌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를 받아든 나는 마치 큰 은혜를 받은 만큼 삶의 희망을 보았다. 그 누가, 그리고 그 누구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희망의 빛, 소리를 실감하였다. 정신적으로 혼자서 스스로 느끼는 삶의 그 희망을 느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잘 맞지 않아서 “지지직” 거리는 잡음소리에서 주파수가 잘 맞추어져서 청명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듯이 ‘삶의 희망’ 그 엔돌핀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호수공원에서 붉게 물든 석양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다가 저 동해에 떠오르는 찬란한 일조의 태양을 보듯이 ○○ 호수공원에서 저물어가는 석양의 노을이 아침의 솟아오르는 광명의 태양을 본 것이다. 원효대사가 설법하지 않았는가! ‘일체유심조’ 맞다. 그 이치에 정확히 어울리는 표현이다. 출발은 군고구마였는데 그 군고구마 두 개였는데 거기에 마음 하나가 더해져서 그 감흥이 지는 석양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으로, 밝게 빛나는 희망으로 바뀐 것이다. 생각의 전환이 생기게끔 해준 그 알바생에 대한 고마움이 지금도 내 마음, 가슴속엔 간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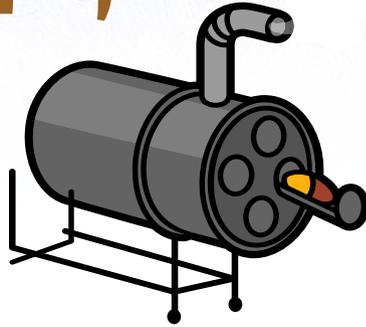
그렇게 지내고 있을 무렵 2월 중순 어느날 그 알바생이 아직 시키지도 않은 군고구마를, 나를 보자마자 던지시 건네며 오늘이 마지막 근무하는 날이고 다음달 3월 부터는 복학을 한다는 것이었다. 아쉽게 됐다고 하면서 인사를 건네는데 그 무엇인가 진한 석별의 “넵”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지금까지 눈여겨 봐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길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소망하며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네며 작별의 인사를 마무리 하였다. 지금도 군고구마를 생각하면 따뜻한 군고구마 만큼 그 알바생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동반하여 떠오른다.

그 알바생에게 길이 길이 축복이 함께하길~

작품평

편의점에서도 군고구마를 파는군요. ○○ 호수공원 근처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아가씨의 착한 마음을 왜 본받지 못하셨습니까! 고구마를 두 개 사면 꼭 세 개를 주는 아가씨는 아버를 대하는 심정이었을까요? 이웃 간의 정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앞으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베푸는 기쁨이 뜻밖에 참 큼니다. 그 알바생은 고구마를 꼭 하나씩 더 주면서 내심 기뻐을 겁니다.

달콤, 따뜻한 추억



최장섭

매년 겨울이 되면 쌀쌀한 날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호빵, 담백한 어묵국물, 달콤한 군고구마 같은 간식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회에서야 흔하디흔한 겨울 먹거리라 쉽게 구해 먹을 수 있지만, 자유가 제한된 생활을 하는 수용자들에게는 구해 먹기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더 생각이 나고 그리운 것이 아닐런지요.

군침이 절로 삼키어지는 따뜻한 겨울 간식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 간식처럼 따뜻했던 저의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날의 추억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니다. 20여년전 걸리면 답이 없다는 중2병에 예민한 사춘기까지 겪고 있었던 저는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귀찮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 또래 소년들이 라면 쌍수를 들고 신나해야 할 겨울 방학이 왔음에도 그저 심드렁했고 집안에 틀어박혀 밖에 나가 놀지도 그렇다고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빈둥빈둥 부모님께 속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어느 날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잠깐 밖으로 나와 보라는 성화에 투덜거리며 귀찮음에 찌든 몸을 이끌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보니 친구는 뜬금없이 군고구마를 굽는 수레를 애지중지 닦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황당한 상황에 이게 뭐냐고 물으니 자기 옆집에 군고구마 장사를 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올 겨울은 몸이 편찮으셔서 장사를 쉬게 되어 자기가 한번 군고구마 장사를 해보려고 할아버지께 수레를 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하긴 힘들 것 같고 창피하니까 고구마를 판 수입에 반을 줄 테니 같이 해보자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귀찮은 마음이 컸지만 웬지 호기심에다가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어 친구의 제안에 승낙을

했지요. 그 당시 아마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조차도 흥미가 떨어졌고 장사라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돌이 주머니를 털어 모은 만 오천 원으로 근처 시장에 가서 큼지막한 고구마 한 박스를 산 후 한 도로변에 수레를 끌고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그랗고 긴 서랍 같은 쇠 통에 가지런히 고구마를 담고 통 가운데 미리 구해 온 장작도 가지런히 쌓고 불을 피워 고구마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연통 밖으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고구마 익는 냄새가 길가에 그윽히 퍼져 갔습니다. 얼마나 구워야 고구마가 먹기 좋게 익는지 몰랐기에 무작정 긴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푹푹 찢어보는 단순한 방법으로 익었나 안 익었나를 구분해 익은 고구마는 재빠르게 불길에 제일 약한 맨 위쪽의 통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여 장작불이 꺼질까 부지런히 장작도 채워 넣었습니다. 영하에 아주 추웠던 날씨였지만 장사에 대한 열의로 추위도 잊은 채 열심히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그렇게 꼬맹이 돌이 고구마를 굽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손님이 많았고 젓가락 구멍이 승승 뚫린 볼품없는 군고구마를 기꺼이 구입해 맛있게 드셔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친구와 저는 더 신이나 더 열심히 큰소리로 인사도 하며 장사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 사온 고구마를 다 팔았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고 정산을 해보니 5만 6천원이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당시 제 일주일 용돈이 3만원이었으니 정말 큰돈이었고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장사의 맛을 알아버린 저와 친구는 겨울방학 내내 장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지배했던 귀찮음은 다 사라졌고 없어진 그 자리엔 활력이라는 건강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돈도 꽤 벌어서 그 당시 꽤 값이 나가는 자전거도 사서 온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엔 학생의 신분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라 부모의 만류로 더 이상 겨울방학에 장사를 아쉽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작고 사소한 것들에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여 나이가 한 살 두 살 늘어가며 그리 순수했던 열정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어느새 욕심이 한 가득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욕심이 넘쳐흘러 화가 되었고 그 죄로 이어져 징역이라는 형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를 비롯해 가족, 친구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저 추운 날에 따뜻하고 달콤한 군고구마를 호호불어 맛있게 먹는 것. 보람 있고 재미있게 벌었기에 작은 돈에도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것인데 말입니다.

추억을 되새겨 교훈을 얻었으니 다짐 한번 해 보렵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사회에 복귀하여 작은 일 하나에도 행복해하고 열정을 불태웠던 고구마 팔던 시절에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더 이상 나에게 과한 욕심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 아닐까요?



작품평 두 명 중학생이 군고구마 장사를 해 돈을 버는 장면이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전거를 사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고요. 노동의 결과로 번 돈은 우리를 것처럼 즐겁게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요. 이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이 넘쳐흘러 화가 되었고, 죄로 이어져 징역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군고구마를 팔면서 돈 버는 재미를 느꼈던 그 시절을 늘 상기하기 바랍니다.

그리움



어느새 계절이 이렇게 깊어졌을까? 알록달록 예쁘게 옷 갈아입은 단풍을 감사할 여유조차 주지 않고 가을은 참 빨리도 지나가 버렸다. 찬바람은 시나브로 옷깃을 여미게 하고 움츠려들면 안 되는데 툭툭거리며 주섬주섬 두꺼운 옷을 껴입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옛 기억을 떠올린다.

겨울이 오면, 그것도 눈이 낙화인양 안개꽃 피우듯 수놓은 밤이면, 골목길 어귀나 아파트 정문 옆 그리고 도로가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털모자 깊게 눌러쓴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와 드럼통이 실린 리어카다.

어떤 곳에서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답시고 기타까지 동원하여 노래를 부르고 애교까지 부려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곤 한다. 드럼통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군고구마 굽는 냄새는 퐁퐁 얼어붙은 겨울 밤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곤 한다.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계절의 낭만거리가 아닐까, 사람들의 입맛이 각기 다르다지만 여지껏 군고구마를 싫어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다. 하여 겨울이면 누구나 찾는 군것질거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고구마는 날로도 먹고 삶아서도 먹는데 유독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맛있게 느껴진다. 새카맣게 구워진 고구마 껍질을 호호 불어가며 벗겨 내다보면 검정이 손과 입 주위에 묻어 지켜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아울러 옛날을 그리워하게 하는 매력도 담겨있는 것 같다. 최근엔 암과 만성질환에 고구마 식이요법이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 하여 유행이다. 유명서점에서 고구마에 관련한 서적이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다고도 한다.

고구마는 전분을 비롯해 모든 양분을 함유하고 있고 동시에 배변과 대사를 원활히 하고, 미세 혈관의 모든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도 풍부하다고 한다. 그뿐인가? 인체에 해로운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옛날엔 구황작물로 분류되어 행세까나 하는 집에서는 별로 먹지도 않았지만, 세월이 흘러 백세시대를 달리는 요즘은 몸에 좋다는 정보에 지위계층을 떠나 각광을 받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가며 일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애환이 담긴 음식이라 찾고 있는 추세다. 또한 한때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조차 영양식이라 하여 찾아다니며 먹는 진풍경도 볼 수 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음식문화 패턴도 그만큼 다양화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간식거리 정도로 평가 절하되어 있던 것들이 영양식으로 신세대 식생활 대상에 올라 인기를 얻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영양소가 많고 어찌고 하는 것보다 군고구마를 몇 개를 놓고 식구들끼리 둘러 앉아 하나라도 더 먹으려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하면 흐뭇해 지기도 한다. 행복이란 열기고 구워진 특별만찬을 즐기는 것 같아서이다.

내게도 군고구마와 관련된 기억이 많다. 직장생활 초기에 명동에 유동인구 조사차 나갔다가 바빠서 식사를 걸렀던 적이 많았는데, 그때 가끔 차 속에서 입술까지 데어가며 허겁지겁 군고구마를 먹곤 했다. 또 술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속상해 하던 아내를 군고구마 두 개로 달래던 기억도 떠오른다.

신혼 초에 일찍 퇴근하며 우리 부부는 저녁을 먹은 후 운동 삼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곤 했는데, 멀리 군고구마 리어카가 보일라치면 어린애마냥 달려가 사달라고 보채던 아내의 모습이 선하다. 첫 임신이 자궁외임신이 되어 수술을 받은 후 계속되는 유산으로 병원신세를 많이 졌던 아내였기에 늘 지쳐있기 일쑤였다. 주사바늘 꽂은 자리조차 찾지 못할 만큼 널브러져 있을 때, 여리디 여린 존재가 고통을 참으려 몸부림치는 모습이 처절하기 까지 했다. 대신 아파줄 수 없어 가슴 아파했던 기억도 떠오른다.

그럴 때, 군고구마는 아내에게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어쩌다 먹는 군고구마 한두 개였지만 아내의 아픈 얼굴이 금세 환해지곤 했다. 정녕 군고구마는 아내에게 있어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나 맛보는 행복표 간식으로 여겨졌던 것일까? 무엇이 그리도 좋은 지 군고구마 한 개를 손에 쥐고 세상 다 얻은 양 천진난만하게 아양 떨던 아내가 그리워진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 밖으로 쫓겨나 영어의 몸이 되면서 군고구마가 주는 낭만을 잃어 버렸다. 어이 잃은 것이 그뿐 이라만……. 이젠 군고구마를 사줄 수조차 없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말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군고구마에 대한 추억과 애환은 자꾸 쌓여만 간다. 어쩌다 TV드라마 속에서 군고구마 리어카를 볼라치면 가슴이 저려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군고구마 한 봉지가 만들어내던 행복을 느낄 수 없기에 그 아쉬움으로 가슴이 답답해서이다. 추운겨울 뽕뽕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주던 군고구마의 별미를 언제 다시 맛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흰 눈 내리는 날, 군고구마 한 봉지를 손에 들고 호호 불어가며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사랑을 만끽하는 장면을 그려본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토끼 같은 아이들을 위해 퇴근할 때 군고구마 한 봉지 사들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장의 모습도 그려본다. 경쟁 일변도의 정이 메말라 가는 사회에서 군고구마는 작게나마 낭만과 행복을 전달해주는 전령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달과 별마저 뽕뽕 얼어붙은 겨울밤, 손 시리고 발 시린 것보다 마음이 더 시린 이 겨울밤에 새카만 껍질을 벗고 노오란 속살을 드러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군고구마 한 개가 그리움으로 다가선다.



작품평

군고구마 하나에도 '행복표 간식'으로 여겨 그렇게 솔직하게 기쁨을 표현하던 아내가 거둬낸 유산으로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그대의 슬픔이 어땠을까요. 가장 행복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내는 하늘나라에 가고 없고 그대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추억의 힘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기 바랍니다.

아빠의 작품 군고구마



김현희

껍질이 약간 들뜨고 살짝 탄 듯 해보여도 호호 불어 껍질을 벗기면 드러나는 노란 속살! 한 입 조심히 베어 물면 입 안 가득 촉촉한 달콤함을 주는 군고구마! 요즘은 쉽게 집에서 금세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도구가 많아졌지만 어릴 땐 겨울만 되면 군고구마장수 아저씨의 자리를 찾아놓곤 했었다. 워낙 좋아해서 봉투 가득 군고구마가 담기고 아저씨가 서비스로 1~2개 더 주면 얼마나 신나했는지 모른다. 그동안 살면서 해마다 정말 많은 군고구마를 먹었지만 중학교 1학년 겨울 끝 무렵 먹었던 군고구마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서 새길 공모전의 주제를 듣자마자 부족한 글 솜씨에도 이렇게 펜을 들었다.

어린 시절 우리 아빠는 해외근무를 10년 이상 하신 덕에 1~2년에 고작 한 두 번 밖에 볼 수가 없었다. 가끔 보다보니 그 시간이 소중했고 그 날이 우리의 가족여행 날이자 외식 날이었으며 아빠가 되돌아 갈 때면 가지 말라고 떼쓰고 늘 울곤 했었다. 그렇게 10여년 가량을 보내고 아빠는 드디어 국내근무를 맡아 온전히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10여년을 떨어져 살다보니 우리의 생활방식과 아빠의 생활방식이 달라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난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를 겪고 있었고 엄마 아빠 동생들과 노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욱 좋았던 나와 아빠의 부딪힘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교복 하나부터 신발에 머리 염색에 귀걸이 등등 이 모든 것이 아빠와의 전쟁이유가 되었는데 가장 큰 것은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 하는 나와 주말엔 가족여행 가족등산 가족외식 등등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아빠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매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아빠와 나는 소리 높여 싸웠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화가 난 나는 아빠를 향해 “내가 필요할 땐 없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내 일에 사사건건 난리야! 아빠랑 떨어져 살았을 때가 더 좋았어!”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울다가 잠이 들었다. 내 그 소리를 칠 때 아빠표정이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내 침대 옆 탁자에 '아빠가 미안해'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있었다. 그 쪽지를 보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 사실 아빠는 딸하고 함께 하고 싶으셨을 뿐인데 ... 그거 하나 같이 해드리지 못하고 매번 친구들과하고 놀겠다고 난리 친 내가 문제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쪽지와 함께 놓인 군고구마를 먹었는데 이상했다. 그동안 내가 먹었던 촉촉한 노란 속살은 어디로 사라지고 달긴 하지만 어딘가 좀 딱딱한 이상한 군고구마였다. 나중에 엄마한테 듣고 보니 아빠가 나를 달래기 위해서 군고구마를 사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좀 와서인지 군고구마 장수를 찾지 못했고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군고구마로 나랑 화해하고 싶으셨던 아빠는 집에 있는 군고구마를 삶아서 집게로 하나씩 가스레인지 불에 구워서 짝퉁 군고구마를 만들어내신 거였다. 아빠는 아직 내가 그날의 군고구마가 아빠의 만들어내신 짝퉁 군고구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신다. 짝퉁 군고구마면 어떻게 조금 딱딱하면 어떠하랴? 그만큼 아빠가 날 사랑하심이 중요한 것을! 그래서 난 아직도 그 짝퉁 군고구마의 맛을 잊지 못 한다. 세상에서 내가 먹어본 군고구마 중에 최고의 군고구마이기도 하다.

하나, 둘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 성인이 되어 아빠를 이해하게 되면서 나는 종종 아빠의 짝퉁 군고구마를 떠올리곤 한다. 자신의 어린 시절 가난을 우리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와 떨어져 그 머나먼 낯선 땅까지 가서서 말도 통하지 않고 힘든 일들 임에도 마다하지 않고 하셨다는 것을 ... 그 덕에 우리는 다른 친구들보다 늘 먼저 최신형 오락기며, 최신형 컴퓨터며, 피아노 등을 맘껏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시절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시고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늦게라도 말하고 싶으셔서 주말만 되면 우리랑 무언가 함께할 공리를 하셨다는 사실을 ... 나는 이제 안다. 그리고 그 때마다 단 한번을 즐겁게 함께 해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고 후회로 남는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꼭 효도하는 딸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담장 안에 들어와 효도는커녕 환갑이 지난 아빠의 덕을 아직도 보고 있는 현실이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뿐이다.

이제 곧 군고구마 철이 다가오는데 그때쯤 사회로 돌아가면 아빠에게 맛있는 군고구마부터 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짝퉁 군고구마를 만들어 널만큼 딸을 사랑하시는 아빠를 생각 해서라도 앞으로는 아빠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잘 사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작품평

고구마를 삶아서 집게로 하나하나 가스레인지불에 구운 짝퉁 고구마에 담긴 아빠의 사랑을 뒤늦게 알게 되었군요. 그래요, 그 이상한(?) 고구마는 딸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의 실체, 사랑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있음으로써 큰 불효를 하게 되었지만 출소하면 군고구마를 사서 아빠와 호호 불며 나눠 먹길 바랍니다. 서로 입에 넣어주면서 말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동치미 군고구마

박상운



사람의 오감 중에서 기억력이 가장 좋은 기관은 후각 부분이다. 언제고 맛있게 먹었던 음식 얘기가 나오거나 티브이 속 매개체를 통해 시각적 자극을 받으면 조건 반사처럼 입 속에 군침이 고여 입맛을 다시게 되고 상상과 기억, 현실적 시각 반응이 시너지가 되어 무아지경에 빠지면 후각 기능이 반응하여 옛 추억을 되살려 냄새를 음미하게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도 만든다.

개인적으로 사계절 중 추위로 몸서리치게 만드는 시기는 대한(大寒)이 온 엄동설한 속이 아니라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을 지나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이 오기 전까지가 가장 매운 추위를 느끼게 하는 것 같다. 그건 아마 사람의 몸이 미처 추위에 적응되지 않은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맞아하여 깜짝 놀란 추위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으레 그런 것이 군고구마 장사치들이 눈에 띄던 시기가 딱 이맘때인 이유도 한 몫 반증을 하는 게 아닐까.

그맘때가 왔어도 지금 밖에서는 군고구마 장수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주치기 어렵지만 이천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맘때면 행인들이 오가는 목 좋은 자리에는 군고구마 장수뿐 아니라 겨울 주전부리에 대명사들인 군밤, 호떡, 봉어빵 장수들을 흔히 마주칠 수 있던 호황기 시절이었다.

당시 겨울 주전부리 중 가장 즐겨 먹던 군고구마와 관련된 추억을 회상할 때면 코 끝에 그 향기가 아스라이 번지는 듯하다.

가장 철없던 중학교 시절엔 전통처럼 학교 선배들이 후배들을 모아 강요하는 악습들이 성행했다. 여름방학이 끝난 철엔 선배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찻집 하나를 전세내고 일일찻집을 운영하며 만든 티켓을 후배들에게 강매하거나 티켓 판매를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나와 어울리던 학우들도 선배들에게 할당량을 받아 일일찻집 티켓을 팔기 위해 고군분투 하던 옛일을 떠올리면 픽픽 코웃음이 절로 난다. 또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이맘때 선배들 부름에 불려가 뜬금없이 군고구마 굽는 방법을 교육받고 장삿길에 나섰던 기억이 난다. 시내 한복판에 드럼통을 개조해 장작불에 고구마를 굽는 일명 마통을 가져다놓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즈음 인파들로 북적이는 만남의 광장 속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개시하였다.

부끄러움도 잠깐 놀이하는 것 마냥 순위 누나들을 타깃으로 삼아 갖은 아양을 떨며 거침없이 호객행위를 했고 처음 굽는 고구마들은 설익거나 너무 태우거나 하는 실패작들을 내놓기 일쑤였다. 처음 며칠은 상품으로 파는 군고구마보다 실패작으로 폐기처분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낭패를 보는 시행착오 날들을 보내야했다. 고구마를 담당해 굽던 학우 녀석의 손이 익어 갈 즈음 판매 부분도 여유가 생겨 우리 학우들은 그 당시 유행하던 댄스가수인 H.O.T, 잭스키스, 유승준 등 당대에 내로라 하는 히트송들을 크게 틀어 놓은 뒤 학창 내 점심시간에 모여 연습하던 춤들을 열맞춰 판박이 마냥 칼군무를 펼쳤고 화려한 쇼맨십 덕에 덩달아 구경꾼들이 몰려 말 그대로 군고구마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옆 학교 학우들까지 수소문하여 춤 좀 춘다는 무리까지 섭외하여 공연팀을 꾸리고 난리법석을 떨어대었다. 지금처럼 어느 누구와도 손쉽게 소통이 되는 온라인 네트워크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입소문이 퍼져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가 와서 티브이 출연까지 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이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뱃속 추억이 아닐 수 없다.

처음 방송 취재 시 관계자가 어떻게 군고구마 장사를 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순진무구하게도 있는 그대로 학교 선배들의 강요에 못 이겨 시작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놀이와 공연처럼 즐기며 군고구마를 팔고 있다고 하니 그 말을 들은 방송 담당자가 난감을 표하자 우리는 당시 작가 누나가 일러 준대로 조금 각색되어 우리는 춤이 좋아 모였고 군고구마 장사는 그 중 일부이며 추후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우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할 목적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되어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낮 뜨거운 기억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년시절을 시골에서 자란 경험도 있는데 오랜 전 이맘때 추수가 끝난 논밭 한 가운데에 동네 형, 누나들과 깡통 위로 피운 장작불 곁에 빙 둘러앉아 고구마와

감자를 생불에 구워 솟검정이 온 얼굴에 덕지덕지 묻는 줄도 모르고 동네 누나들이 어린 동생이 흑여 혀가 데이지 않을까 싶어 후후 입바람으로 식혀 건네주던 그맘때 검정 군고구마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도 어느 누구와 먹었던, 얼마나 맛있는 군고구마를 먹었어도 차가운 동치미를 곁들인 어머니의 군고구마 맛을 이길 순 없다.

이맘때 시골에 사셨던 할아버지 댁을 찾으면 어머니는 은박지 호일에 고구마와 감자를 찌서 아궁이 불 속에 구워 어린 우리 형제를 먹이곤 하셨다. “앗 뜨거!” 하면서도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다 불엔 텐 것 같은 뜨거움이 입속에 범람하면 어머니는 차갑고 새콤달콤한 동치미 국물로 어린 우리 형제 입속을 식혀주셨다. 동치미 군고구마는 맛있는 냄새도 가져다주지만 뜨거운 눈시울로 마음이 덮여 갑작스레 찾아든 이맘때 추위를 따스한 모정의 온기로 나를 감싸준다.

상강(霜降)이 온 지금 그맘때 군고구마 맛을 음미하며 웃고 울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본다.



작품평

악동 시절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촌으로 구경꾼들을 모아서 군고구마를 신나게 팔았군요. 더 어릴 때는 눈 한가운데서 동네 누나, 형들이 장작불에 구워주던 감자와 고구마 생각이 난다고요. 인간은 사실 아름다운 추억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괴롭거나 외로울 때 따뜻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 힘이 나곤 하지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이제는 직접 만들어,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테마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반추



1955년 2월 2일 ○○시 근화동에서 출생하였다. 새벽을 맞으면서 태어났다. 어머님께서 첫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셨을 것이다. 나는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것도 희귀성씨인 명씨의 종가집 장손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는 6.25 사변 이후에 전쟁의 상흔으로 의식주 문제가 심각하였고, 전쟁 고아들도 보육원에 넘쳐 났다. 하루에 삼시세끼 해결하기가 힘든 시절이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보다도 운동을 좋아하였고 공부는 등한시 하였던거 같다. 그래서 성적표는 저조하였다.

아버님은 미군부대 노무자로 일하셔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 속에서 조금씩은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경제적으로 무난했던거 같았다. 당시에 나는 도시락에 급식 죽을 타서 먹는 어려운 사람들과 도시락을 바꾸어 먹곤했다. 그리고 공부에 취미가 없고 오로지 아이들과 어울려서 딱지치기, 강가에서 수영놀이가 재미있었고, 여름이면 토마토, 오이, 참외 등을 서리하였고, 심하면 남의 집 닭장에 있는 닭도 서리해서 먹었다. 그 때는 그렇게 먹던 시절 이었다. 지금처럼 절도 개념이 없었고, 그 시절에는 인심이였는지도 모른다. 사실 그 당시만 하여도 거지가 떼지어서 다닐 때였고 배고픈 시절이었다.

그 시절은 나는 학업에 관심이 없어 성적이 하락하였고, 아버님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학업을 따라가기가 힘이 들었다. 나는 공부가 싫었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맞이했다. 당시에는 월남전에 한국군의 투입 되었고 ○○역에서 지원군을 환송하고 우리들은 태극기를 들고서 환송식에 참여해서 환송식을 하였다. 티비에서는 김일 선수의 프로레슬링을 보았고, 문화시설은 극장가에서 하춘하, 이주일, 전영록, 남진, 나훈아 등 많은 가수들의 경쟁으로 연예계의 신드롬이 있었다.



이즈음에서 나는 일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년수로 징역 단기 6월에 장기 8월을 선고받아서 ○○소년교도소에서 징역 8개월의 수형생활을 마치고서 출소하였다. 전과자로의 길에 들어 선 것이었다. 출소 후에는 봉제공장에서 한 여자와 사귀게 되었고 여자 측의 부모님의 반대로 임신 중인 딸을 데려다가 출산 후 그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시켰다. 그에 대한 반항으로 술에 빠졌고 또 구속되어 두 번째 수용생활을 하였다. 아이의 얼굴도 모르고 한 여인은 떠났고, 지금까지 43년 정도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1973년도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에 방지각 목사님의 일요 예배시간을 강당에서 맞이하면서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 한문과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수형자에게 한문 공부를 장려하였고, 지금처럼의 집필도구는 없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한문시험을 보아서 100점을 받으면 포상으로 일요일 날에 교회당에서 흑백 티비로 1시간정도 코미디 프로 등을 시청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도소내에서 가을 운동회를 개최하였고, 가을 운동회에서는 각 공장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씨름, 모래가마니들기, 육상 등 여러 가지 체육 등을 겨뤄 개인전, 단체전으로 시상식을 하였다.

예전이나 지금도 교도소는 포화 상태이고 사방이 비좁은 상태이며, 당시 수용자들은 식발을 해야 했고, 만기출소 2개월 전에는 머리를 기를 수 있는 삭발보류제도가 있었다. 식사 및 물품은 차등 해서 지급했고 열악하였다.

이제 내가 늙어서 고령의 나이가 되어보니 이제야 지난 일들에 대한 시간들이 명상을 통해서 반추가 된다. 양친 부모님의 임종조차도 수용생활 중으로 지켜보지 못했고, 지금 생각해 봐도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순간도 괴수 중에 괴수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어느 새 40회가 넘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나의 반평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간에 5번의 동거와 3번의 정식결혼을 하였고, 지금의 처는 공범으로 이제 명실상부 전과자 부부로 황혼의 결혼 생활을 지낼 것이다. 수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을 반추해보는 가운데 때 늦은 후회지만 내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상념에 잠기고 내일 내가 죽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여유도 생긴 것 같다. 사실 지나 온 이곳 수용생활도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그려야 해서 아침을 깨우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산다. 이 곳의 교정공무원도 인생의 절반은 징역살이와 같은 것이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우리들 인생의 한 페이지인 것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나와 수용자들 및 교정공무원들도 물의 오염을 막아야 지구의 몸살을 막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지구의 자정능력은 인간에게 위협되는 한편 수 많은 인명과 재산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제 자연을 사랑하고 공생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치산치수로 자연의 중요성을 알고 후손에게 물려 줄 땅을 건강하게 지키고, 건강한 삶 속에서 인생을 즐기다가 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19도 자연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300년 전의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침묵의 살인자로 하였고, 코로나19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건강은 국력이다. 우리는 건강을 필두로 자연과 운동을 사랑하고 서로가 희생적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에서 모아진 엑기스는 바로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아가페인 것이다. 신을 초월한 사랑이 진실이고 진실은 바로 하나님이다. 지나간 세월을 반추할 때에 오늘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어떻게 무엇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삶의 마지막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공수거 인생이다. 주옥 같은 선인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내 가슴 속에 요동치고 있고, 이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주신다는 진리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많지 않는 시간을 재조명하면서 후손에게 촛불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교도소와의 인연을 여기에서 안녕하고 싶다. 지나간 66년이며 안녕. 새아침으로 간다.



작품평

삶에 있어서 많은 선택을 한 것 들이 내 인생이 되어버린 지금 지나간 긴 세월을 반추하며 그 삶의 숙성과정을 거치고 이제 올바른 삶을 선택한 작자의 남은 인생이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기를 바라봅니다.



대입 검정고시합격 교정선교회 성경대학졸업



이호준

「2019년 9월 27일」 그날은 4년간의 오랜 형사재판에 대하여, 종지부를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2015년 9월 17일'에 저는 사기 등의 죄로 구속기소가 되어서, 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형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저 스스로가 많이 지쳐 있었으며, 그 당시 오랜 시간 저의 재판을 도와 주셨던 변호사님께서도, 다음 기일 이내에 결심을 이루지 못한다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저 역시 오랜 재판으로 마음고생을 겪고 있었기에, 그렇게 결심공판을 하게 되었으며 저는 2019년 9월 27일 선고기일로 지정받게 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을 고심하여서 수면을 원만히 이루지 못하여서, 두 눈 밑이 시커먼 상태로 저는 법정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판사님의 판결문 낭독을 들으면서, 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큰 충격과 실의에 빠져버린 저는 법정에서 구치소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긴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살던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선후배들도 모두 떠나가고, 결국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삶이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인가를... 며칠 동안 식음도 전폐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지난 삶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댁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저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오랜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가정 형편상, 중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불우했던 가정 현실을 원망하며, 그 탓을 세상으로 떠넘겨 가면서 무책임하고도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계획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 살아가는 대로 유리함과 순간적인 영리만을 따르며, 그렇게 삶을 닦치는 대로 살아온 저는 어느 순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 자신이, 저질렀던 무책임한 행동들은 그 모두가 부메랑이 되어서, 저에게 돌아와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의 선고로 다가왔고, 그에 따른 결과로써 지금에 이르렀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었던 지난 시간을 되뇌면서, 오랜 시간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아내도, 친구도, 지인들도 모두 다 떠나가 버리고, 저는 불혹의 나이에 영어의 몸이 되어, 죄인으로서 수형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처참하고 비통한 현실이었고, 내 안에 추악하고도 더러운 죄들로 얼룩진 과거의 시간을 성찰하면서 저는 모든 삶을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그 무엇도 의욕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잃어갔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더러운 죄들로 얼룩진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벌레만도 못한 저를 자녀로서 받아주셨습니다. 오랜 수형생활로 주위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홀로 이 남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정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템. 낫일세라 성경통신대학에 입학하여, 성경 공부도 하고, 검정고시 공부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직업훈련을 신청하여, 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배웠던 직업훈련과정은 CNS 컴퓨터 응용 선반이라는 기능사자격취득의 과정이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제작하여 공작기계를 통해, 금형 또는 플라스틱을 가공해서 각종 기계 부품 등의 제품들을 생산 가공하는 일입니다. 저는 금속 모형을 강철티크 막대로 다듬고 가공하면서, 저 자신의 산업일꾼으로 다시 태어나는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친 구조물을 맨손으로 단단히 고정해 가면서 강철티크로 마찰해 가노라면, 금세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저는 난생처음으로 그 일을 해 보면서 차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정직한 노동으로 생산해 낸 제품들과 저의 땀방울들을 보면서, 지나온 과거들을 반성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낮에는 생소한 노동과 밤이 되면 새벽이 오기까지 공부를 거듭하면서 육체적으로 고단함을 겪으며, 지속적인 힘겨움에, 순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느꼈지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가 허사가 되고, 다시금 쓰레기 같은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추가사건이 발생하여, 그동안 지내왔던 ○○시의 「○○직업훈련교도소」를 떠나서 「○○구치소」로 이감을 오게 되었고 저는 그러한 이유로 직업훈련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범죄가 발생된 추가사건’이 아니고, 2년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모두 받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그 당시에 이미 재판하고 있던 본 사건들과 병합하여 재판받기를 원하였었지만, 그 당시에 기소가 누락된 사건이 뒤늦게 기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로 이감을 오게 되었고, 그 결과 직업훈련이 취소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2년 전에 기소 절차가 누락되어서 뒤늦게 제기된 기소 때문에, 직업훈련이 취소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함이 느껴졌지만, 이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니, 저의 억울함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런 직업훈련의 취소로 인하여 맞닥뜨린 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다시 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 분류심사도 다시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처우상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에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노력을 하지만 마음의 안정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검정고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공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련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구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물교화프로그램」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난생처음, 화분에 담긴 식물을 키우고 가꾸면서, 차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동의 순시로 거실을 방문하신 ○○구치소 소장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저의 식물관리를 칭찬해 주시면서, 식물의 종류와 특성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이름을 지어서 기르면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소장님을 직접 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웠고, 약간의 권위 의식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소장님의 겸손하심과 친절하심, 그리고 따뜻하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식물(스킨답서스)을 의지해 나가면서, 저는 다시금 마음의 안정을 얻었고, 공부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시험일을 1개월을 앞두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으므로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꼬박 한 달 동안은 거의 밤새워 공부하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시험의 날이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저는 교정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템. 낫일세라 성경통신대학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대입 검정고시 시험에도 합격하게 된 저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 공부를 위해 독학사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저 자신과 같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 속에 계시는 수용자분이 계신다면, 저는 당신께,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그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등지에서라도, 예수님께서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로 변하게 됩니다. 우울하고 참담한 과거를 뒤로하고 희망과 설렘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사건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안을 주신 ○○구치소 소장님과 5중 담당관님, 그리고 사회복귀과 교육담당관님과 도서담당관님 이하 모든 교도관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께서 존재하시고 따뜻한 교화행정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뉘우치며, 갱생의 마음으로 새 출발을 꿈꿀 수 있음에 우리들의 사회는 보다 건전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들께서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행운이 깃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도관님들의 밝은 미소를 응원합니다. ^^

즐거운 성탄 보내십시오. (샬롬)

작품평 | 인생의 진정한 법칙이란 있는 것일까요?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작자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부르고 싶은 노래



류기호

요즘의 나는 내가 어떤 '한계'속에 있다고 느낀다. 어딘가에 12년째 갇혀 있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온 몸에 힘이 없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말이 뭔지 지금은 알 것 같다. 오래달리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세상이 너무 크고 막막한데 나는 너무나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빠질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만 줄여도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미 망한 것 같다.

나도 이런데 2020년 한 해를 통째 망하게 해 버린 '코로나19' 정말 온 세상을 활보하며 끔찍한 발자국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는 이 바이러스 괴물이 벌인 짓을 보고 있으면 나의 '망함'은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한숨 정도로 지나갈 일 인 것 같다.

역사에는 앞으로 분명히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 발자국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자국이 더 심각하게 찍힐텐데 괜히 거기에 우울한 하루살이 같은 나의 문제점을 점 찍으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아주 잠깐 미세먼지처럼 다른 사람들 눈살이나 찌푸리게 하고 그러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게 하겠지. 가득이나 질리는 마스크를 또 쓰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를 보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기분 좋게 어울릴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19'는 잘 알려졌다시피 전국의 교정시설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접견, 운동, 집회, 교육 등 중요한 일상이 수개월동안 거의 마비가 되어 버린 상태에서 직원, 수형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지속중이다.

게다가 내가 있는 ○○교도소는 발발 초기 전염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가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킨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곳, 뒤에 교도소를 지워도 앞에 ○○에 사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죄스러웠다. 나는 그때 세상 사람들이 확진자(양성) 아니면 비확진자(음성 또는 격리자)로 나뉘는 것을 보았고 쇠창살보다 마스크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 철벽 같다는 생각을 내내하게 되었다.

2018년에 이수한 문화예술교육 합창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이 새삼 소중한게 회상이 되어 「새길」 지면에 꺼내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해 그해 4월 ~ 10월 까지 ○○교도소에서 이뤄진 합창반 활동(프로그램 ; '하모니 해보니 좋으니')이 요즈음에선 지나고 보니 더욱 꿈만 같은 일이지 않는가. 매주 두어 시간씩 한자리에 모여서 여럿이 소리를 맞춰가며 노래를 부르던 활동이 2020년엔 세상 어디에서도 어렵어졌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따위가 우리 모두를 마스크 뒤로 내 몰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모니 해보니 좋으니' 합창부는 2018년 10월 가을날 ○○교도소 대강당에서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해체됐다. 수백명 청중 앞에서 여름내 땀 흘리며 같고 닳은 노래를 공연한 기억이 올해 유난히 새롭다. 소리를 마음껏 내는 일조차 소중한 수 있다는 걸 알게 해 준 코로나19 에게 딱 그것 한 가지만 고맙다. 마지막 공연에서 우리가 부른 다섯 곡 중에서 나는 '연어의 노래' 에 특히 애착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가사를 내가 썼기 때문이다. 지도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합창부가 흥얼흥얼 멜로디를 부르고 강사님이 거기에 반주, 화음을 넣어서 그럴싸하게 창작된 곡, 내가 쓴 가사가 더해졌고 연습을 거쳐 드디어 공연까지 됐을 때의 기분이란 임산부 만이 출산의 환희를 알 수 있듯 나만의 특별한 감격에 황홀해지는 사건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지구적인 우울증이 모두에게 닥친 이때 나는 비록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만 한 능력도 입장도 갖추지 못한 못난 사람이지만 담장 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정 식구들 에게 우리 '하모니 해보니 좋으니' 팀의 노래를 힘껏 불러주고 싶다. '연어의 노래'를 여기 「새길」 무대에서 불러본다.

작품평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 지금 다시 부르고 싶은 노래가 그리워지는 글속에 안타까운 현실이 절실히 와 닿는 글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은 또 다른 변수를 맞아 많이 달라질 것이기에 추억속의 합창이 더욱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To 부끄러운 고령자



이제 이곳에도 가을이 오나보다. 아침이면 자유스런 모습으로 날아와 건너 철조망에 앉아있던 많은 참새들이 지금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도 가을걷이를 하러갔는지, 이 늙고 부끄러운 내 모습이 보기 싫어 안 오는지...

창 밖 기운을 잃은 가냘픈 풀잎도 시든 모습으로 마지막 저녁 햇살을 머금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 하늘거리고 내년 봄 새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속삭인다. 내년 봄 새싹이 나올 무렵 나도 수용생활을 마치고 출소할 텐데...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인상 좋으신 우리 주임님 저녁 점호 하신다. 그리고 고마운 사소님들의 따뜻한 배식으로 맛있게 드시라는 주임님에 친절한 목소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잠시 TV를 보는 사이 시간은 흘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오늘도 애국가는 지각없이 천정에 매달린 스피커를 통해 귓전에 내려 앉는다. 이제 모두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슴에 묻고 가을 저녁 찬 바람에 무거운 몸을 기댄 채 잠을 청해야 하는 노인방 부끄러운 우리들 오늘 밤은 무슨 꿈을 꿀까. 그런데 잠은 오지 않고 작년 12월 9일 준엄한 판사님 목소리를 뒤로한 채 난생처음 겪어보는 ○○교도소 첫날밤이 생각난다.

어쩌다 칠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토록 한 순간의 잘못으로 주변 사람들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망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렇게 이 곳까지 왔을까. 쉽지 않았던 삶을 치열하게 살았는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지워진 것 같아서 어리석고 후회스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한숨으로 천년 같은 밤을 뜬눈으로 보냈었다.

이제 2020년 11월 벌써 일 년이란 세월이 무심히도 흐르며 지나가고 있다. 누가 그랬던가 하루는 길고 한 달은 짧다고, 세월을 빨리 보내고 싶은 심정으로 수용자들의 목마름에서 나온 간절한 이야기인 듯한데 어쩌면 진리 인가 싶다. 그동안 수용생활이 오로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다면 한편으론 칠십이 다되도록 미완성으로 살아온 내 삶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긍정의 시간이었으니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마저 든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고령자들이 평상시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행했던 일들로 사건이 되어 같은 수용생활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니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나이를 초월한 배움에 진리는 있는가보다...

어떤 성인의 말씀에 이 세상은 고해라고 한다. 거칠고 험한 고통에 바다와 같다고. 그렇지만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란다. 그래서인가 빛을 잃고 시들해진 가냘픈 풀잎도 그토록 흑한 겨울을 넘기고 봄이 오면 새싹으로 돌아나 모두에게 희망을 준다.

나또한 남은 형기를 무사히 마치고 내년 봄 출소하면 그다지 길지 않을 남은 삶일지라도 이곳 생활을 반면교사 삼아 정직하고 열심히 살면서 조금이나마 바닥에 떨어진 신뢰와 명예를 되찾고 그래서 후회 없이 남은 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작품평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들을 찾아 내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되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기”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수필가 원정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당신께

박종석

그 어느 해보다 단풍이 곱게 물들었던 만큼, 올해 겨울은 더 추울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쳃바퀴 돌리듯 늘 제자리에서 보내는 세월인데도 계절은 매번 어김없이 색다른 느낌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린 겨울날 추억 속에는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던 이야기가 오롯이 살아 숨 쉬고 있지 않던가요. 오늘은 왠지 그때의 그리움이 굴뚝의 연기처럼 폴폴 일어나 펜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지요. 어디 몸이라도 아픈곳은 없는가요. 나의 입이 열 개 백 개라도 말없이 살아야 하는 줄 알지만 염려하는 마음만큼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만 갑니다.

그리운 당신.

기억하고 있는가요. 당신의 나이 스물두 살 때였지요. 흰 눈이 펄펄 내리던 어느 겨울날 저수지에서 스케이트를 탈 때였죠. 얼음판 위로 넘어진 당신을 일으켜 세우려 내가 다가갔지요. 그런데 글썽 당신손 잡고 일으켜 세우려다 손에 낀 장갑만 벗겨지며 얼음판위로 나도 벌러덩 넘어졌던 일 말이에요. 그때 무엇이 우스워 서로 깔깔깔 거리며 웃었던가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었는데, 어느덧 30년도 넘는 세월이 흘러갔네요. 한숨 낫잠처럼 짧았던 세월인데 밤하늘의 무수한 별 만큼 희로애락의 사연들이 하나 둘 기억 속에서 깨어나 마음을 흔드네요. 이제는 내가 없는 제자리 바라보며 웃음 짓던 일들만 보듬어 안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삶이 고달파 울고만 있는지 않은가요.



따뜻한 당신.

결혼 후, 나는 참외농사를 지으며 당신은 분식집을 하며 두 아들과 한때는 단란했지요. 우리가 정성을 다했던 만큼 속한 번 썩히지도 않고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에도 잘 다녀오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이제는 제법 제자리까지 잘 찾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불행히도 오랫동안 당신 곁에 내가 없기에 생계를 꾸려가려 작은 식당 하나 차려놓고 작은 아들과 갓은 고생하고 있다면서요. 또 뜻하지 않던 코로나 전염병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 인건비 주라 관리비 내라 몹시 힘들텐데요. 아직까지 힘들다는 내색한번 안하고 잘 이겨내고 있다면서요.

더욱이 얼마 전 어머니께서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당신의 집에서 농사지은 쌀과 김장 김치를 담가 가져왔더라. 그 소식 전해 듣고 내 마음이 울컥했지요. 당신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생활력이 강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당신의 마음결이 밍크코트처럼 아름답게 따뜻한 줄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당신

뒤늦은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착하고 지혜로운 줄 모르고, 나는 물질 앞에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매번 당신의 뜻을 어겼습니다. 나는 결국 한순간의 헛된 욕망에 빠져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벗어나 있을 때에도 내 집착을 꺾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거듭된 나의 잘못으로 모두가 고통의 눈물속에 불행해 졌습니다. 나 또한 살아만 있을 뿐 몸도 마음도 묶여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담 안의 세월 어느덧 10년이 넘어 갑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들 모르게 세상에 있는 없는 속이란 속 다 썩여 당신마음이 숯덩이처럼 까맣게 타고도 남았을텐데 어머니께 이렇게도 물어 보았다면서요.

“○○아빠 집에 언제 온다고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토록 못나기 짝이 없는 나인데 당신께서는 아직까지도 연민의 정이라도 남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과 처음 만났던 저수지에서 함께 넘어져 웃던 그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어 그 작은 믿음이 남아있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 당신께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마운 당신.

늘 염려해 준 마음에 나도 이곳에서 생활을 잘해 얼마 전 모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작업을 하든, 거실에서의 생활, 운동을 하든 종교 생활을 하든 하루하루 주어지는 상황에 순응하며 열심히 생활한 결과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 선정된 가족만남행사에서는 어머니와 여동생하고만



있었지요. 그때마다 내가 좋아하던 음식들 장만해 어머니께 보내 준 마음 잊지 않고 삽니다. 당신께서 보내준 음식 먹을 때면 음식보다 눈 밖으로 흐르지 못한 눈물이 먼저 삼켜지곤 했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고 기회가 주어지는 데로 당신과 아들과도 가족만남을 갖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곳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갖고 살아가는 희망이 바늘 구멍보다 작더라도 당신께 드릴 내 마음속 선물은 말로 표현 못하리만큼 크고 소중합니다. 나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내 헛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며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니 만큼 기대해도 좋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바람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어 하루하루 힘든 시간 이겨나가고 있는 당신의 삶이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평온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내게 있는 사랑하는 모든 마음 담아 이 글을 드립니다.

작품평

얼음판 위에서 시작된 사랑이 영원히 얼음판과 함께 새겨져 30년이 넘도록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있네요. 그립고 따뜻하고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고마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가 참 고와요. 아내와 아들과의 가족만남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이라 자랑스럽습니다.



박중수

보고 싶은 어머니!

어머니와 작별한지 어느새 20년이 흘렀습니다. 펄펄한 일상이 비집고 들어와 어머니와 기억이 점점 무뎠어 가는 요즘, 속절없이 무심하게 떠밀려간 시간이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의 어머니, '안금주' 여사님!

누군들 생전 자신의 어머니 모습이 보고 싶고, 그림지 않겠습니까? 매년 빠지지 않고 추석 밑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 별초하고 맛있는 음식을 올려놓으면 매년 어머니는 환한 모습으로 저를 반겨 주었잖아요. 그러나 지난 5년은 어머니가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꿈이라도 찾아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한테도 무슨 일이 있는지 꿈에 찾아오지 않으니 제 마음이 왜 불안한지.

지금도 어머니 산소에 풀이 무성히 우거져 어머니는 하늘도, 햇빛도 못 보고 계절 거리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며 흘러내리는 비통한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올 추석에는 전처가 아이들 시켜 별초를 해주겠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사람이지요.

저도 평범한 인간인지라 당신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특히 이곳 수용 시설에서는 더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천상의 당신 모습을 그려 보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외쳐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없고, 지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입니다. 푸른 하늘이 열리고 맑은 물이 흐르며 향긋한 내음의 향기가 멀리까지 진동하는 곳에서 당신은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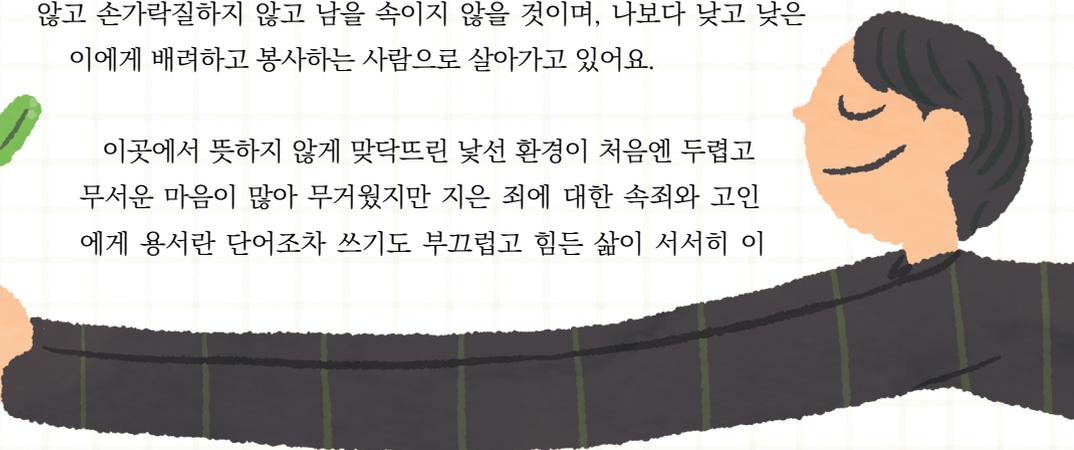
당신이 머무르는 하늘나라는 가 볼 수 없지만, 생전 당신의 모습 떠올려보면 그곳 생활이 저절로 그려집니다. 어머니가 계신 그곳은 들어가는 경쟁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당신은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출입구가 좁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활짝 열린 대문이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결정적인 것은 해맑은 어린아이의 눈망울 속에 담긴 증거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당신 삶 자체가 선한 자의 삶이어서 많은 이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뿌리신 그 공덕과 당신이 베푸신 훈훈한 정은 후손들에게 배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식을 거울처럼 생각하셨던 어머니! 자식을 둔 부모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면서 남에게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한다고 하시며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하셨고 “앞에 가는 친구는 속여도 뒤에 오는 운명은 피할 수 없으니 속이지 말라”며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을 강조하셨지요.

저 또한 이 수용시설에서도 어머니 하신 말씀 고이고이 간직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을 것이며, 나보다 낮고 낮은 이에게 배려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곳에서 뜻하지 않게 맞닥뜨린 낯선 환경이 처음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많아 무거웠지만 지은 죄에 대한 속죄와 고인에게 용서란 단어조차 쓰기도 부끄럽고 힘든 삶이 서서히 이



수용시설에 와서 많이 느끼고 조금씩 배워갑니다.

어머니에게도 사회에도 부끄러운 인간이지만 어머니의 가르침만큼은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갈피갈피 긴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희와 늘 함께하십니다. 생전 따뜻한 가르침을 통한 무한한 사랑에 의해서 당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감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해도 저 하늘 먼발치에서 빙그레 웃으며 넉지시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그 가르침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얽히면 풀어주고 막히면 뚫어주는 묘한神通력이 있는 어머니. 그래서 언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드리며 당신의 아들이라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시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혹여 이 서신을 보시면, 꿈에라도 한 번만 찾아와주세요.
어머니...

작품평 어린아이의 눈망울 속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언제까지나 그대로겠죠. 어머니의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실천한다니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안금주 여사님, 엄마” 하고 크게 불러보세요. 오늘밤 꿈에 오실 거예요.

“서간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이중섭(흰 소) | 일제강점기 박해받던 백의민족을 흰 소로 표현하였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하고 역센 민족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신축년(辛丑年)의 소 이야기

김상철 | 동덕여대 교수

올해가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였으니 다가오는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입니다. 소띠 해는 여유와 평화의 해라 하니 온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발 진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생활의 근간으로 하는 우리민족에게 소는 매우 친근하며 중요한 가축입니다. 쟁기를 끌어

논이나 밭을 갈아 농사를 돕고 무거운 물건을 날라 주기도 했지요. 그리고 먼 길을 갈 때는 탈 것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는 노동에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소는 부와 풍요, 강한 힘과 근면, 끈기를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때 정권을 잡았던 민주공화당은



오우도(五牛圖) | 중국 당나라때의 재상이었던 한황이 그린 <오우도(五牛圖)>의 부분. 베이징 고궁박물관원 소장품으로 세로 20.8cm, 가로 139.8cm이다.

자신들의 상징을 황소로 정하여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하기도 하였지요. 이는 우리 민족의 특성과는 매우 흡사하여 종종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동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유명한 화가였던 이중섭은 <흰 소>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민족의 상황과 불굴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는 일도 많고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가족과 같은 특별대우를 받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와 관련된 많은 속담과 설화, 그리고 전설 등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생구(生口)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서 식구는 가족을 뜻하고 생구는 한집에 사는 하인이나 종을 말하는데, 소를 생구라 함은 사람대접을 할 만큼 소를 존중하였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소를 소중히 여기는 까닭은 소가 힘든 일을 도와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며 소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소 값이 비싸서 재산으로서도 큰 구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월 들어 첫번째 맞은 축일(丑日)을 소날이라 하여, 이 날은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쇠죽에 콩을 많이 넣어 소를 잘 먹었다고 합니다. 이날에는 도마질을 하지 않고 쇠붙이 연장을 다루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도마질을 하지 않는 것은 쇠고기로 요리를 할 때에는 으레 도마에 놓고 썰어야 하는데 소의 명절날이므로 이와 같은 잔인한 짓을 삼간다는 뜻이지요. 방아는 연자방아를 의미하는데, 연자방아는 소가 멍에에 매고 돌리는 것이므로 자연히 소에 일을 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방아질을 하지 않는 것은 연자방아를 찧지 않던 풍속이 그 밖의 방아에까지 번진 것입니다. 쇠붙이 연장을 다루지 않는 것도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풍속입니다. 소띠 해에

민주공화당 당기 | 5공화국 시절의 민주공화당 당기. 황소를 대표 이미지로 채택하여 순박하고 우직하며 일을 열심히 하는 정당이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태어난 사람은 소의 성격과 닮은 특징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불만스러운 일들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간직하는 이른바 뒷 끝이 있으며,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을 잊기 위해 일에만 몰두하곤 한다 합니다. 생활이 담백하고 다른 이에게 신세 지는 것을 못 참으며, 만약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소를 닮아 참을성이 강하지만 한번 화를 내면 정말 못 말릴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낸다 하니 조심할 일입니다. 특히 낮에 태어난 소피는 조용한 밤에 태어난 소피에 비해 더욱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겨울에 태어난 소피는 여름에 태어난 소피보다 어려운 시기를 더 겪고 덜 풍족하다 합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소피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편하게 해 주는 성향으로 베푸는 일을 많이 하는 편이며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수행하는 믿음직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정이 많고 인간적이어서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잘 받으며, 덩치는 크지만 섬세하고 자상하며 나서는 것을 싫어하지만 황소고집이란 말이 있듯이 한번 고집 피우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한다 합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니 재미로 듣고 흘려버릴 일입니다.

소는 비록 느리지만 인내력과 성실성이 돋보이는 근면한 동물입니다. 또 순박하고 근면하고 우직하고 충직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소같이 일한다', '소같이 벌어서', '드문드문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이 말들은 소의 근면함을 칭찬하는 말들로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일깨워 주는 속담들입니다. '소에게 한 말은 안나도 아내에게 한 말은 난다'는 말은 소의 신중함을 들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고, '꿈에 황소가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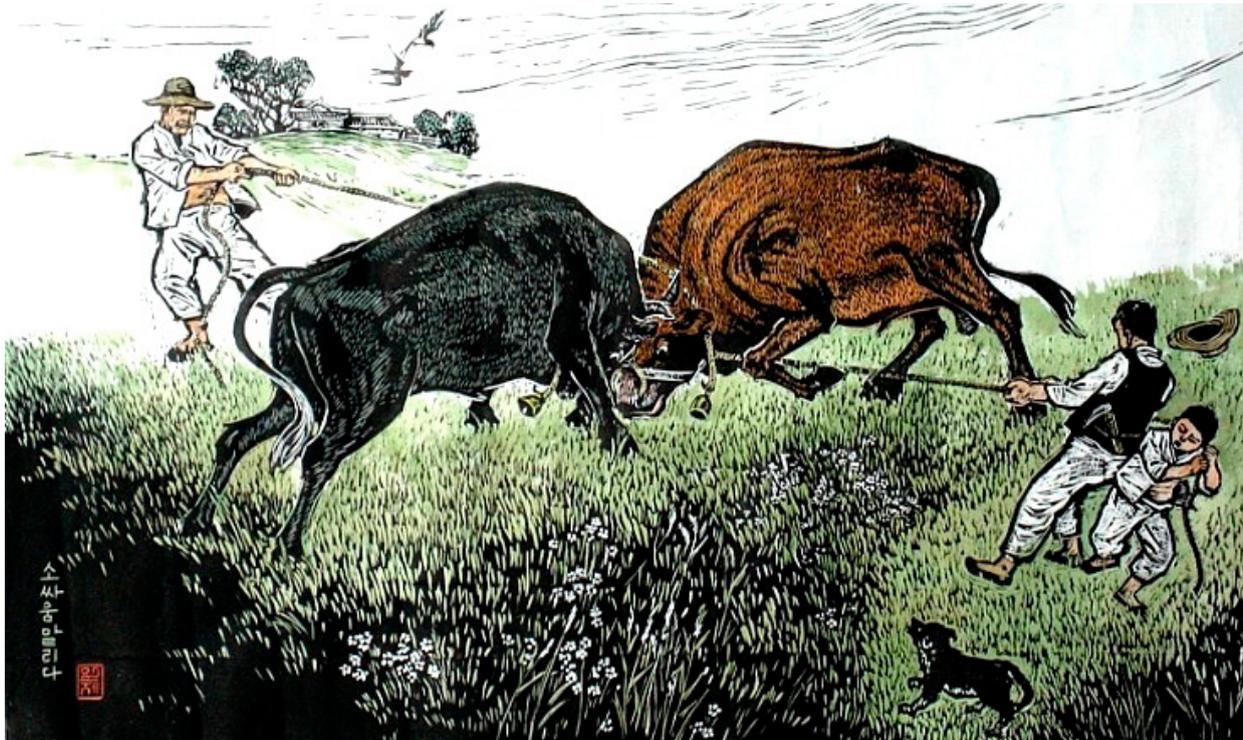
집으로 들어오면 부자가 된다'라거나 '소의 모양을 한 곳에 묘지를 쓰면 자손이 부자가 된다'라는 풍수 지리설의 이야기 등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부의 상징으로 소를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렇게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소이다 보니 소를 농사의 신으로 여기기도 했지요. 유명한 춘원 이광수 선생은 소를 위해 「우덕송(牛德頌)」이라는 글을 지어 소의 여러 가지 덕을 칭송했습니다.

“소! 소는 동물 중에 인도주의자다. 동물 중에 부처요, 성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마따나 만물이 점점 고등하게 진화되어 가다가 소가 된 것이니, 소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거니와, 아마 소는

사람이 동물성을 잃어버리고 신성에 달하기 위하여 가장 본받을 선생이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소를 사육하기 시작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서기전 2,200년, 인도에서는 서기전 2,500년,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서기전 4,000~3,500년, 이집트에서는 서기전 3,500년에 이미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쟁기를 끄는 데에 소를 이용한 덕택으로 높은 문명국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소가 문명 발전의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소 뼈의 연대를 보면 1,800~2,000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소를

소싸움 말리다 | 북한 작가 황인제의 작품으로 우직하고 힘센 우리 소의 기상을 목판화로 잘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북도 청도의 소싸움이 유명하다.



사육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원시 야생 소와 들소, 물소 등이 아직 가축화되기 전의 상태로 서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고조선의 유적지에서 다량의 소, 말, 돼지, 닭 등의 뼈가 출토되고 있으니, 소의 사육은 우리나라 민족사의 시작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소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문헌은 '후한서' 동이전으로 여기에서는 부여와 고구려, 예, 한 등에서 모두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헌상으로는 기원전 후한 시기에 한민족의 생활영역 전역에 걸쳐 소의 사육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소는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돕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한우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한우는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 고유의 종으로, 수천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독특한 품종입니다. 성질은 온순하고 인내심이 강하면서도 영리하며 대체로 적갈색의 털색을 지니고 있으며, 체격은 북부지방의 것은 크고 남부지방의 것은 작은 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착한 소는 의례에 제물로 사용됐거나 짐이나 사람을 싣는 수레 등에 이용됐다고 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부터 소는 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묻는 순장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풍습은 고려, 조선까지 이어져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에서 대개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비를 부르는 제물로 사용할 정도로 영험한 짐승이니 장사하는 집이나 일반 양반집에서도 소는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졌겠지요. 집앞 대문에 소고삐나



육회 | 지방기가 없는 우둔이나 흥두께살로 만들며, 날 것으로 먹는 몇 안되는 고기요리 중 하나이다.

소뼈를 걸어 두어 악귀의 침입을 막고자 했던 풍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귀한 소가 머무는 외양간에도 잡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소의 고삐나 뼈를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나라의 큰제사나 중요한 의례 때, 또 마을의 별신굿이나 장승제 등에서도 소가 희생의 제물로 쓰였지요. 즉 소는 부를 불러오고 화를 막아주는 존재로 인식된 것이지요.

소를 부르는 옛 말은 '쇼'라고 합니다. 『용비어천가』의 “싸호한쇼두 소자바시며(方鬪巨牛兩手執之)”에 나오는 '쇼'가 바로 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후 '쇼'가 단모음화되어 오늘날의 '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를 부르는 말에는 암소, 수소, 황소, 얼룩소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소와 수소는 당연히 소의 성에 따라 구분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황소'는 '큰 수소'를 이르는 말로, 본래 '한(大)-소(牛)'이던 말이 변한 것이라 합니다. 앞에 말한 『용비어천가』 가운데 '한쇼(巨牛)'가 그 예입니다. 즉 '황소'는 본래 암수와 관계없는 큰 소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훗날 '큰 수소'를 의미하게 되어

‘암소’의 대가 되는 말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요 중에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닭았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동요는 유명한 박목월 시인이 지은 시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얼룩소는 얼룩무늬 점이 박혀있는 젖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종 소 가운데 털빛이 얼룩얼룩한 소가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는 ‘참소’라고 부르는 순수한 우리나라 재래종 소입니다. 유명한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에 나오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얼룩배기 황소’도 호랑이도 물리친다는 “참소”를 말하는데 털 색깔이 갈색에 가깝고, 호랑이처럼 등줄기에서 배부위로 검은 띠의 털이 있는데 마치 칙냉쿨 같다고 하여 “참소”라고 이름 지어진 우리의 토종 소입니다. 참소는 한우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고기로 조선시대에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참소는 일제시대 일본이 자국의 소인 ‘화우’를 개량하기 위해 대량 반출한 데다 그 이후 농가에서 황갈색의 한우를 보편적으로 사육하면서 자연 도태되어 지금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소는 평생을 인간을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죽어서는 가죽과 고기를 내주는 고마운 동물입니다. 가족같은 친근함과 귀한 대접을 받는 소이기에 쇠고기를 자주 먹을 수는 없어 요리가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육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를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소고기만은 종종 육회로 즐겼습니다. 육회를 만드는 부위는 흥두께살과 우둔살이라는 것으로, 소 엉덩이



곰탕 | 살코기를 오랜 시간 끓여낸 탕. 맑은 국물이 특징이다.

부근의 지방이 거의 없는 살코기로 만듭니다. 살이 연하고 담백하여 참기름과 계란 노른자와 함께 먹으면 고소함이 배가되지요. 다음으로는 불에 구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고기, 불갈비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숯불에 구운 소고기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지요. 이밖에 소고기를 말려 포로 저장하여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기를 얇게 썰어서 가미하지 않은 것을 포라 하고, 생강·육계(肉桂) 등을 가미한 것을 수(脣)라 구분하는데, 안주, 혹은 먼 길을 여행할 때 식량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또 적은 고기의 양으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탕 요리가 있습니다. 꼬리와 엉덩이뼈 등은 곰탕, 갈비는 갈비탕, 다리는 족탕,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섞은 설렁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두 음식의 차이가 딱 부러지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곰탕은 고기와 깔끔한 내장 등 비교적 고급 부위에 무를 넣고 끓인 것이고, 뼈와 잡고기나 그 밖의 내장을 넣고 오래 고아낸 것이 설렁탕이라 구분합니다. 그래서 곰탕의 국물은 맑고 설렁탕은 부연 우유빛을 띠게 됩니다. 설렁탕이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한 음식이라면 곰탕은 지방색이

강한 음식이라는 지역적 차별성도 있습니다. 물론 곰탕 국물을 사골로 만드는 곳도 있고, 설렁탕에도 고기를 많이 넣고 끓여 내는 곳도 있어 두 음식의 차이가 점점 모호해져 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유명한 설렁탕 집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설렁탕집이라 알려진 종로의 '이문설렁탕'이 있고, 곰탕은 서울 명동에 있는 '하동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곰탕 중에는 '나주 곰탕'이 유명한데, 1910년 우시장이 있었던 나주시장동에서 개업한 하얀집 곰탕이 대표적입니다.

이밖에도 수육과 편육, 장조림은 물론 염통·콩팥 등은 불고기와 수육의 재료로, 피는 선짓국이나 순대의 원료로, 양·간은 회, 곱창은 국과 곱창구이·탕 등의 원료로, 골·고환 등은 삶아서 술안주 등으로 버리는 것 없이 이용되고 있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소고기입니다. 그중 우유를 마시는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보편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바로 '타락죽'이라는 음식입니다.

타락죽은 3, 4월에 우유를 짜서 불에 조려서 냉각한 뒤에 유틸을 건어내어 수를 만들고, 그 나머지에 체온 정도의 온도로 발효시켜 응고시키면 낙이 된다고 하였다. 즉, 수는 지금의 크림(cream)과 같은 것이고 낙은 지금의 치즈(cheese)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죽을 쑀 것이 타락죽인데, 물에 불린 쌀을 맷돌에 갈아서 체에 받쳐 앙금을 가라 앉힌 다음 그 앙금으로 잣죽 정도의 묽기로 죽을 쑀다가 반쯤 익었을 때 우유를 부어 익히는 것입니다. 타락죽은 임금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병을 앓거나 기력이 쇠했을 때 보양식으로 먹는 귀한 음식이었던 것이지요.

이밖에도 뿔은 활과 같은 무기, 우산·칼 등의 공산품이나 도장의 재료, 담배물부리 같은 세공품의 재료로 쓰이고, 발굽은 단추·제유(蹄油)·비료·사료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소의 가죽은 다른 동물의 가죽보다 질긴데, 특히 한우의 가죽은 질이 좋아서 그 용도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설렁탕 | 소의 뼈를 고와 끓여 우유빛깔을 띠는 대표적인 서민음식이다.



는 가죽다리가 일찍부터 발달하고, 삼국시대에는 기술자가 일본에 건너가서 기술을 전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용도는 다양하여 가죽신·가방·옷·벨트·지갑 등의 공산품 제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뼈와 힘줄 역시 아교 등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중 특기할 것은 바로 우황입니다. 우황은 소의 담석을 말하는 것으로 담석증에 걸린 소에게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황은 우리 나라 특산약품의 하나로서 오늘날까지 귀한 약으로 쓰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인삼과 함께 당나라에 공물로 바쳐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우황청심환'이 바로 그것이지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우황청심환은 “혼을 안정시키고 사기(邪氣)를 멀리한다. 또 간질·경계(驚悸)·중풍·소아백병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나 주식시장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에 황소가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월스트리트(Wall Street)에는 차징볼

(Charging Bull)이라고 하는 황소상이 있고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이라는 여의도에도 황소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곰의 동상이 함께 등장하곤 하는데, 이를 '불마켓(Bull Market)'과 '베어마켓(Bear Market)'의 상징으로 풀이합니다. 황소는 뿔을 위로 치받으며 싸우기 때문에 상승을 원하는 매수자, 곰은 앞발로 내리쳐서 싸우기 때문에 하락을 원하는 매도자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베어마켓은 행동이 느리고 발톱을 위에서 아래로 할퀴는 곰의 습성에 빗대어 주가를 비롯한 자산가격의 하락 또는 약세장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등락은 황소와 곰이 싸우는 결과로 볼 수 있겠지요.

비록 세상은 암울하고 불안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희망찬 새해의 해는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이 어려움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이겨낼 것입니다. 마침 소의 해를 맞아 다시 한번 소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 해를 다짐해 봅니다.



용서를 비는 참회의 글



박 광

며칠 전 제가 4, 5년 전부터 화단에 씨를 심어 가꾸던 감나무, 오렌지나무, 살구나무 등이 보안 장애물로 지정이 되어 잘려 나갔습니다. 아직 어린 묘목에 불과한 나무들이라서 사람이 올라 갈 수도 없는 나무였지만 애꿎은 나무들까지 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웠으나 맥없이 잘려 나감에도 막아서거나 화를 낼 수도 없으니 가슴이 아리며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저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의 심정과 고통이 얼마나 참담하고 아팠을까 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잘려 나가는 나무에게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며 피해자분들을 떠 올릴수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인성이 바로 잡혀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건이 있었던 그때의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었기에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싶고 망각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보니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잘못을 생각하는 순간 죄책감이 너무 크게 밀려와 맨 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무슨 염치로 용서를 구할 것이며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일이었다면 어떻게든 용서를 빌어 볼 마음을 가져 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피해 사실 때문에 용서를 바라고픈 마음조차 가지지 못할 정도로 용기도 없었습니다.

24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일주일에 한, 두번씩 악몽을 꾸고 있으며 악몽을 꾸 낳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젠 악몽도 너무 자주 꾸다 보니 만성이 되어서 인지 두려움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져 이제서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도 봉인된 기억속에서 조금씩 끄집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비는 참회의 글

이성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그 잘못의 크기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어 부끄럽게도 죄를 부정하고 망각하려 했습니다. 당장은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죄책감을 피하려다 보니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날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날이 기억나지 않으며 두려운 마음에 억지로 기억해 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짜만 잊어버렸지 그 순간의 현장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더욱 또렷해져 시도 때도 없이 악몽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제가 깨달은 것은 지우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그대로를 성찰하고 뉘우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참회하고 속죄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성행을 실천할 때 비로소 조금씩 안정되어 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흉악범이지만 앞으로는 선행으로써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진정한 참회와 뼈저린 후회 속에서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기를 매일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로 위로 될 수 없고 그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만큼 대단한 문구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용서를 구한다는 말조차 하기 힘듭니다. 다만,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싶어 이 지면을 통해 끝없이 사죄드리며 용서를 비는 참회의 글을 영구히 아로새겨 놓고자 합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정말로 송구합니다.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저로서는 참회하며 사죄드리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로 인해 저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만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저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응어리진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피해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 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늦었지만 삼가 애도를 표하며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의 죄에 대한 벌은 피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가슴에 응어리진 마음을 내려놓아 조금이라도 편안해 지시길 진심으로 빌며 기도드립니다.

작품평 : 스스로 '흉악범'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 24년 전 사건임에도 아직도 인터넷에 그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남아 있네요. 글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이 사과가 진심인지 가식인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대의 진심이 유족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수이니 만큼 하루하루를 덤으로 사는 거라 생각하고 규칙을 잘 지키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신현규

많은 피해자님들 중에서 유난히 지워지지 않는 두 분이 계신다. 한 분은 경북 고령에서 공장을 경영 하신 분이요 또 한 분은 서울에서 건설업을 경영 하신 분이다. 이 분들 외에도 노트에 적어 보니 오십 여명이나 된다. 피해 금액으로는 오억 정도 되고 내가 이분들께는 훗날에 꼭 갚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죽음에 임박해서 편안하게 저 세상에 갈 것 같다.

누구든지 인생길에서 처음부터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을 듯 싶다.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삼십 년 전으로 간다면 깨끗하게 정당하게 살고 싶다. 이제 공덕을 하늘에 쌓고 남은 생을 정화하는 것만이 최우선의 좌표이다.

첫 출발 인생길에서는 행운아로 주변에서도 칭찬받는 모범 청년으로 살았다. 월급쟁이로 꾸준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업한다고 까불거리다가 엮어진 인생이다. 욕심이 발동하여 모험도 하였고 이것이 누적되어 죄를 키워만 갔다. 안전 불감증처럼 죄의 대가를 모르고 간담이가 부은 것이다. 계속 죄의 단위만 커져갔다. 징역 3년과 벌금 칠억 오천 만의 처벌을 선고 받았다. 수형생활 합계가 4년 4개월 15일이다. 징역 3년은 지난 유월 팔일에 만료가 되고 이제는 벌금 노역을 나의 지원에 따라 징역방 작업거실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 주변에 동료 재소자들은 나보고 할배라고 부른다. 나이가 육십대 중반이니 이제 뭐 살대로 다 살았다는 이름이다. 밖에서는 많은 나이가 아닌데 이곳에서는 많다. 고령자들이 있는 방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밖이나 이곳에서나 할배라는 호칭을 제일 싫어한다. 작년에 자체 직업훈련소에서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땀다. 1년 동안 실습을 열심히 하여 좋은 결실을 맺었다.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다.

용서를 빕니다

현재 토목기사인데 용접기능을 첨가하여 관리자가 되어서 좀 더 시공 부분에 세밀하게 관찰하고 부실시공 배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고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도 계획했다.

이제 벌금형이 1년 남짓 남았다. 내년 10월 20일에 출소하면 긴 여정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설계했다. 그리고 '고령군 관내에 계신 최회장님과 서울에 이사장님의 돈은 꼭 갚아야한다.'라고 나 자신에게 맹세도 했다. 검찰조사에서는 비겁한 나의 합리화 서류와 세금계산서(매출) 작성으로 무혐의 처분 및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두 분께는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육천만원과 칠천육백만원을 꼭 변재 하겠사오니 부디 하늘나라에 가지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용서를 구한다.

지금부터 나는 똑바로 걷고, 보고, 생각하고자 한다. 현재 풍전등화에 전문건설업 면허 1개로 남은 인생길에서 사활을 걸고 혼자만의 외로운 길에서 오늘도 운동시간에 저 하늘의 푸른 기상을 보면서 수 많은 피해자님들께 용서를 빕니다.

작품평 : 그곳에서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땀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실습한 덕분입니다. 두 분에게 갚아야 할 돈을 꼭 갚겠노라고 자신과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중반의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의 모습에 하느님도 감복할 것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면 밝은 내일이 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송기성

안녕하세요. 글을 쓰는 재주가 없어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는 것이 많이 부끄럽지만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 봅니다.

때는 2018년 9월 어느 날 아버지께선 제가 선물 해드린 스쿠터를 몰고 장을 보러 나가신 그날 저희 집은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말 그대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달려오던 상대 차량의 속도는 99키로로 그대로 차와 부딪혀 아버지께선 뇌출혈과 경추 골절, 우측 어깨부터 다리까지 대부분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고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는 사지마비 그리고 장애 중증 판정을 받기까지...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슬픔으로 채워 나갔고 그야말로 TV에서 보던 일들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화목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의 잦은 음주와 가정 불화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이면 저희는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밤이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했어요. 그렇게 미움과 원망만 가득했던 그런 아버지셨는데 저희 곁을 떠나가실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병실 뒤편에서 아버지를 병상에 두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인데... 잘못되실까 너무 무서웠지만 점차 호전이 되어 제 얼굴을 알아보시고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기쁜 마음에 설 새 없이 울었습니다.

사고가 있는 후 어머니께선 저의 손을 잡고 "이제 우리 둘이 어떻게든 헤쳐 나가자."라며 굳게 다짐하며 흐느끼며 약속했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이 못난 아들이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여기 이곳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접견실에서 어머니는

어머니 죄송해요

제게 말씀 하셨죠. “아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맘 편히 두 발을 뺀고 자겠냐. 아들의 옥살이는 이 엄마도 같이 아들과 옥살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듣기도 겁이 나는 말을 하시며 문을 나가시던 어머니 뒤 모습에 걱정이 되어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마음 고생을 하셨을까요…. 어머니….

어릴 때부터 어려운 가정형편에 아들 기죽지 말고 맘껏 놀고 사 먹으라며 매일 아침 주머니 속에 용돈 3천원을 넣어 주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나네요. 어린 마음에 용돈이 많아 집이 어려운 것도 모르던 못난 아들이었죠. 어머니는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단 한번도 맘대로 해 보지 못 하시고 그저 아들 잘 되기만을 전부라 여기시던 분이셨는데…. 아버지께서는 큰 사고 당하시고 맘이 진정 되기 전에 아들이 너무 큰 사고를 쳤네요.

어머니의 말씀처럼 아들이 30년 인생 이제야 너무 비싼 인생 공부를 이곳에서 늦게나마 시작 하려나 봅니다. 여기서 좋고 바른 것들만 보고 배워 사회 복귀를 했을 때 구속이 되기 전 저의 미련한 모습들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난날 들을 반성하고 기억하며 잊지 않고 또 후회하며 각성하여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많이 지치고 힘드셨죠? 지난 날 우리가 손을 맞잡고 제가 지키지 못 했던 약속 지금 이곳에서 다시 약속해도 될까요? “어떻게든 헤쳐 나가기 보다 이제는 서로 많은 대화와 시간을 같이 보내자구요. 이제 더 이상 후회가 없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엄마.” 그러니 제가 늦었다고 생각되지 않게 그 자리에서 제가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기까지 꼭 건강히 기다려 주세요.

그 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아들을 용서해 줄 수 있으세요 어머니….

작품평 : 술고래에 폭력가장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면 미워서 안 찾아볼 수도 있는데 걱정스런 마음에 우셨다니 그것만 해도 효자입니다. “아들의 옥살이는 이 엄마도 같이 아들과 옥살이하고 있는 것이다”란 말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나가서는 엄마를 업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십시오. 그분의 주름살을 퍼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송기성님 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진정

2013년 죄를 짓고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떠났습니다. 죄를 짓고 떠난 태국에서의 생활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고 언제 잡혀 갈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쏟아질 피해자분의 비난과 구속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귀국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9년 10월 15일 제 평생 없을 거 같은 그저 남들에게나 있을 법한 아들이 태어났고 나이 40이 넘어 얻게 된 첫 아들이자 생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주변에서 듣던 이야기들 가운데 ‘아기가 생기면 철이 들고 생각이 바뀐다.’ 했던 것처럼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기쁘거나 좋다는 감정보다는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 주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 놓고자 아내와 갓 태어난 신생아를 뒤로 하고 7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항서 바로 체포가 되지 않았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합의금도 준비하지 못했고 재판 전까지 남은 시간동안이나마 합의금을 준비하기에는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나이 40이 넘어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일용직 공사장이나 택배 물류업이 전부였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나돌아도 태국에 남겨진 아내와 아기의 생활비라도 보내줘야 했기에 지역이 어디든 일자리가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가장으로써 최소한의 의무는 다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죄의 책임을 다 하고자 돌아오긴 했지만 피해자분에게는 그 어떠한 마음의

용서를 구합니다

위로나 보상을 해 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일면식도 없던 재판장님께 길고 긴 반성문을 제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분께 아무런 사과의 표현도 없이 1심 재판에서 1년 6월의 법정 구속을 선고 받게 되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니께서 항소심을 준비하는 동안 사시던 집을 정리해서 피해자분께 드릴 합의금을 준비하셨지만 피해자분과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몇 차례 피해자분께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하였지만 피해자분께서 끝내 합의를 거부 하셨다고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의 변호사님도 왜 피해자분이 합의를 거부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맞이한 항소심에서 기각을 당했고 모든 재판이 끝나고 본격적인 징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을 기각 당해서 돌아오던 날 합의금도 충분히 준비 되었는데 왜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 해주셨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제가 오히려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분을 원망하고 귀국해 들어온 걸 처음으로 후회를 하였습니다.

저를 아들로 둔 죄로 고통을 받는 어머니께 죄송하고 저를 남편으로 둔 죄로 홀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내에게 미안했고 저를 아버지로 둔 죄로 제대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징역 생활이 너무도 힘이 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동반하지 않은 교훈에는 의의가 없다.’라는 말처럼 한, 두 달 힘겨운 징역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떠난 7년 전부터 피해자분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 왔었고 제가 첫아이를 안고 몇몇한 아빠가 되고자 귀국했을때도 정작 피해자분께는 그 어떠한 보상도, 사과도 없이 그저 저의 죄를 조금이라도 판사님이 깎아 주기를 바란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정말 피해자분께 용서를 받아야만이 진정 몇몇한 아빠가 되어 돌아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작품명 : 죄를 짓고 태국으로 달아났더니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태국에 두고 정리를 하려고 귀국하였고, 합의가 안 이루어져 영어의 몸이 되었군요. 이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아빠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짓값을 치른 뒤에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용서를 청하십시오.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진심어린 사죄이며 출소 후의 올바른 생활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바깥세상에 가서도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면 피해자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서승오

저는 현재 ○○교도소에서 19년 12월부터 수감 생활 중에 있는 서승오입니다.

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치사)죄로 20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으로부터 적용하라는 운창호 법을 소급적용하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육군부사관에 지원하여 ○포병 여단 예하 미사일대대에서 복부하다 중사로 만기 전역해 고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기복무를 희망하였기에 전역 전 까지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도 스펙도 부족한 상태로 전역 하게 되었고 전역 후 서른이 다되어가는 나이에 3개월 가량의 무직생활은 제 자신에게나 부모 님께 눈치 보이는 생활의 연속이였고, 견디다 못한 저는 택배 상·하차, 일용직 노동을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금속가공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속가공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던 저는 최저임금 계산에 맞지 않는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이 악물고 버티다 친구의 소개로 대기업 물류회사의 지게차 기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여유를 가져가던 제 삶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여자 친구를 만나며 결혼준비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선물, 가족여행을 준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제게 사고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듯 찰나의 순간 발생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군 생활 당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부대 간부대상으로 교관이 되어 교육하기도 했고 회식자리, 개인적인 술자리에 참석할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를 가지고 간 날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꿈에서도 조차 생각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도 전력도 전무후무 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다음날 일정을 계획하고 움직일 생각으로 여자 친구의 집 앞에 주차를 한 후 근처 고기 집에서 저녁식사 겸 소주 3잔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횡감에 술을 마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잘못된 판단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운전을 해 본가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고가던 익숙한 3차선 도로에서 횡감에 1차선에서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차량은 대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1차선까지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중이었고 시속 158km로 주행 중이던 제 차량 앞으로 진입했을 땐 추돌까지 1.5초 남짓 찰나의 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그 짧은 순간 풀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려 보았지만 결코 추돌을 피할 수 없었고 사고 후에도 응급상황과 사고지점을 알리고 제게 온 구급대원을 피해차량의 구조가 우선이라며 피해차량으로 보내는 등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가족에게서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자 용기 내어 찾아가던 장례식장에서 유족 분들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사고 당시 운전을 했던 고인의 아내 분을 뵈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아 용서를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인의 아내분과는 알고 보니 초등학교 동창으로 주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로 들은 바 '아내의 운전, 미숙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남편 보험가입은 언제 했는지' 등의 상처받은 마음을 더욱 후벼 파는 소문과 따가운 눈초리로 인해 더 큰 상처와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고인의 아내 분을 생각하면 제 가슴도 찢어질 듯 고통스럽고 아버지를 다시 못 볼 고인의 딸아 이에게도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주었다는 미안함에 후회와 눈물이 앞을 가리는 고통스런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저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지 음주로 인해 무책임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음을 전해드리고 싶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유족 분께서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이 글을 빌려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못한 아들로 인해 마음고생이 크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못한 오빠로 인해 결혼식도 못하고 있는 예쁜 내동생 승희, 매제 민효. 말다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고가 없었을 거라 자책하며 저의 죄를 같이 짊어지자고 하는 여자 친구에게도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작품평 : 확감에 한 운전으로 한 사람을 다른 세상으로 보냈더니 그 사연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인이 된 분이나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 아닙니까.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타인을 위해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업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가족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전종석

나는 울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비록 넉넉한 가정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남들에게 손을 내밀만큼 힘든 환경도 아닌 평범한 가정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다 받아 줘야만 했고 때론 폭력까지 휘두르는 아버지를 감당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도 어렸고 힘들었으며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 17세가 될 무렵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술주정과 함께 폭력까지 더한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기에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방향을 시작으로 비행을 하며 심지어 가출까지 하여 친구들과 함께 싸움만은 자신 있었기에 매일같이 싸움과 범죄를 일삼았고 결국에 발각이 되어 어린 나이에 장단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되었고 이 모든 걸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되돌리며 점점 더 포악해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우연히 참석하게 된 어느 종교집회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꼈고 그 후 꾸준히 종교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나중엔 종교 회장직을 맡게 되었고 공장의 반장직과 여러 개의 국가기술자격증도 취득하게 되면서 검정고시 합격과 함께 소장님의 표창장까지 받게 되는 영광과 더불어 모범수용자가 되어 가족 접견은 물론이고 사회 견학과 귀휴 등을 다녀온 후 그다음 해 8.15 광복절 특사로 출소를 하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출소 후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지금의 내 위치를 찾고자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 일을 다니며 단기간에 기술자로 인정받아 해외 책임자로도 여러 번 출장을 나가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을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어 양복점과 옷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과거 수용생활을 하면서 배운 기술을 열심히 발휘하였고 나중엔 휴대폰 가게도 운영하며 휴대폰 수리도 직접 하게 되었고 조그마한 무역까지도 같이 하게 되면서 2012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 필리핀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아내의 나이는 나보다 11살 어린 22살이었는데 대학 졸업 후 밴드 활동을 시작했었고 그중에서도 밴드의 리더보컬이라 그런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

비록 아마추어 가수라고는 하나 가수는 가수였고 그 후 난 아내의 그 파워풀하던 모습에 이끌려 자주 노래를 들으러 가게 되었고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는지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난 용기 내어 말을 건넌 뒤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게 되었고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영어와 파갈로그어(필리핀어)를 열심히 공부하며 그녀와 사랑의 싹을 키워나갔고 그 결과 그다음 해 가을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8살, 6살, 3살의 아이를 둔 부모가 되었다. 정말 잘생긴 첫째 아들과 공주같이 예쁜 두 딸을 보면 비로소 아버지가 되어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순간에 또다시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뒤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하였는가? 막내를 낳기 전 재미로 하게 된 것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바로 도박에 빠져들면서 나의 전 재산을 탕진하고 아내에게 다시 가수를 시켜 주겠다는 약속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미 벌써 한국에서도 노래를 인정받고 입상경력까지 있는 아내인데. 나는 도박으로 인한 빚을 해결하고자 도망까지 다니며 지난여름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게 돈에 쪼들려 범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9년이라는 적지 않은 형을 받아 수용 중이며 매일같이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자주 꺼내어 보게 되는데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보면 더더욱 미안하고 나 자신이 초라해지며 눈가엔 눈물이 고이고 특히 홀로 3명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순간이고 나를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성공은 예기치 못한 실패보다 위험하다'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 아내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택한 길이기엔 끝까지 기다려준다고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위로를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있으니 더더욱 나 자신이 낮아지고 또 한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으로는 이것이 일심동체 부부인가 싶기도 하다. 이런 아내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으나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물론이요 또 다른 피해자는 내 가족이 아닌가 싶다고. 백 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에서야 진실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 너무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더는 못난 남편과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며 다시 한번 더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같은 돌에 두 번이나 걸려 넘어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작품평 : 다시 노래를 하고 싶은 아내가 있는데, 세 아이가 있는데, 도박에 빠져 도망을 다니다 범죄까지 저질러 9년 형을 받게 되었다고요. 아내와 세 자식이 짊어지게 한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그대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소중히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인생에 큰 실수는 한 번만 하는 것이지요.



용서의 글



최진수

저는 1980. 6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해주 최씨 32대손 3대 독자로 세상에 빛을 맞이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도소라는 곳을 올거라고, 경험 할거라는 생각을 할수도 없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12세 되던 해에 아버지의 사업으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저와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에게 아버지는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 둘다 미국 땅을 선택했던 것이다. 처음으로 밟았던 뉴욕 JFK공항을 난 잊지 못하고 생생히 기억한다. 키가 크고 코가 크던 백인과 정말 눈과 이를 빼고 시커멓던 흑인 가족들, 알아 들을 수도 없는 언어들... 순간 '잘못됐다, 오지 말 걸' 이라는 겁이 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자고 했다가 아버지는 "이미 늦었어. 여기서 이제 더 넓고 더 훌륭한 진수가 되자" 라고 하셨다. 한국에서 떠나올 때 마중나왔던 반 친구들을 생각하며 꼭 영어를 잘하겠다는 약속을 기리며 용기를 내보기로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접하기도 다짐했던 것도 기억이 생생히 난다.

처음 학교를 가고 영어로 수업을 받으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였지만 영어를 빨리 습득하고 배우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던 기억도 난다. 그 결과 6개월만에 학교 우등생으로 상도 받고 아버지는 그것을 늘 자랑삼아 더 열심히 일을 하셨던 듯 했다. 그렇게 중·고·대학까지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 중간에 미군 3년이라는 생활까지 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으로 2000년에 한국에 들어와 JSA 공동수비구역에 배정받아 근무를 하고 2002년 10월에 전역을 하였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회사를 잘 다니다가 한국에 먼저 귀향하신 아버지, 어머니의 부탁으로 한국에 아버지 사업을 도와드리러 2009년에 들어왔다. 솔직히

용서의 글

아버지의 건설 사업은 나에게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분야였고 학교 전공이 세계 경영학 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은근히 회사를 같이 이끌어주셨음 하셨다. 조금만 아버지의 기분을 맞춰드리다가 미국으로 돌아갈 마음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해드렸다. 그 결과 나의 미국 시민권이 자동포기가 되면서 영장이 날라온 것이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2일 동안 멍때리고 앉아 있었다. 신체검사 하는 날 미군으로 근무했던 기록과 나이로 '공익'판정이 나려고 할 때 문득 주한미군으로 있을 때 카츄사 형들의 말이 기억이 났다.

'공익하고는 밥도 같이 먹으면 안돼~'라는. 그래서 현역을 지원하고 굳이 9사단 백마를 가게 되었다. 남자들의 최악의 악몽 재입대를 한 것이다.

그 이유로 국방일보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기사까지 났다. 그렇게 또 다시 군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아내를 만났다. 나이차이도 12살이나 났고 솔직히 부담도 되고 한창 놀 나이라서 밀어냈지만 군 생활 하는 동안 보여준 노력과 사랑을 보고 받아주었다. 하지만, 역시 나이 차이와 문화차이 때문에 7년간 행복한 기억보다는 아프고 싸웠던 기억이 많아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좋은 직장도 그만두었고 가까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내 자신을 낮춰가면서도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리니 지난 7년이 너무 억울하고 아까웠다.

그래서, 진정한 YOLO LIFE를 살아보겠다고 서울 쪽 일들을 다 정리하고 미국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는 구미로 내려왔다.

처음 한달동안 정말 친구와 같이 못해 본 자유를 만끽하며 결혼 전 나로 돌아가고 있었다. 다시는 누군가와 쥘여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만의 생활을 잡아가고 있으면서 난 현재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역시 인연은 인간의 능력밖인가 그렇게 혼자서 내 생활을 하려 했는데 우연히 지금 아내와 마주하게 되었다. 당시 구미에서 영어강사를 하면서 해외선물이라는 주식을 하고 있었던 때이다. 강사를 하면서도 해외선물을 하면서도 승승장구를 하던 시기에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성급한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다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사람이었으니까. 문제는 아내의 가족에 있었는데 난 '아내면 뭐든지'라는 생각으로 이곳으로 이끌어지는 통로인지도 모른채 빠져만 들어갔다. 처음 인사 드리는 자리에서 장인, 장모는 날짜 잡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때 의심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내에게 폭 빠져서 다 좋게 좋게만 생각한 결과가 지금까지 온 듯하다. 장모는 친어머니가 아니었고 해외선물로 수익을 매일 내는 것을 알고 나보다는 내 능력과 배경을 좋아하신 것이다.

2019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증시와 주식거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소위 말해 '깡통'을 차게 되었고 많은 손질을 하게 됐다. 그 중 하나가 나도 포함되었고 장모 돈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 이유로 난 이곳에 피해자가 장모로 되어 들어와 있다. 지금 아내와도 협의 이혼을 해주었고 우리 둘 사이의 아들, 아직 18개월 밖에 안된 내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다.

이제 6개월 남짓남은 이곳 생활을 잘하고 하루빨리 내 아들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다. 지금 이혼을 했지만 혼자 고생할 애엄마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어찌되었던 물질적으로 피해가 갔고 아기엄마, 내 소중한 아들도 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황을 겪는다는 자체가 정말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다시 사회에 복귀하면 일을 성실하게 하고 나의 아이를 위해 살 거라고 꼭 전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아들아! 지금 아직은 어려서 아빠의 부재를 모르겠지만 나중에 커서도 지금을 원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널 위해 살게. 사랑한다.

작품평 : 열두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파란만장한 생을 사셨네요. 본인의 인생을 잘 정리해도 소설책 한 권 분량이 될 듯합니다. 그곳 생활이 이제 6개월 남았다고 했으니 자중자애하면서 보내고 18개월 된 아들을 잘 키우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리면 대부분 추락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성실함'이라는 교훈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석중수

“아빠는 지금도 좋은 아빠야”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잘살고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족이 화목하였고 행복 하였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을 졸업하면서 유명한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같은 졸업반 동기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회 생활을 시작 하였습니다.

입사 후 바로 부친이 간암으로 돌아가시어 27살부터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20대 후반의 나이에 중국주재원에 파견을 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여 여동생을 시집보내고 저도 장가를 가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와이프, 저, 아들 이렇게 3명이 화목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삶을 살고자 선배의 권유로 주식을 하게 되었고, 회사 생활과 주식투자로 3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정말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여유속에 저는 가정을 등한시 하고 유흥과 사치에 몰들어 점점 나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이외 선물, 옵션, 및 여러 가지 투자속에 실패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실패속에 투자자들을 속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고 감당할수 없는 지경이 되자 무서움과 두려움에 현실을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15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는 주식 사기꾼이란 손가락질 속에 청춘을 받친 회사를 불명예 퇴직하였습니다.

저는 특경법 사기는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형생활 초반 저는 소년수를 봉사하는 봉사원을 하였고 지나 소년수나 수형생활이 처음인지라 나이차와 좁은 방에서의 생활로 조금씩 부딪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같이 붙어있던 만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되고 친해졌으며 어느날 소년수가 말하길 부모의 싸움으로 할아버지 집, 외할머니집을 전전하며 마치 자신이 물건인줄 알았다는 그 말을 듣고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와이프와의 싸움이 잦았고 그런 모습을 아들이 보면서 아들은 점점 말도 없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하였습니다. 반도체 분야란 특정일만 15년 동안 하였던 저는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가리지 않고 일들을 하였고 그런 일들속에 점점 힘들고 지쳐갔습니다.

어느 힘든날 일을 마치고 아들과 슈퍼를 갔다오며 아들의 작은 뒷모습에 가슴이 너무 아팠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여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아빠가 될거라고 말하니 아들은 저에게 “아빠는 지금도 좋은 아빠야” 이렇게 말을 해주었고 그때부터 더욱 정신을 차려 일했지만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던 저는 파산 상태였고 그렇게 저는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폭주기관차 처럼 앞만보고 지냈던 저에게 이곳은 현재의 저와 예전의 저, 그리고 미래의 저를 생각할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더욱 겸손하고 자세를 낮춤으로 남과 부딪치지 않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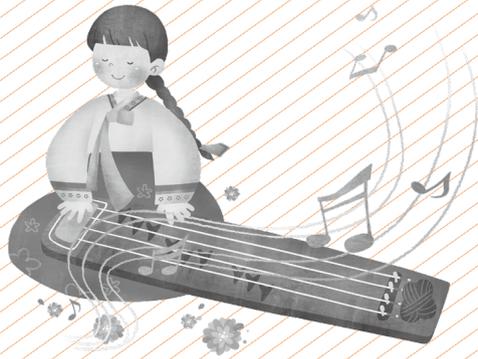
현재 저는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또 한번 용서를 구하고 저로 인하여 고통속에 살고 있는 와이프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반송되어 오는 편지에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온전히 저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이고 모든 고통의 무게를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언젠가는 지나갈 이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 고통이 아닌 성숙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 생각하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늘 너를 가슴에 품고 있단다. 많이 보고싶구나 사랑한다.”

작품평 : 주식을 하면 돈이 돈을 불러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수익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1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주식 사기꾼’이란 손가락을 받으며 그만두게 되었고 4년 6개월 형까지 받게 되었다고요. 아내와 아들을 만날 날도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출소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 계시겠네요.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만 남아 있지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희진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3년째 복역중인 33세 이희진입니다. 미결 때부터 꾸준히 새길지를 읽어오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도 만났고 깊은 뉘우침과 깨달음을 얻게 해준 글도 만나면서 저의 미흡한 필력으로나마 가족들과 피해자 분들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해보고자 오랜 고민 끝에 조심스레 펜을 들었습니다.

대학시절,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인해 받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장의 급급한 현실때문에 너무나도 한심하고 후회가 됩니다. 이런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많은 분들과 상처 입은 저의 가족들에게 염치없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4남매중 장녀로 태어나 빠듯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위해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부모님 대신 직접 밥을 해먹이고 돌보며 '이건 장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늘 마음속으로 되뇌며 보통의 또래 친구들과처럼 아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노는 유년기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어느 날, 학교 클럽 활동실에 비치되어 있던 가야금을 보고 첫눈에 매료되어 생애 처음으로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중학교 3년 내내 가야금 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악기도 배우고 대회도 출전하며 악기 연주자의 꿈을 키워 나갔지만, 고등학교 진학시기에 저와 뜻이 달랐던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예술고가 아닌 일반고에 진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가 장녀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악기 연주를 포기하면, 네 동생들이 하고 싶은걸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이말이 제 가슴에 말뚝처럼 박혀 어린 마음에 ‘아, 내 꿈 따위는 안중에도 없구나. 나 하나만 꿈을 포기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동생들이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비뚤어진 생각을 갖고 전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점점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고, 제게는 늘 동생들이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부터 서른이 되도록 특별한 목표나 꿈도 없이 매일을 술에 찌들어 방탕한 날들을 보내던 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살면서 단 한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교도소에 수감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감된지 1년째 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진심으로 모든 죄를 다 뉘우치지 못했고 ‘왜 나만 이렇게 많은 형을 받은거지’라는 억울함과 악만 받친채로 매사에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흐르고 3년이 된 지금은, 그동안의 저를 돌아보며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깊은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곳 개방 작업 동에서 힘들고 고된 작업을 해내면서 인내심도 기르게 되었으며 땀 흘려 번 돈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이제야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흘려 보내왔던 나태하고 게으른 삶들이 너무나 아깝고 후회가 됩니다.

어린 시절 늘 원망해왔던 넉넉지 못했던 저희 부모님, 항상 짐처럼 여겼던 동생들은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힘들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들에게 한번이라도 털어놓고 상의 했었다면 이렇게 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아직도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진작 너가 하고 싶어했던 가야금 전공을 하게 해주었다면 지금 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하시며 모든 것을 당신들 탓으로 여기시고 자책하십니다. 그럴 때 마다 아무 죄 없는 가족들에게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싶어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입소하고 며칠 뒤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도 채 되지 않으신

용서를 구합니다

몸으로 혹여나 이 못난 딸이 이곳에서 추울까봐 무겁고 두터운 솜이불을 바리바리 싸들고 멀리서 힘들게 접견 오셨던 까칠하고 수척해진 엄마의 얼굴을 보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ping ping 울었던 그 겨울의 기분과 깨우침을 저는 영영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 혼자만의 욕심과 부도덕함으로 인해 피해 입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온 마음대해 사죄드리고 염치 없지만 조심스레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진실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저 때문에 고통 받고 상처 입은 저의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구해봅니다.

작품평 : 가야금 연주에 매료되어 음악을 하고 싶어한 그대에게 부모님은 세 동생을 생각해서 음악을 포기하라고 했다지요. 이것이 한이 되어 비뚤어져 간 그대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원하는 대로만 풀리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가족을 원망하면 그 화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개과천선하여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기 바랍니다.



“용서의 글”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누이

오세용

누이여 곧 겨울이구나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더 주워먹을 것도 없어
온 몸에 흠처럼 달라 붙은
가난을 떼어먹던 시절

누이는 작은 것 하나
군고구마 하나
먼저 먹는 법이 없었지
다 타버린 고구마 껍질들
누이는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지

너무 일찍 철이 들어
그토록 어른스러웠던 누이는
뭐가 그리 급해서 혼자
급하게만 살다가, 살아가다가
먼저 훌쩍 떠났다.

이제는 슬프지 않다만
누이여 슬픔보다 진한 그리움이란
먹먹한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그곳에도 계절이 있는가
나는 잘 있다
내 걱정은 말고, 누이
부디 아프지 말어라.



작품평 : 동생들부터 챙기느라 훌쩍 어른이 되어버린 누이가 세상을 뒀으니 남아있는 마음은 겨울보다 추울 것입니다. 그리움 같이 슬픈 일도 없고 그리움 같이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동생들 걱정일 누이를 위해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 편지가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눈 의 독 법

전어제

어둠을 배경으로
하얀 글처럼 흘러내리는 눈이
하늘에서 보내온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살에 닿으면 차갑긴해도
가슴에 품어 녹여보면
모질던 마음 둥글게
눈물로 말아주는 눈이
정하게 살다간 사람들
깎아만든 백골문이라면
나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잔소리같이 내리고 또 내리는 눈이
내 몸속 정수리까지 쌓여야
사람이 된다는 그런 비급이라면
나는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채찍보다 몽둥이보다 더 아프게
토닥이는 저 눈의 독법을 나는
꼭 알아내고 싶다

작품평 : 눈송이 하나하나도 지상에 제 자리가 있어 그곳을 향해 내린다고 합니다. 그 눈길에 문장이란 어찌 읽어야 하느냐, 는 고백. 차가움으로 모진 마음을 둥글게 깎아내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눈을 맞고서 있겠습니다. 가벼운 줄 알았던 눈의 무게, 그 다정한 토닥임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눈
내
리는
밤
이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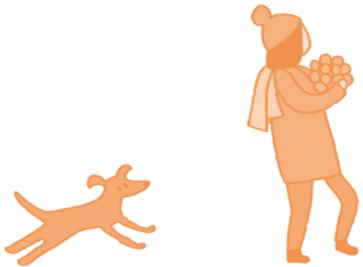
이경리

긴긴 겨울밤
함박눈 소리 없이 소복이 내려 앉으면
박꽃 닮은 고운 미소 절로 떠오르고
밤새 내린 하얀 눈
잠든 어둠 슬며시 하얗게 밀어내면
부엉새 울음 따라 그리운 목소리 들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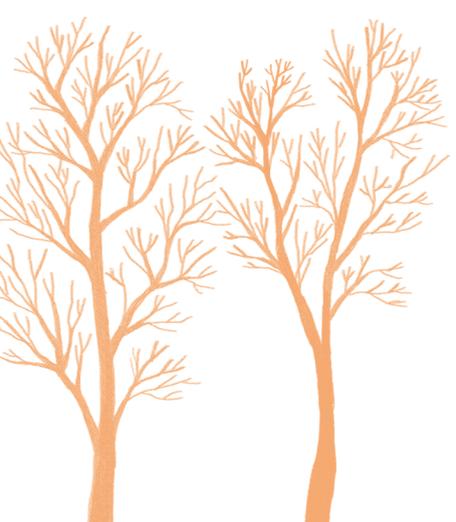


홀로 뜬 달 벗 삼아
정처 없이 떠돈 세상 건진 건 하나 없고
가슴 한 켠 얽혀진 커다란 바윗장만
헛되이 걸어온 어리석은 지난날
한평생 뒤편길에 남겨진 단 하나는
새까맣게 새겨진 홀어머니 얼굴뿐

머나먼 고향 찾아
밤새워 날개 젓는 저 기러기
가는 길 중간쯤에 내 소식 좀 내려주렴아
새하얀 눈발 위
그림자 하나 달랑 매단 저 새벽달
고향 하늘 지나거든 사랑한다 전해주렴아



작품평 : 추운 겨울이면 잠에서 깨어 밤새 내린 눈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의 풍경이 꼭 그렇습니다. 길고 긴 밤 달이 되어 뜬 어머니 얼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버린 기러기가 아직도 날고 있는 고향. 그곳으로 가는 그림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식 전해 달라는 마음이 잘 읽히는 시편입니다.





겨울 나무

박병진

마지막 잎새마저 세상에 내어준 날
바람에 휘어진 가지는 이별에 휘청거리고

차마 붙들지 못해 떠나간 그 자리에
오도카니 마음만 달빛따라 하얗게 쫓아가네

밤 깊어 새벽 사랑채 늙은 할아범의 기침처럼
온 밤 뒤척이다 제 그림자마저 야위어가고

양상한 가지마다 비수처럼 헤집는 바람에
나무는 옹골찬 침묵 속 온몸으로 세월을 쌓고있네

새벽 닭 울음에 실려온 삭풍은
흐린 구름모아 서늘히 눈발 흩뿌리고

가지 마디마디 피어 난 눈꽃은
흑백 사진속 오누이 웃음처럼 환한데

나무는 꿈을 꾸네
겨울건너 어느 봄 날의 환생을

작품평 : 나무들은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 잎들을 떨어뜨립니다. 고적한 시골 가득 흰 눈이 내리고 노인의 기침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짹짹 금 가게 하는 풍경.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건 봄, 이라는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꿈꾼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견딘다는 것을 겨울나무에게서 배워봅니다.





TV
를
보
다
가
:(
눈
물
:(
:(

유석중

TV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난 그저 TV를 보고만 있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좋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곳을 여행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와 딸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아빠와 아들이 웃으면서 공놀이를 하고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나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을 멈춰보려
가만히 창 밖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작품평 :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몸이 아는 모양
입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모습이 아니라 가진 것 없어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일도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일이란 걸 알았으니 순간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눈사람(의망) 二

김금숙

밤새 목화꽃 같은 탐스러운 눈이
소르르 내렸다.
온 천지는 눈의 나라가 되었고
사람들은 잠시 거북이가 되었다.

이런 날 나는 마당 가의 눈을
치우다가...
그대로 마당에 누워 보았다.

폭신한 눈이 차갑기보다
따뜻하다고 느껴질 때
눈을 살포시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하얀 뭉게구름 눈사람이
나를 보고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작품평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을 치우다 잠시 멈춰서 올려다본 하늘에 뭉게구름 눈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소박한 소통. 담담함의 힘이 더도 멀도 없이 느껴지는 시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끔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야말로 필요한 힐링타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를

읽고

한대희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내일 1심 선고 출정을 앞두고 오늘 오후에 이발했습니다.

“어떻게 깎아 드릴까요?”

“옆머리, 뒷머리 모두 짧게 깎아 주세요. 그리고 형량도 6개월 깎아 주세요.”

아마 모든 미결수의 대다수 현안은 저를 포함하여 ‘형량의 최소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법은 남의 일로 알고 있던 적지 않은 수용자들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같은 거실 동료들 왕년의 경험과 카더라식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를 만져본 사람들의 말을 아무리 많이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빨리 전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듯이,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에 대해 그 업의 본질과 절차 및 양형의 원리를 안다면 형량을 최소화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와 검사에 관한 책은 적잖게 나왔으나, 판사에 관한 책은 거의 쓰이지 않은 것이 책의 집필 동기입니다.

법률적 구멍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몰라서 당하게 되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저지른 잘못만큼만 최소한으로 정당하게 그 값을 치르기 위해 고민하던 저의 목마른 갈증을 거의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크게 터득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재판의 ABC

1) 판사, 검사, 변호사

검사는 피고인의 죄를 밝혀야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피고인의 죄 없음을 주장하거나 정상을 납득케하는 사람이고, 판사는 둘 사이의 주장을 조합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람인데, 원칙적으로 검사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결합니다.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의 다툼에 끼여들지 않고, 눈앞에 제시된 것만 다룹니다. 또한, 판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며 증거를 따라 움직이므로 '증거가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주장이나 항변을 할 때 판사의 동정이나 혼수를 바라지 말고 증거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므로 가장 좋은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증거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반드시 그렇다는 필연성으로, 변호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으로 움직이며, 특히 검사는 논리라는 나침반을 따라 법 조항이라는 지도를 탐색하며 생각을 전개합니다. 결국, 증거라는 공통분모 위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2) 형사와 민사

형사가 처벌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면 민사는 돈이 오고 가는 문제입니다. 민사가 원고와 피고 개인 간 싸움이라면, 형사는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목숨을 건 사투입니다. 이에 따라 증거의 입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판결에서 입증은 실제 생활에 적용될 정도의 정확성으로 십중팔구 식으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의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 즉 열에 아홉 이상 100% 가까이 일체의 의심이나 반대 가능성을 허용치 않는 과학적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에 따라 혹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 재판의 열쇠, 사건 논리

재판에서 우리가 주장해야 할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야기에는 당연히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증거나 논리, 경험 등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사건 논리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재판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단순히 주장이나 증거만 나열하면 안 됩니다. 증거와 증거에 토대를 둔 사실 그리고 사실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잘 엮을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증거→사실→논리'가 긴 줄에 굴비 꿰듯 잘 엮어져야 승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증거, 사실, 논리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사건 논리인 셈입니다. 이는 쟁점에 대한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글쓰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건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쟁점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주장과 증거제시, 딱 이 두 가지뿐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근거한 합리성, 일관성, 전문성과 언변 등에 기초한 객관성(신용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기억해둘 말이 있습니다. '거짓도 일관되면 진실이 되고, 진실도 어긋나면 거짓이 된다.'

2.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검사가 가장 신경 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 적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검사와 다툼 경우 증거를 통해 무엇이 사실인지 다투어야 하고, 다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마치 깡패와 싸울 때 손발을 공략할 것이 아니라 목을 졸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둘이 검사와 다투는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기록(검찰) 열람 신청이나 재판기록(법원) 열람 신청을 통해 증거를 찾아 사실을 밝혀야 하고, 보고문으로 대법전을 신청하면 대여해주는 조상원의〈대법전〉(현 암사, 2020)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여 공소장에 적힌 나의 죄명과 적용 법조가 나의 범죄 사실과 부합하는지 면도날 같은 예리함으로 한 자 한 자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유죄와 무죄를 판단해야 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적용 죄명이 타당한지 재차 삼차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죄명의 한두 글자 차이로 형량이 1~2년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나의 정확한 죄를 내가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여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컨대 폭행과 상해, 강간과 준강간과 유사 강간, 사기와 횡령 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양형은 점이 아니라 선

예전에는 똑같은 죄에 대해 형량이 판사에 따라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유하자면 고무줄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7년에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만들어 양형기준이란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죄목에 대해 그 죄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액의 크기나 피해의 경중 등에 따라서 서너 개의 유형으로 카테고리를 일차적으로 나눕니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형량을 기본, 감경, 가중으로 다시 구분합니다. 이것은 특별양형인 자와 일반양형인 자의 감경요인과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예컨대 사기죄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과 5억 사이이면 제2유형에 속하고, 이 경우 기본형량은 ○년 ○개월에서 ○년 ○개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특별양형 인자) 받고 진지한 반성(일반양형인 자)을 하여 형량이 감경되면 감경 형량 ○개월에서 ○년 ○개월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1.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 등을 정상 참작하여 '선'으로 되어있는 양형 구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점'으로 형량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구치소 수용자의 현안과 당면 과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선고 전달까지 '판사의 마음을 양형 구간의 제일 아래로 움직이기.' 통상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 1) 개인적 범익과 관련된 사건(사기, 횡령, 배임, 폭행 등)의 경우 합의이고,
- 2) 다음이 개전의 정, 즉 반성의 빛입니다.

이외에도 죄목마다 양형기준의 특별/일반양형인 자를 보면 구치소에서 마냥 한가하게 보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합의 및 처벌 불원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할 것이 없으나, 반성과 탄원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 구체적 대책을 진실하게 고백해 재판장을 감동 시키기'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님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방아쇠는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형식 면에서 글씨체가 좋건 나쁘건 악필이라도 읽는 사람이 최소한 독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정성을 들여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비석에 글자 새기듯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실제로 구치소에서 사건을 돌이켜보고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며 느끼고 생각한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꾸밈없이 서툰 서툰 대로 나만의 경우와 나만의 입장에서만 우리나라 수 있는 '낯설은' 언어를 바늘로 우물 파듯이 딱 한 페이지에 붙이고 쓰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부터 법정에서 앉아 있는 판사가 나오는 장면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검은색 표지의 베개로 쓰기 딱 좋은 크기의 <대법전>과 <양형기준> 두 권이 판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권의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형량은 1년 이상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외침은 삼가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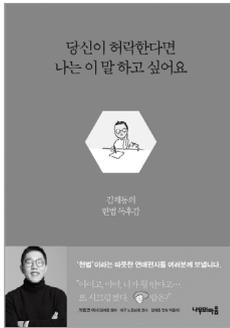
“심 봤다!”

참고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노인수, 지식 공간, 2017)에서 일부 인용했습니다.

작품평 : 첫 문단은 긴장을 이완시키고 앞으로 할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프롤로그 같습니다. 유머로 시작하는 여유와 재판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능력 있는 글이네요. 참고할 사항이 많은 유익한 독후감입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를 읽고

진정득



2024년 10월 27일 아침 7시

핸드폰 알람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며 아내가 일어나라며 나를 흔들어 깨운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전날 먹은 술 때문에 속도 쓰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는 아침부터 잔소리를 쏟아낸다.

어제 ○○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늦게까지 하던 중 소장님께서 맡아주신 폭탄주를 마시고 난 후 그 뒤로는 기억이 없다. 어제 우리 회사가 법무부와 외부 통근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교도소와 함께 할 날들을 계획하면서 즐거운 술자리를 한 것이다.

힘든 몸을 일으키며 잔소리 하는 아내를 피해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닫고 거울을 보며 “개구리 뒷다리”를 외치며 입꼬리를 올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10월이지만 찬물로 씻기에는 너무 추워 따뜻한 물로 씻으면서 설마 아직도 찬물로 씻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옛 생각에 미소 지어 본다. 온수로 샤워를 마치고 아내가 준비해 놓은 맛있는 아침을 먹으며 딸과 아내에게 너스레를 떨어본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딸아이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저 멀리 나를 반기고 있는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에 시동을 걸어본다.

‘부~아~양’ 엔진소리 배기음 아직도 이 소리에 가슴이 뛰다.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딸아이가 묻는다.

“아빠는 나이도 있고 한테 왜 꼭 이런 스포츠카를 타요?”

난 싱긋이 웃으며 “아빠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에 대한 책임이 이 차란다”라고 말하면서 시크하게 출발한다.

꿈... 사실 난 젊은 시절 힘들고 아팠던 과거가 있다.

교도소에서 젊은 시절을 살면서 해보고 싶었던게 너무도 많았기에 늦은 나이지만 그 때 꾸었던 그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다. 그 당시 수감생활 중 유독 드라마에서 이 차가 자주 등장을 했고 이 차에 배기음을 들을 때면 가슴이 뛰고 꼭 나가서 재기하면 꿈을 이루겠다고 내 스스로에게 다짐 했기 때문이다.

회사에 도착하니 모두가 분주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며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준다. 우리 회사는 내가 수감생활 중 만난 친형같은 희종형과 공장생활을 하면서 배운 기술을 토대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벤처기업에서 이제는 중견기업으로 키워 놓았다. 내가 얻은 만큼 나도 베풀어야 하기에 법무부를 통해 수감자들에게 삶의 기회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되었다. 사실 그 때 당시 ‘광성정밀’이라는 회사가 참 좋아보여 나도 꼭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회의실에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듣고 내 방으로 올라가 책상에 앉아 아직 덜 깬 숙취를 느끼며 책장을 응시하던 중 유난히 빨간책 한권이 눈에 띄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헌법에 관한 책이며 나에게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담긴 책이다. 이 때가 아마 2020년 10월 27일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이다.

수감생활 중 새길에서 독후감 공모를 하기에 공부하고 있던 책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해서 기분 전환 삼아 헌법 독후감을 썼던 것이 당신이 되어 책에 실리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그 때 당시 코로나 19로 인해 접견도 제한이 많이 되어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새길 당선으로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이 책은 감동이나 교훈을 준 책은 아니지만 나에게에는 힘들었던 재판기간 마음을 다독여 준 책이다. '헌법'참 딱딱하고 어렵고 접하기 힘들 것 같은 단어인데 이 책은 법을 따뜻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접근해 놓았다.

헌법 '제1조2항'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30조 중에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 한번 나오는데 그 권력자가 바로 국민이라는 것에 놀랐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관에는 권력이 아닌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그 권한 또는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당연히 1조였구나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좋았던 10조, 11조, 12조...

10조 행복하세요(행복할권리), 11조 평등해요, 12조 신체적 자유.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할 권리를 법으로써 명시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헌법에는 공무원들 일하나? 안하나? 법으로 정해 놓았다.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탁2작업장 이성민 교감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고마운 분 이셨는데 재소자가 되어 힘든 징역 생활을 할 때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따뜻한 분이시고 우리는 같이 징역을 살면서 교도소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늘 배려해주셨다. 그 분이 계셨기에 나도 반성하고 뉘우치고 변화되었던 것 같다. (2020년도 2024년도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내 가슴에 가장 와 닿았던 조항 바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당신은 늘 옳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항소심 재판 최종 변론때 내가 판사님께 드렸던 말이다.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을 설명하려고 하니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헌법 재판소 결정문에 (96헌가11) 설명된 글이 와 닿았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참~ 간크게 판사님께 드리대었던 내가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웃을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마지막 연애편지 같은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서른 여섯가지 사랑하는 이유를 적어 놓고 마지막에 추신으로 P.S “내가 여기 안 적어놨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썰기를 박아주더라고….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 재밌고 나를 지켜주는 것 밖에 없는 헌법을 배웠다.

39조까지 중 의무는 단 2개밖에 없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난 국방의 의무는 다하였으니 이제 앞으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해서 국세청 표창도 한번 노려봐야겠다.

추억이 나에게 아름다운 이유는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발전해 왔기에 추억이 아름다워진 것 같다. 수감시절 난 미래의 나를 생각하고 꿈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며 내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간 것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겸손은 고민을 이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칼에 새겨져 있던 글이다. 수감생활 중 느낀 것 중에 겸손해야 내 인성이, 내 인격이 높아진다.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이렇게 잠시 추억을 회상하며 쇼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옆에서 일어나라고 깨운다.

눈을 떴다. 어휴 꿈이다. 여기는 2020년 10월 27일 ○○교도소다.

그래도 행복한 꿈을 꾸었고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애초 자신의 꿈에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면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많이 어려서고 나약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변명을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에 꿈만 꾸지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찬물로 씻고 출역 준비하자. 아 온수 목욕이여~

작품평 : 꿈을 이용한 재미있는 독후감입니다. 2020년과 2024년. 4년 만에 이룬 성과가 대단하네요. 한 편의 소설 같이 소개할 책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구요. 헌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네요. 소설 같은 꿈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공복, 최고의 명약」을 읽고

이무용



I. 들어가는 말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관한 많은 종류의 도서와 잡지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다.

‘공복, 최고의 명약’이라는 책을 읽고 국민병이 되어버린 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심혈관 질환 등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방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과 각종 질병에 대해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변 사람들이 암수술을 받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아왔다. 누구나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을지라도 노화를 지연시켜 보고자 하는

생각과 함께 건강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여 주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2016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자가포식(낡은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는 몸의 구조)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암을 극복한 전문가가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독자에게 충분한 공감을 제공하고 있다. 무슨 병이든지 원인을 안다면 해결책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II. 본문 요약

1.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들

가) 생체리듬

생체시계로써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시계 유전자’라 불린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구의 자전주기에 맞춰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낮 동안 체온이 오르고 뇌와 몸을 긴장시키고 흥분

시키는 아드레날린과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우리 몸을 활동모드로 바꾼다. 반면에 밤이 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체온이 내려가고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닌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휴식모드로 들어간다.

나) 아포토시스

인간의 몸에는 DNA를 복구하는 효소가 있어 상처난 DNA는 즉시 회복시키지만 복구가 불가능 할 때는 그 세포를 즉시 제거함으로써 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 자가포식

세포내 오래된 단백질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활동이다. 세포가 기아나 저산소 상태에 빠졌을 때 활성화 된다. 즉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체내에 심어진 작동시스템으로 세포가 다시 태어나는 스위치가 된다. 음식으로부터 얻은 영양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자가포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나서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진되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몸이 지니고 있는 '자가포식'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라) 미토콘드리아

1개의 세포 속에 수백에서 수 천개가 존재하는 작은 기관이다. 당과 지방산에서 세포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때 활성산소가 함께

만들어진다. 젊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항산화효소가 활발하게 움직여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반해 활성산소는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다. 몸속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젊고 건강하여 그 수가 증가하면 세포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 공복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자가포식'이 가동되고 자가포식은 미토콘드리아를 새롭게 탄생시킨다.

2. 과식이 가져온 결과들

가) 내장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한 음식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 내장은 섬없이 일을 해야 하고 피폐해 질 수밖에 없다.

나) 당질과 지질의 일부는 뇌와 근육, 내장 등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근육과 간장에 저장된다.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중성지방 형태로 지방세포에 쌓이고, 중성지방과 유해 콜레스테롤이 달라 붙으면 그만큼 혈관이 좁아지게 된다.

다)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노화가 가장 관련이 깊다. 활성산소는 산화시키는 힘이 강하여 소량이면 바이러스나 이물질 제거에 도움이 되지만 많아지면 체내세포도 산화시킨다.

3. 지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피하지방(주로 여성)과 내장지방(주로 남성) 2 종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섭취한 영양은 혈관에서 흡수되고 몸에 불필요한 성분

이나 노폐물은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비대화된 지방이 혈관과 림프관을 압박하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악화되고 심장에 부담을 주어 고혈압과 심부전, 부종 등의 원인이 된다.

4. 암의 발생 원인

우리 몸은 약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매일 분열을 반복하면서 다시 태어나는데 DNA가 가진 정보에 따라 복사된다. DNA가 상처를 입을 때 돌연변이가 생성되어 암세포가 된다. 만일 복구가 안 되고 아포토시스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온몸의 혈액을 통하여 순찰중이던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한다. DNA에 가해지는 공격 횟수가 증가하거나 노화로 인하여 복구가 불가능하고 아포토시스 기능과 면역기능이 약해질 때 암세포가 활성화 된다.

5. 고혈압의 발생 원인

심장은 통상 1분에 60~70회 정도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낸다.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나타나는데 혈액이 통과할 때 동맥의 혈관이 받게 되는 압력과 혈액이 통과한 후에 받게 되는 압력의 힘을 나타낸다. 중성지방과 유해 콜레스테롤로 인해 혈관벽이 좁아지면 항상 강한 힘으로 혈액을 밀어내게 된다. 이로 인해 심장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되면 심장은 유연성을 잃고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고혈압인 사람은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심장박동이 심하게 뛰게 되어 심부전의 위험이 높아진다. 뇌의 혈관에서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뇌출혈이나 치매 발생으로 이어진다.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는 관상동맥에서 동맥경화가 발생해 혈류가 나빠지면 협심증의 원인이 된다.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고 혈류가 차단되면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고혈압 발생의 큰 원인이 내장지방형 비만으로 촉발된 고혈압이 증가하고 있다.

6. 당뇨병의 발생 원인

식사로 섭취하는 당질과 지질의 일부는 뇌와 근육, 내장 등이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근육과 간장에 저장되는데 다 흡수하지 못한 것은 중성지방 형태로 지방세포에 쌓인다. 당질은 중성지방으로 변하기 쉬운 특징을 지니고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간장에 비정상적인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의 원인이 된다. 지방간은 혈당 수치를 빠르게 상승시키는데 혈당 수치가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된다. 인슐린은 온 몸의 세포에 포도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으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혈당 수치가 오를 때 다량의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 수치가 빠르게 내려감으로 혈당치의 심한 변화는 식후 몰려오는 졸음이나 나른함으로 나타난다. 당질의 과다 섭취로 고혈압의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가 잠재적으로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 플라동 상태가 되며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진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온 몸의 혈관이 손상을 입어 망막증,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암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7. 치료방법

음식을 먹은 뒤 10시간 정도 지나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모되어 지방을 분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며, 16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자가포식의 구조가 작동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①내장 스트레스를 통하여 기능이 활성화 되고 면역력이 향상된다. ②혈당치가 내려가고 인슐린의 적절한 분비가 촉진되어 혈관장애가 개선된다. ③지방이 분해되어 비만을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가 개선된다. ④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신체적 이상과 노화의 진행이 개선된다. 무엇보다 대사물질인 케논체가 활성산소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해 준다.

III. 나가는 말

각종 암, 각종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알레르기, 치매, 노화 등의 원인과 치료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식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당질, 지질 과다 섭취로 이어지며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쌓이면서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우리 몸에는 자체 방어시스템과 치유 능력이 있음을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고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자체 방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자체 치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6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평소에도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식사 때가 되면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점심 식사 후 저녁

한 끼를 건너뛴으로 수면 시간과 연결하면 17~18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2~3개월째 실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저녁 식사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상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몸의 상태가 가벼워졌음을 느끼고 있다. 조금만 걸어도 피로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있다.

작품평 : 형식적인 면에서 들어가는 말, 본문 요약, 나가는 말로 글의 틀을 단단하게 잡고 있네요. 본문을 일곱 가지로 요약하고 네 가지의 방어시스템도 설명해 주어 이해를 돕습니다. 저녁 식사를 건너뛴으로 공복을 실천하는 모습도 대단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요.



「죄와 벌」을 읽고

김대호



내가 처음 죄와 벌을 읽었을 때가 중학생으로 기억되는데 그때는 사실 의미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어 차분히 음미하며 읽어보니 배우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

소설 내용이지만 역사적 사실이기도 한 이 소설은 19세기 러시아를 배경으로 당시 러시아는 농노제가 폐지되고 유럽의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급작스런 변화에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도시로 몰려왔고 한꺼번에 몰린 사람들 때문에 도시는 포화상태가 되면서 위생, 치안, 교육, 주거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삶의 질은 떨어지고 사회는 불안하였다. 이 시련을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도 이를 피해갈순 없었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퇴폐적 도시다. 술주정뱅이, 실업자, 매춘부가 득실거리고 길바닥엔 쓰레기가 널려있고 그 도시 안에서 한 젊은 청년이 사색에 잠긴 채 길을 걷는다. 주인공은 라스콜리니코프였는데 그는 대학생이었으나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 두었다. 이처럼 주인공은 돈이 없어 비관하게 되었고, 사회가 원망되어 좌절감에 빠져있었다. 어느 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은시계를 전당포에 잡혔고 돈을 마련한 주인공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르멜라도프라는 사람을 만났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딸 소냐를 창녀로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세상에 주인공인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을 거라고 비관했는데 더 어려운 사람이

바로 주인공 앞에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리고 마르멜라도프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면서 빈민 가정의 실상을 보게 된다. 주인공은 그의 집 창문에 돈을 놓고 사라진다. 심지어 그가 죽자 부인인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장례비용을 대주는 선행을 베푼다. 그로부터 며칠 후 주인공은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동생인 두냐가 사랑하지도 않는 연상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다. 급기야 주인공은 자신의 무책임함 때문에 동생이 희생된다는 충격에 휩싸여 전당포 노파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돈이 문제라고 인식한 주인공은 결국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물건과 돈을 훔친다. 그 후 주인공은 비겁한 행동에 괴로워하며 훔친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지만 때는 늦은 후였다.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주인공은 어느 날 소냐를 만난다. 그녀는 비록 창녀였지만 마음만은 순진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 주인공은 그런 소냐를 통해서 사랑의 감정과 함께 자신의 죄에 대한 영혼의 위안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소냐에게 모든 것을 고백한다.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주인공은 소냐의 말대로 광장에 나가 바닥에 입을 맞춘 후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당포 노파를 죽인 살인자라고 밝힌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감옥에 간다. 그 후 주인공은 변함없는 소냐의 따뜻한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내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첫째, 주인공이 19세기 러시아의 산업혁명 소용돌이 속에서 마주한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흡사하다고 느낀다. 지금 세계는 제4차 혁명을 얘기한다. 주변곳곳을 살펴보면 무인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우리 삶은 편해졌지만 그 만큼 일자리는 줄고 실업률은 높아만 간다. 마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토지를 잃은 농민과 같지 않은가?

둘째,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젊은 2030 세대를 보는 느낌이다. 갈수록 커져가는 빈부격차, 부모의 재력이 곧 자녀의 재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죽도록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 그 안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속칭 '흙수저'들, 이 모든 것이 주인공이 처한 모습과 흡사하다.

셋째, 주인공이 돈 때문에 전당포 노인을 살해하지만 반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선행을 베푼다. 여기서 우리는 돈의 양면성을 발견한다. 돈이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하면 독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돈이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자칫 탐욕에 눈이 멀어 계속 돈만 쫓다보면 유혹에 못 이겨 마치 주인공이 노파를 살해한 것처럼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아마 그 이유는 행복하기 위함일 것이다. 내가 행복하기 위한 돈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뜻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 전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유가 생긴다면 불우이웃을 돌아보고 더불어 도우면서 살아간다면 좋은 세상을 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마르멜라도프가 생계가 어려워 자신의 딸을 창녀로 팔았다는 사실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그 시대의 상황과 그가 처한 형편을 보면 오죽하면 자기 딸을 팔았을까 하는 측은지심이 생기고, 만약 내가 마르멜라도프라면 생계유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 스스로 반문해 보는 계기가 된다. 마치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 팔려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사람은 속물근성이라 이런 측면을 보면 이해되고 용서가 된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광장에 나가 바닥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인간은 잘못을 저질러도 뉘그러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인공은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었지만 군중들 앞에서 당당히 죄를 고백한다. 정말 용기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내고, 그것은 소냐에 대한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라면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은시 계도 저당 잡치지 않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우리에게 죄와 벌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하기위하여 평범한 주인공 라스클리니코프를 살인이라는 가장 큰 죄와 연결시킨 작가의 의도를 보면서 바늘과 실처럼 죄와 벌도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요즘 같은 생명경시 풍조에서 보듯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평범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보도되곤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존엄함을 알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나는 죄와 벌을 통해서 죄를 지은 자는 당연히 죄 값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불우이웃과 더불어 도우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 겠노라고 다짐한다.

작품평 : 학창시절에 읽은 책을 성인이 되어서 다시 보면 책의 내용은 그대로지만 새로운 책을 읽은 것 같은 때가 많지요. 공감과 느끼는 바도 다르구요. 그 느낌을 다섯 가지로 잘 요약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약속」을 읽고

오상균



저자인 돈 미겔 루이스는 멕시코의 의사이며 톨텍 인디언들의 지혜를 계승하기 위한 독수리 기사 단원이다. 그는 그의 저서 「네 가지 약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단히 간단해 보이는 단 네 가지의 행동, 약속만으로 나와 내 주변을 아름답게 바꾸고 또 현재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책 설명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1년 동안의 수감 생활동안 항상 반복해 읽으며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에서 주창하고 있는 네 가지 약속을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번째 약속 ; “말로 죄 짓지 말자.”

신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하셨고 우리의 말에는 창조주의 권능과 힘이 있다. 따라서 말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 또 상대방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겨서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여기 교도소에서 수용자간의 소위 ‘곱 준다.’라고 하는 말로 가하는 폭력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심하다. 거실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수감생활의 괴로움 중 많게는 90% 아무리 작게 잡아도 30% 이상은 ‘말로 죄짓기’에서 시작 될 것이다. <비관적인 말을 친절을 가장해서 말하고>, <현명한 듯 약점 잡고 저주하며>, <조롱과 비아냥을 농담처럼 하는 등>... 얼마나 우리는 말로 죄를 짓고 또 그 말들의 희생양이 되어 왔는가? 절대로 저주와 곱을 주지 말아 보자. 이 책의 저자는 곱을 주고 조롱을 당하면 다시 그 상황을 겪게

된다고 경고 하고 있다.

두 번째 약속 ; “남의 말을 자신과 연관 시키지 마라.”

남이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곱을 주더라도 내 자신과 지나치게 연결하여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의 분노와 두려움을 그저 나에게 쏟아 부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큰 상처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로 상처를 받은 경우 절대로 행동 교정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더욱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 보자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남의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를 받아 힘들어 하는지 말이다. 거실에서 뿐 만 아니라 접견시 그 짧은 시간에 상대방이 툭 던진 말, 인터넷 서신의 어떤 단어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가!

세 번째 약속 ; “함부로 넘겨 짚지 마라.”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마음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다. 수용생활 중 가장 겁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 각자에게 최소한 한 개씩은 있을 것이다. 오늘이 수용 시작 첫날이던 혹은 마지막 날이던 오늘, 내일 형집행정지, 보석으로 출소할 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고 추측할 수 밖에 없는 처지지만 이 세 번째 약속을 잊지 말고 가슴 속에 간직하자. 우리가 저지른 잘못 혹은 사고들 중 상대방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넘겨 짚어 심각한 사고를 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과거를 돌이켜보자. 사실이 나에게 나타나서 보이기 전까지 무엇이던 좋은 일이던 나쁜 일이던 넘겨 짚으면 이 곳에는 바로 지옥이라고 저자 루이스는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 약속 ; “항상 최선을 다하자.”

이 책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책대로 살려고 하니 결국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다. 저자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후회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지난 추억, 앞으로의 이야기, 옆 사람 이야기, TV 소리 등에서 철저히 독립되어 지금 이 글을 쓰고 읽는 것에 전념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글을 잘 쓰고 잘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몰입하였느냐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삼매

(SAMATI)라고 하지 않는가? 저자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지침으로 우리의 운명과 처지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과거의 고통과 슬픔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이다.

작품평 : 네 가지의 약속이 무엇인지 요약정리를 잘해 주어서 쉽게 읽히네요. 가독이 좋다고 쉽게 쓰여졌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만큼 깊이, 자주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반복해서 읽으며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독후감입니다.



“독후감”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철환

24시간을 수용생활로 보내야만 하는 재소자에게 숲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위안이다. 대륙과 이어져 있으나 철저히 폐쇄된 공간, 그래서 이곳은 섬에 가깝다. 온갖 범죄와 비리에 연루된 세상이 잉태한 사생아의 대지. 절대적 고도이다.

섬은 수십 년의 퇴적을 쌓으면서 세상과 격리된 자생의 몸부림으로 싹을 틔우고 골짜기 곳곳에 푸르름을 흩뿌리며 문명으로부터 독립된 세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왔다. 봄이면 엘리엇의 잔인함을 딛고 피어난 사월이 새하얀 배꽃을 터트려서 순결한 낙화를 그려내었고, 여름이면 깎아지른 절벽 틈새를 비집고 오른 금계국이 꽃잎이 지는 것을 서러워하듯 노란 리본을 목에 걸고 꽃무덤을 이루었으며, 가을이면 뜰 앞, 초지를 가득 채운 민들레가 꽃잎보다 애절한 슬픔을 피워뿜고 모두가 떠나버린 빈들을 지켜갔다. 그것뿐이라, 가죽나무가 뻗뻗하게 덮어간 능선에서는 멸종되어가는 사슴벌레가 개체를 확장하며 공공연한 침범으로 담장 안을 넘나들었고 밤을 기다리던 풍뎡이는 이들이 멀다 앓고 찾아들어 방전관에 거꾸로 매달려 묘기를 부린다.

외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자연의 생과 열.

사계의 흐름이 한 컷의 장면으로 편집되어 실제보다 또렷한 영상으로 뇌리에 박혀 드는 곳이다. 강박했던 세상에서의 삶이, 인지하지 못했던 포괄적인 자연의 통섭이 무위한 질서 속에서 수십 년의 신비를 품어왔으니 그 경이로움을 어찌 언어로 형용할 수 있으랴.

단절된 공간에서 담 하나의 경계 너머로 펼쳐지는 섬의 진화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봉건주의자들로 구성된 디스토피아의 세계에서 사상과 이상의 실체를 자유롭게 구현해가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문명이라는 불합리한 명분으로 짓밟히고 해체되어 형체도 없이 괴멸되고... 국토의 등줄기를 꿰어간 봉우리 봉우리마다 팔도에서 날아든 리본이 매이지 않은 곳이 없고 생의 근원이 되었던 골짜기 골짜기마다 파헤쳐지지 않은 곳이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는 기능을 잃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 사별면의 야트막한 분지 속에서 과거 어느 순간을 끊어간 문명에 힘입어 철조망 속의 고도는 자연으로의 빠른 회귀를 시도하며 잃었던 옛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토피아의 복원. 계급이 없고 분쟁이 없는 무절제한 풍요 속에서 스스로 진화해온 유토피아의 실상을 디스토피아의 통제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아이러니, 그것은 섬이 건네는 축복이었다. 디스토피아에 세뇌되었던 습성을 정화시키고 개조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냈으니 말이다. 섬으로 돌린 사계가 건네는 변화를 지켜보면서, 시계가 열리고 사상이 바뀌고 가슴의 매듭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아로 인해 비롯된 모든 문제의식을 부인하고, 반박하면서 불합리한 당위를 고집하였으니...

대립과 갈등이 없고, 구속과 강점이 없어 모든 창조에 막힘이 없는 유토피아의 산실 위로 낙엽이 나른다. 밤낮없이 충만한 창작활동으로 낙원을 창출해내던 섬은 서서히 활동을 접고 안식을 준비한다. 섬은 곧 침묵에 잠기게 되리라.

오랜 시간 겨울잠과도 같은 침거에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날, 섬은 어떤 색다름을 보여주게 될까? 소유와 집착을 고집하며 투쟁과 탐욕으로 고수해온 이방인의 대지. 통제된 철창 안에 하얗게 덮였던 겨울이 지나고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면 디스토피아의 공간에도 봄이 나을까?

긴 세월을 방황하며 잃어야만 했던 유토피아, 그 아름다운 날개는 어디쯤을 날아오고 있는 것일까.



작품평 : 인간 내부에 살고 있는 영혼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일은 디스토피아에서 바라보는 유토피아처럼 행복한 일입니다. 아파본 일이 없는 건강한 육체란 없는 것처럼 치유의 힘을 자연에서 느끼는 사유의 힘이 참신합니다.

밝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



여인원

살짝 스쳐 지나가는 듯 천고마비의 살기 좋은 계절은 어느새 모습을 감추고 동장군이 차례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수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용생활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갑자기 자유를 구속받고 사회와 격리된 생활이 죄를 지은 형벌만큼이나 무겁게 무섭게 느껴지고 하루하루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 몰라도 저는 무기 징역형이 확정되어 이곳의 교도소로 이송을 오고나서 맨 처음 목공공장에 출역 했는데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며 “멍”때리고 이제 어떡해 살아가나? 긴 한숨과 상심이 가득했는데 “가재는 게 편”이라고 제가 무기수라는 소식을 들었는지? 살갑게 한 사람이 옆으로 다가와서 괜찮소! 조금만 참고 살아보면 살아갈만 합니다. 나두! 지금 십년째를 살고 있는데 세월이 너무 잘 간다고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 오릅니다.

살갑게 하던 무기수는 틈 나는대로 찾아와서 유머스런 농담도 건네고 또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챙겨 주면서 자기가 십년동안을 살아오는 담안의 생활 노하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사나이 늙다는 마음은 어느새 뻔뻔이 소갈딱지가 다 되어 갔으며 이곳에서 얼마 동안은 더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든 필요치 안든간에 무조건 욕심을 내서 바리바리 보파리에 챙겨 쌓아두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런 버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기물건 아까워서 애지중지하다 보면 옆 사람도 외면하게 되고 서로 간에 “척”도 생기고 외톨이 취급받으니까 여러사람들과 사이좋게 소통을 잘 할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가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담안 생활에서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서로서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살아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가끔씩 티격태격 싸움도 일어나고 또 정해진 법규를 위반하거나 수용 질서를 못 지켜서 징벌을 받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불이익도 감수해야 된답니다. 담안의 공동체 생활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지저분하게 더럽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잠시도 지저분한걸 못 보고 열심히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항상 청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하기 싫어한다는 사실은 당연한데 누가 치워주길 바라지 말고 자신이 먼저 팔을 걷어 부치고 지저분한 구석구석을 수세미와 걸레질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안치워도 누군가 보기에 성가시면 치우겠지? 하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지요. 저도! 초창기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대다수라는 표현을 써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기수가 초범일 때 15~6년 정도 잘 생활하면 가석방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출소를 했기에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생활 한다면 지금처럼 가석방을 받아 출소할거란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2010년도에 새로운 행형법이 개정되어 무기수의 양형기준이 종전보다 10년이나 더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으나 어찌 하겠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늘어난 형량을 감내하는 수 밖에 무슨 힘으로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박복한 인생은 원하지 않는 징역은 따블로 묻고 가는가 봅니다.

그러나 저에게 또 다른 후폭풍이 닥쳐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에 쪼들리면서도 매달 접견을 찾아와서 사랑으로 옥바라지를 하던 아내와 자녀들은 다시 늘어난 형량에 망연자실하여 역성을 내였고 저도 그만 화가나서 낸들 어찌하랴? 하면서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혼을 제안했고 아내와 잘 협의가 되어 결국 제결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고향의 선산에 묻혀계신 우리 조상님들이 제 “꼬라지”를 보시고 노발대발 욱을 바가지로 퍼붓고 계실테지만 어찌겠어요? 붙잡을 수 없잖아요? 저는 그동안 답답한 새장 안에서 갇혀 지냈던 새를 꺼내어 자유롭게 하늘로 훨, 훨 날려 보내듯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유로운 모습으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현대 사회는 노부부들의 황혼이혼율도 높아지고 예전에 없었던 졸혼법도 생겨나고 또 젊은이들은 결혼할 생각도 안하고 “혼밥”이나 “혼술”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등 세대가 변했고 간혹 결혼을 한다해도 다섯쌍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두세쌍이 헤어진다는 통계가 나와 앞으로 국가의 인구 정책에 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십수년을 아이들 낳고 살갑게 오순도순 함께 살다가 갑자기 헤어지고 나서 가슴앓이가 시작되었지요? 후유증처럼 애잔한 마음과 후회가 깊었고 또 원망스런 마음까지도 생겼으나 고생시키고 잘 배려 해주지 못한 미안한 감정만 오롯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처만 안고 제결을 떠나간 사람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의 인연은 모두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살갑게 대해주던 무기수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 중에서 무기수는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손 끝이 매워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해야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의 손이 가지 않도록 꼭 내일처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사회와 격리된 22년의 세월은 긴 시간과의 싸움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결전은 자신과의 강한 인내심을 길러가는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길고 길었던 세월 속에서 생활의 노하우를 터득한 삶이란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작은 일에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생활입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일을 한다는 생각을 접어 두고 지금 즐거운 운동을 하는 중이다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땀 흘린 행동들이 습관처럼 익숙해져 하루하루가 열흘 같이 지나가는 지루함에서 벗어나 열흘이 꼭 하루의 시간처럼 지나가고 몸도 건강해져서 아픈 곳도 없으며 일했던 자리는 깨끗한 모습에 큰 보람이 됩니다.

수용생활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순위별로 꼽으라면 첫째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접견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운동을 하는 시간이라 하고 셋째로 반가운 편지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들이 분분한데 여러분은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접견을 잘하고 계신가요? 뭐!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접견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여 유감스럽지만 곧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도 모든 영향은 본인 자신의 마음과 행동 여부에 따라 구별되어서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곳에 구속수감 되기 전까지 겨우 초등학교를 배운 사람으로서 아주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으나 소내 직업훈련공과를 선택하여 각종 국가기술 자격증 10개를 취득했으며, 또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전일근로 위탁공장에서 받는 작업장려금을 저축해 두었다가 순천제일대학교 커피바리스타 & 외식조리학과 전문학사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독학 학위제 가정학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의 여름은 강한 태풍과 국지성 폭우로 모두를 힘들게 했지만, 그 모진 고통을 잘 이겨낸 식물은 풍성한 열매의 결실로 가을의 계절 앞에 자랑을 합니다. 우리들의 이곳 생활도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풍성한 결과가 곧 뒤따라올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잘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절은 사계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이곳 담안에서는 여름, 겨울로 두 계절밖에 못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가을은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참 좋은 계절임을 알면서도 좀 느껴볼만 하다 싶으면 여름이 닥쳐오고 더위를 잘 이겨내고 가을

분위기를 느껴볼만 하면 어깨를 움추려들게 하는 겨울이 성큼와서 아쉬운 마음에 모두가 두 계 절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올여름은 참으로 시원하게 보냈다는 느낌이 남아서 몇 자 적어 보고자 합니다. 올해 장마가 길어져서 폭염이 짧았다는 견해들도 있었지만, 지난해까지 선풍기 한 대로 여러명이 살다 보니 기온이 올라가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 덥다는 푸념이 많았는데 올해는 여름이 곧 시작되기 전부터 선풍기를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해 주신 덕택에 열대야 현상에도 시원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다고 이 자리를 빌어 관심과 사랑으로 봉사를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좁은 담장안의 수용생활도 오래 살다 보면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발전을 하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친숙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사소한 감정이 불씨가 되어 나중엔 죽일 놈의 원수처럼 변해서 잘 살아왔던 수용생활이 그만 하루아침에 항아리가 털썩 깨지듯이 징벌을 먹는가 하면 행형급수가 강등을 당해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이웃들과 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생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용생활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공장에서나 수용동에서나 서로서로 사이 좋게 소통하며 잘 살아간다면 관대한 호의를 받아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생활이 자유로우나 서로 의견 대립과 싸움이 많으면 규제와 단속이 더 강화되어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수용동의 환경은 개개인의 몫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며 오로지 성실함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서 생활은 사회와 연결된 삶으로 인식하여 힘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 담안에서 22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한순간을 참아내지 못한 내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이 65세, 인생의 해는 벌써 정오를 지나 서쪽으로 서쪽으로 자꾸 기울어 가는데 남아 있는 인생의 시간은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다짐을 해 봅니다. 수용자 여러분!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용생활을 건강하게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시는 날까지 개인의 발전과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품평 : 삶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도와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때는 인간적인 삶도 있을 수 없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배움의 길은 남은 삶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겨울, 눈



정희천

어느덧 겨울, 사계절 중 가장 큰 형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019. 10. 25. 저는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드라마, 영화에서나 봤던것과는 다른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재질의 상하의 옷을 비롯해 철창, 고무신 그리고 이름이 되어버린 수번호. 처음 이런 경험을 한 저로써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네모난 리빙박스에 짐을 담아 신입방으로 향했고 일주일이기 전에 본방을 배정받은 저는 다시 네모난 박스에 짐을 챙기고 이동하던 중 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 언제나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보이던 푸른 그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됐구나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흘러 결국 전 형을 확정받아 기결수로 옷을 갈아입고 이송을 기다리다 2020. 5월에 ○○교도소로 이송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곳 ○○까지 오면서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전과자가 되어서 생활해야 할 곳이구나, 대체 왜 20대의 어리숙한 내가 진짜 전과자가 되었지? 내가 그렇게도 나쁜 사람인가? 라고 제 자신에게 반문하고 자책하고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요리보고 저리봐도 낙후한 건물들 뿐 혼란스럽고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달라질 수 없기에 저는 가석방이라도 받아보기 위해서 공장으로 출역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거리도 부족했고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계장님과 여러 수용자분들이 도와주셔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장에서 작업한지도 4달이 지나갔고 이제는 나름의 요령도 터득했습니다. 어느때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 스피커에서 '새길 겨울호' 응모를 받는다는 소식을

든게 되었고 작업을 마치고서 거실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책상을 펴놓고 고민했습니다. 글이란걸 써본적이 없었고 대체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까? 내가 뽐힐수는 있을까? 멍하게 창살 사이를 보다 문득 군대에서 지내던 기간에 재밌었던 겨울이야기가 생각나 그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2017년 5월 논산 훈련소로 입대하였고 훈련기간을 다 이수한 저는 운 좋게 집과 가까운 ○○○로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지통실에서 대기하던 저를 키작고 근육뽕뽕한 아저씨가 픽업해 3층대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신입생활관으로 들어가 같이 온 전우(동기)들과 함께 짐을 내려놓은 뒤 서로 인사를 나누며 킁킁대던 중 선임들의 방문에 패기있게 소리쳤습니다. 이병○○○! 잘 부탁드립니다.

자대선임과 간부들 또한 간만에 친화력 좋은 후임(병사)이라며 반겼고 여러훈련과 제초작업, 삽질을 하다보니 어느덧 12월 계급은 일병이 되어 있었고 차차, 뒤로 동기들과 후임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조금의 모범이 되고 싶었는지 솔선수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폭설이 내려 연병장을 비롯한 곳곳이 눈에 잠겨갔고 저희는 부대 내 제설작업을 새벽부터 시작하였지만 치워도 치워도 쌓이는 눈 덕에 저는 다리가 잠겨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임과 동기들을 저를 골탕먹이려는 듯 한가득 눈을 담아 제게 쌓았고 그 덕에 저는 겨울왕국에 나오는 '올라프'가 되었고 주변의 선임과 동기들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힘들기도 했고 제 24년의 나날 중 여러 추억을 만든 곳이기도 했던 군생활 19년 1월 전역을 한 뒤로 여러번 면회도 가고 동기들과 만나 휴가를 즐기기도 하며 지냈던 추억도 2년이 되어 가네요.

지금의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의 저는 죄를 짓고 전과자가 되어 이곳에 있지만 인간이라면 모두들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든 싫든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생각하죠. 부대 내 선택이 남들이 말하는 최선의 선택이길 리스크가 없기를 그 선택이 내게 이득이 되기를... 하지만 세상은 제 이상처럼 쉽지 않았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혀 이곳에서 있습니다.

별써 이곳에서 지낸지 1년, 이제 1년 6월이 지나가면 저는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물론 나가

서는 다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노력할 겁니다. 행동도 더 조심할 것이고 어찌보면 군대에서 올라프처럼 된 적이 있던 저는 지금도 올라프인가 봅니다. 그때나 이때나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러나 서로를 위해주는 사람들과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에 저를 쌓은 눈들이 서서히 녹아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전 이번 겨울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어있던 '올라프'가 따스한 마음들 덕에 새 출발을 꿈꿉니다. 끝으로 언제나 저를 하늘에서 지켜봐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철없는 못난 아들 얼른 개과천선해서 남을 위해 배려하고 춥지않게 따뜻한 군고구마를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제 마음속 '눈'들을 녹여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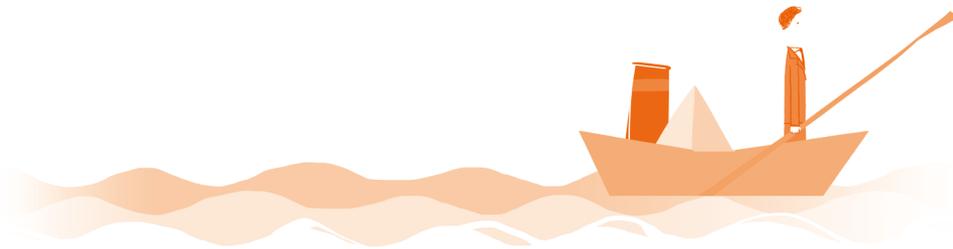


작품평 :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과거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알고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요. 지난날 군대생활과 현재의 나를 비추어 생각하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이 겨울눈에 대한 단상과 더불어 잘 보이는 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Hoc quoque transibit)

이영우



낯선 곳에 와서 맞이하는 두 번째 봄이다. 작년 봄은 어떻게 지나갔었는지 아련하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뒤돌아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한다. 욕먹지 않으려고 이 눈치 저 눈치 죽은 듯 겨우겨우 숨만 들이키며 그저 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사람 사는 게 이렇게 단순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속옷, 필기구, 편지용지 등 단순을 넘어 두 손으로 쓸어담아 비닐가방에 담아넣어 어디로든 더 나갈 수 있는 단출한 이곳의 살림살이, 이렇게도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아지는구나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반백이 넘어선 삶의 자취 등을 뒤돌아 살펴봅니다. 두 눈가에 이슬이 고이는 듯 합니다.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었습니다. 다복한 성(城)도 정성을 다하여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완벽한 삶이라고 자화자찬 했었습니다.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끌어들일 만큼 자만했습니다. 쌓인 헛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아차! 한순간의 일이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산산히 부서져 흩어져 갔습니다. 城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퐁퐁 얼어버린 시베리아의 동토를 걷고 있는 듯 살갓이 애여 옵니다. 육신은 너털너털 만신창이가 되어 갔으며 삶은 사하라의 황량한 사막처럼 황폐해 졌습니다. 새벽, 홀로 잠에 깨어 꿈인 듯 불살을 꼬집어 못된 악몽이길 부질없이 빌면서 하염없이 어깨를 들썩입니다.

一場春夢(일장춘몽)

사람사는 세상살이가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 숨 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곁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지고 보듬어 생각할 수 있다는 일상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듯 합니다. 갑자기 달라진 일상에 모두들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음습한 도심의 빌딩들 사이 그늘이 드리워진 이들의 삶에는 아비규환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의 육안은커녕 웬만한 현미경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바이러스의 횡포에 모든 것들이 움짱달짝 꼼짝없이 휘둘리는 일상입니다.

이른 아침 산책길의 산들바람, 풀잎에 영롱하게 맺힌 이슬방울, 정겨운 이웃들의 미소띤 얼굴들 그리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따스한 햇볕 비추던 길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언제나처럼 반복과 습관으로 늘상 평화로웠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던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인간은 익숙한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단순하고 명료한 일상을 통해서 단연히 오늘처럼 내일도 삶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흐트러졌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 갈 것이라는 믿음은 생각도 없고 아무런 근거와 내실이 없는 허망한 기대였음이 드러나는 요즈음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문가인 네이션 올프는 바이러스의 폭풍우 시대에서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드는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하며 일반 시민도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위험판단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더불어 여러 신문지면을 뒤척이면 흑자들은 작금의 상황을 재앙으로 인식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의 정신의 황폐해지면 사회전체가 절망적으로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류역사에서 사회전체를 뒤흔든 위기는 대체로 전쟁, 기근, 질병 세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세가지는 내외적으로 촘촘히 얽히고 설켜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쟁은 농사의 기반을 파괴하여 기근을 낳고 기근은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여 전쟁의 원이 되는 동시에 사람들의 신체를 허약하게 만들어 감염병을 퍼트리기 십상입니다.

유럽역사에서 사상최대의 재앙이 발생한 14세기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백년전쟁

(1337~1453), 대기근, 페스트 전염병발생, 서유럽 중심부에서 백년 넘게 전쟁으로 사회적 대 혼란이 지속되는 동안 쎄 페스트는 병독성이 훨씬 더 강한 페 페스트 전염병으로 변이를 일으켜 유럽전역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위와 같이 인류의 지나간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우리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을 신중하게 준비하되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실상과 허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바로 잡는 일 일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두려움에 마음이 잠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회피와 모면은 두려움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혹독한 겨울추위를 견디어낸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돌아오르듯이 봄벌처럼 따사로운 마음을 담은 격려와 환한 미소가 피어날 때 새 봄날이 환하게 팔벌려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뒷산 넘어 제집 찾아가는 석양의 노을처럼 쏜살같이 우리곁에서 떠나가리라 믿고 싶습니다.

보고싶고 그리운 사람들의 환한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가져봅니다. “혹쿠우퀘 드란시비트!” 이 또한 지나가리다.

2020 새봄날에 이영우(베드로) 쓰다.



작품평 : 감옥에 있거나 병에 걸릴지라도 혹은 학대나 박해를 받는다하더라도 당신의 내면은 당신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난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세상의 비바람을 이겨내며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취적인 기상을 충전한다면 그 고통 또한 지나가고 평화의 길이 보이겠지요.

※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수필가 원정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새길지 가을호를 읽고

서창희

작품평

매일 잘못이나 실수를 적어보는 것, 그것이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이겠죠. 새길을 통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신념, 책임감, 열정, 사랑)를 마음껏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그런 마당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기다리던 가을이 지나가고 이렇게 동장군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린 겨울에 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새길지를 전 참 좋아합니다. 처음 새길지를 접한 건 2016년도 였으니 벌써 4년이란 시간동안 제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사회복귀하고 또다시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된 부끄러운 몸이지만 늘 따뜻한 울림을 주는 새길지에 이 글을 바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새길지의 애독자이자 2016년 겨울 새길지에 글이 실린 새길지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용서로 가득찬 새길지의 수많은 고백들은 늘 저의 눈시울이 붉어지게 만들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참회의 고백들은 저를 돌아 보는 거울이 되어 줍니다.

새길지에 마음을 전하는 고백들을 보면 누구나 각자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한 4가지 가치들을 이 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Faith(신념), Resposibility(책임감), Passion(열정), Love(사랑)입니다. 새길지를 읽다보면 간혹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자신에 대한 심한 질책을 하시는 분들의 글을 볼때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사죄와 그로 인해 느끼는 죄책감과 책임감은 올바른 반성의 과정이지만 자신을 조금만 이해하고 사랑하며 미래를 위해 열정에

불을 붙이는 시간들로 수용생활을 채워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전국의 5만 수용자분들, 저의 동료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 삶을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새길지는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우리의 신념일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잘못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죄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양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야할 귀한 보물을 지켜가는 자신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후회와 반성도 미래를 위한 귀한 자양분이 될테지만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열정에 불을 붙이는 시간들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잠들기 전 오늘 한 잘못이나 실수를 3가지씩 적곤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매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새길지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 속 진짜 '나'를 찾아가는 좋은 고백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새길지로 인해 위로 받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이 글을 제 동료분들께 바칩니다. 늘 좋은 문예지 '새길'을 만들어 주시는 교정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길 감상문

강명남

작품평

수용자 종합문예지 새길은
퀄리티가 높지요. 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림에 일러스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자와의 공감 및
소통이 다른 잡지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지요. 모두 새길
독자들 덕분이예요. 책 받기가
힘드셨군요. 배포도 많이 되고
가까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새길지 담당 주임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운동장에서 새길지 담당교도관님께 새길지 책
한권을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24일 ○○교도소에 이감
와서 새길지 참여방송을 듣고 세차례 원고를 제출한 결과 두
차례나 수상하는 행운을 거머 쥐었지만 새길지를 받아 보긴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2020년 4월 독후감 원고 제출 후 첫 수상한지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새길지는 찾아보기도 받아보기도 힘들었
습니다. 아마도 제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수용동에 있어 새길지가
배부 안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글이 실린
새길지를 담당주임님이 직접 저를 찾아 오셔서 소장해두라며
제 손에 안겨 줬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연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새길지를 받아든 순간 나는 역시 ‘새길’ 문예지는 확실히
틀리는 구나를 느꼈습니다. 우선 앞표지에 가을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예쁜 코스모스꽃과 꽃밭속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한쌍의
연인, 그리고 높은 가을하늘 두둥실 떠다니는 흰 구름송이 속에
적혀 있는 ‘새길’이 란 두글자, 또한 ‘새길’이란 책과 딱 어울리는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이란 문구, 뒷면 표지에 그려져 있는 호수,
밭, 과일나무, 오솔길 등을 비롯해 책속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다 보니 잠시나마 머리속의 모든 번뇌와 고민들이 사라

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책속의 다양한 콘텐츠와 고품질의 예쁜 디자인, 종이질감, 예술적 감각을 충분히 살려낸 다양한 그림들, 그리고 책의 첫장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정성욱교도관님의 시로 시작하여 마지막 페이지에 마무리 짓는 이석환님의 “고맙다 새길아” 등의 공감대를 갖게 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글은 그누가 봐도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글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웃음과 울음, 감동과 용기가 담겨져 있는 모든글의 내용은 몸과 마음이 움츠려 있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함과 친근함을 안겨 주었고 짙은 여운을 남기면서 행복한 길동무가 되어 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읽고 읽으면서 이책을 만드는데 많은 심혈을 쏟아부으신 사회복지과의 모든 교도관님과 새길지를 만드시는 분들의 땀과 노력과 노고가 얼마나 많이 베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더욱이 원고보다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글로 잊지 못할 작품평을 해주신 교수님, 선생님 한분 한분께도 고마움과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에 창간하여 그동안 지나긴 세월을 거쳐 발전해 온 새길 문예지는 특색있는 글과 꾸밈새로 수많은 수용자들에게 희망의 새길을 견도록 반딧불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화하고 인도해 주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분명 새길 문예지의 크나큰 역할과 공헌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새길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장에 힘찬 응원과 찬사를 보냅니다.

끝으로 “새길아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앞으로 더욱 빛날 새길의 앞길을 상상해 봅니다.

2020년 가을호를 읽고

조효선

작품평

나눔도 비움이 될 수 있고 분명히 비웠는데 또 다른 것들이 채워진다고 새길을 정확하게 한 줄로 잘 표현했어요. 홀로 위로와 응원이 아닌 다함께 더불어 위로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하는 희망의 책을 만들어 보아요.

저는 매 계절마다 '새길'을 기다립니다. 벌써 4년째 매 계절마다 새길을 보며 글쓴이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사, 진로문제, 고민거리, 뿐만 아니라 후회와 희망 말고도 참 많은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출간된 '가을호'를 보면서도 어김없이 희로애락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새길'에 글을 응모 해본 경험이 있기에 글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내 이야기, 내 생각을 쓴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 이분은 이 얘기를 참 용기내서 쓰셨겠구나.", "이분은 희망을 찾으셨구나" 같은 말을 속으로 혼자하며 봅니다. 그래서인지 '새길'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같이 살아가며 비슷한 처지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한번 확신하며 전우애 같은 것이 샘솟으면서 나 홀로 위로도 했다가 응원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수용생활을 하면서 많은 책들을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인문학 책과 무협지와 만화책이 대표적이라 생각합니다. 공허하고 멈춰 있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 인문학 책을 펼치고 갑갑한 마음에 대리만족을 느끼려 무협지나 만화책을 펼칩니다. 여기선 나를 비워야 잘 살수있는데 채우기만을 고집하다가 에세이와 같은 책을 펼치면 나눔도 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새길'을 보며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무언가 비워집니다. 하지만 그 비움이 결코 손해 같은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비웠는데 또 다른 것들이 채워

집니다.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보면 나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내 상황보다
힘드신데 희망을 찾으신 분, 자격증과 대학 졸업을 하며 꿈을 이루신 분들, 이 안에서 이별을
하신 분들, 용서와 화해를 하신 분을 접할 때 마다 많은걸 얻고 비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새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길'을 보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위로도 받고 뒤 돌아 보고 앞날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용기와 희망을 얻고 '새길' 안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감상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